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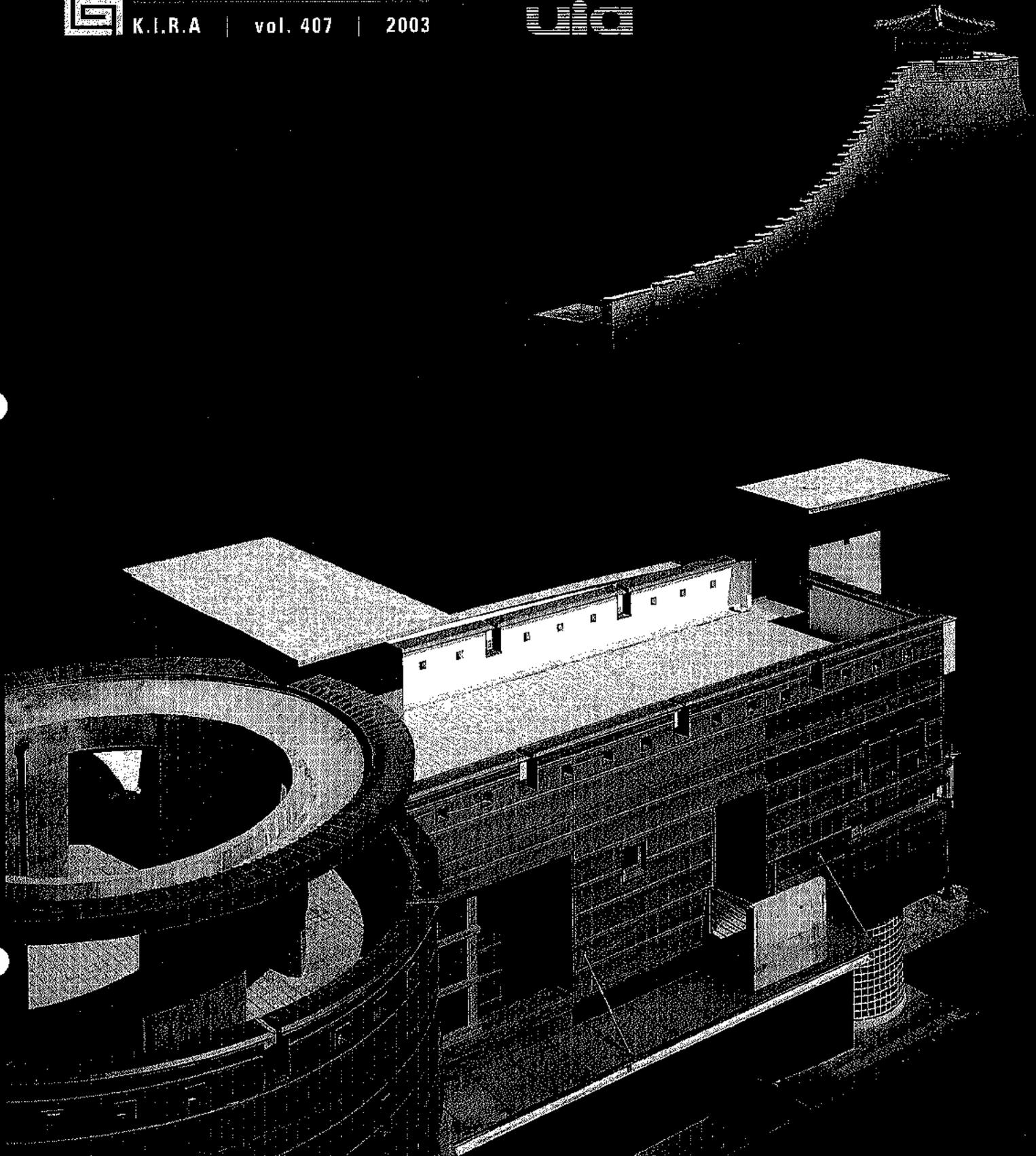
# 建築士



K.I.R.A

vol. 407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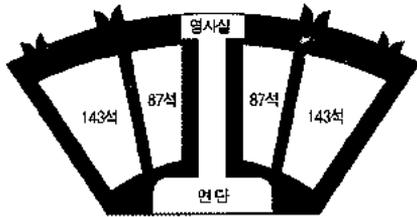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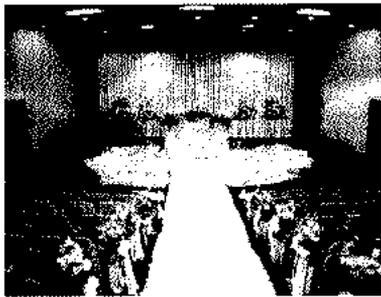
##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대강당(460석)



###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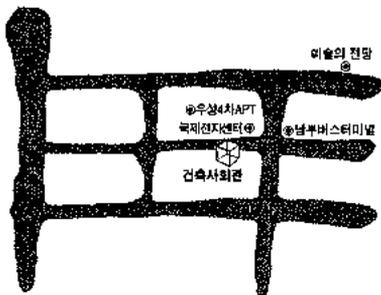
##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_ 581-5711~4

Fax\_ 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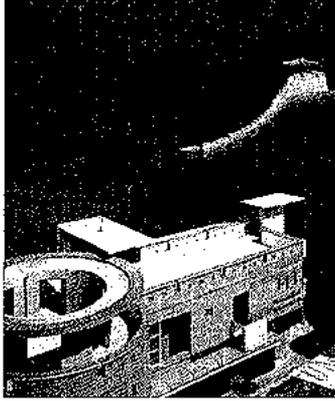


약 도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3월호, 동권407호

차례 2003 3 407호



팜달문 종합안내소(김동훈 作)

33



42



49



취임사	참여하는 협회, 실천하는 협회	이세훈	20
컬럼	건축공간으로서 초고층의 의미	여영호	22
건축민평		유원재	25
회원작품	팜달문 종합안내소	김동훈	26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박승홍	32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이상림 · 안재일	40
	천주교 문정2동 성당	김정신 · 허인원	46
	일앤집 빌딩	이관직	52
	웅상동협 파머스마켓	박현철	58
계획작품	화성주택	이관직	64
작품노트	연구소 2제	김희욱	68
기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실습(1)	문홍길	72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 소고	곽선규	78
	에너지 절약형 희망의 도시찾기	류재경	81
보고서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2)		85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1
	해외잡지동향		98
	현상설계		102
	법령		108
	세무안내		113

발행인: 이세훈

홍보편찬위원회: 정정치, 박양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mailto:korea@kira.or.kr)

인쇄안: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 Inaugural address

Participating and Practical Institute	Lee Se-Hoon	20
---------------------------------------	-------------	----

### Column

The Meaning of Super Tall Building as Architectural Space	Yeo Young-Ho	22
---	--------------	----

### Cartoon

Yoo Won-Jai	25
-------------	----

### Works

Tourist Information Center of Paldalmun Gate	Kim Dong-Hoon	26
Woosuk Memorial Hall,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ark Seung-Hong	32
Seoul Civil Safety Experience Center	Lee Sang-Leem & Ahn Jae-Il	40
Munjeong 2-dong Catholic Church	Kim Jeong-Sin & Heo In-Won	46
Il & Zib Building	Lee Kwan-Jick	52
Woongsang Nonghyup Farmers Market	Park Hyeon-Cheol	58

### Process works

Hwaseong Residence	Lee Kwan-Jick	64
--------------------	---------------	----

### Design note

Research Center Two Project	Kim Hee-Ok	68
-----------------------------	------------	----

### Feature

Practice for District Unit Plan	Moon Hong-Gil	72
View on the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Kwak Seon-Kyu	78
Searching for the Hopeful City in the Type of Energy Saving	Ryu Jae-Kyong	81

### Report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86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91
Overseas Journal	98
Competition	102
Laws & Ordinances	108
Taxation business	113

Publisher: Lee Se-Hoon

Editorial Member: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e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K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6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 참여하는 협회, 실천하는 협회

### Participating and Practical Institute

이세훈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Se-Ho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제3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세훈입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미려한 본인에게 대한건축사협회장의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건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불황의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해선 투쟁도 불사해야 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나라밖에서는 글로벌경제체제의 확산으로 국가간 시장쟁탈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결국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점차 더 큰 압박과 시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결국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타파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우리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말해 줍니다.

나보다 남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나, 다수의 썸소리를 일파성 불만쯤으로 간과해 버리는 조직은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특히, 최고의 전문가단체를 자부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제도보호의 틀 속에 안주하며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갈 것이고 결국 이는 회원들의 외면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하는 새집행부는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한 회원의  
구심체로서 '참여하는 협회', '자존심이 있는 협회', '실천하는 협회' 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들을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협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통해, 법체제의 모순과 혼란을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사업영역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실현시켜 건축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정보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건축사업무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계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하고 협  
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그 어느 때보다 회원여러분께서 본인과 새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8천5백여 전회원의 화합과 단결에 의해 지켜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저 또한 실천적 노력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앞에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취임사  
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건축공간으로서 초고층의 의미

### The Meaning of Super Tall Building as Architectural Space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eo Young-Ho

#### 현실

1990년대에 중국과 동남아 등의 아시아권에서 많은 초고층들이 실현되었으며, 지금도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나라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영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비록 미국의 911 테러에 의하여 초고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초고층은 서울과 같은 현대도시의 필수적인 건축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은 다른 일반 건축물 유형에 비하여 건축적인 역사도 짧을 뿐더러 규모에 있어서나 그 기능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혹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감과 더불어 초고층이 야기할 수 있는 도시 및 사회 환경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한국초고층포럼의 국제심포지엄 기간동안 실시한 건축 관련전문인들의 초고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고층이 현대의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초고층에 의하여 야기될 수도 있는 도시 환경적인 여러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서울이란 도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그 가운데서 실현된 몇몇 초고층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을 살펴보다도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고층의 현대도시에 대한 건축 공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초고층과 수직공간

초고층은 자칫 건축시설의 한 용도별 유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초고층은 박물관이나 학교 혹은 백화점 등과 같은 용도별 특성을 가진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실용 가능한 여러 건축적인 잠재력보다는 사무소, 호텔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몇 가지 용도의 기능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비경제적이고 공간적인 융통성이 결여된 건축물로서 혹은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상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게 되는 편견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초고층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층수와 높이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초고층에 대한 피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현대의 초고층은 건축물의 특정한 시설용도로서 혹은 물리적인 규모에서 지나치게 되는 영향력으로서가 아니라 수직으로의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는 새로운 건축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용도의 건축 기능이 수용되었는지 간에 초고층에는 수직적인 건축공간 유형으로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수평공간으로만 주로 발전되어온 기존의 건축 공간개념에 대한 수직공간으로서의 변환을 요구하는 신 공간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 공간 개념은 윌리엄 페더슨(William Pedersen)이 언급한 기존의 수평적인 그리드 공간에 대하여 하늘로 무한히 개방된 수직적인 공간의 활용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공간구축에서 보다 더 전환된 미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 초고층과 입체도시

이러한 수직적인 신 공간 개념의 적용은 하이퍼 빌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60억 명으로 간주되는데 의학기술과 사회복지 환경의 발전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 일로에 있으며, 특히 현대의 도시는 늘어나는 거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미래에 부족하게 될 거주공간을 위하여 대체공간으로서 지하공간과 수중공간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의 공간을 위하여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나 일본의 도시기반공단과 같은 도시공간 연구자들은 하이퍼 빌딩이란 신 개념의 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저 층의 저밀도 분산에 따른 전통적인 수평 배치는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공존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평으로 광범위하게 배치된 건축물에 의하여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가 침식되며, 또한 건축물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에 따른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낭비가 과도하게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전통적인 수평 거주공간의 수직 거주공간으로의 변환을 추구하며, 그에 따른 지상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창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평면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수직으로 집적된 입체도시 공간으로의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 초고층의 가능성

이러한 하이퍼 빌딩의 개념에서 초고층 수직공간의 미래적인 적용 방향을 가능할 수가 있다. 다만 하이퍼 빌딩은 실현되기에는 아직은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초고층의 수직공간 개념은 현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수직공간 개념은 초고층이 이미 지니고 있는 보편화된 건축적인 특성이지만, 거주공간 확보로서 수평적인 건축공간 개발이 야기한 많은 도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출발점으로서 새롭게 초고층을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보 집약과 도시기능의 효율성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이 수직공간 개발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는 수직공간에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공간 기능들을 수직공간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고층의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Le Corbusier의 Immeuble-villas 등 여러 집합주택에 계획된 공중정원과 건축가 Ken Yeang에 의하여 시도되는 고층 생태공간의 적용은 초고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초고층은 기존과 같은 수평공간의 활용이 아니라 무한한 수직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층부와 저층부 상호간의 개방을 통하여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상에만 한정되어 오던 전통적인 조경도 초고층의 수직공간에 응용됨으로써 초고층은 그 자체가 공중정원이 되는 새로운 건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가지며 실현되는 초고층은 다른 어떠한 건물보다도 건축적, 도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 초고층화를 통한 신공간 개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내재되어 왔던 도시 및 건축적인 제반 현상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대의 도시공간에 새로운 건축적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초고층의 수직공간 개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 건축적인 상황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던 여러 사실들이 실제적인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거주 환경을 위하여 도시 내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공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첫 번째가 수직 공간의 신 공간개념으로서의 초고층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초고층에 대한 수직공간의 개념을 새로이 적용함으로써 평면적인 종래의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으로 변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도시와 사회적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초고층이 단순히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거주공간에 대한 신 공간개념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초고층 건축은 더 이상 사회나 국가의 단순한 상징성이나 공간확보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현대도시가 직면한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건축적 사고와 접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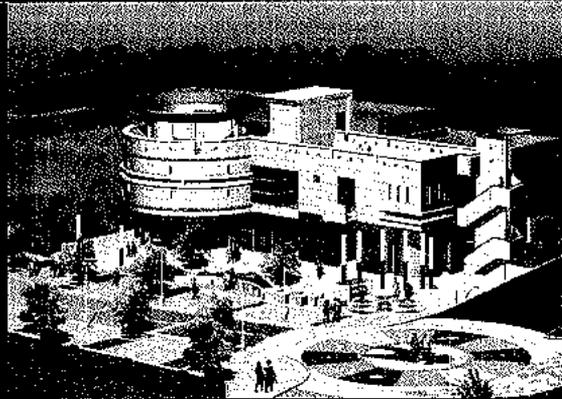
# 팔달문 종합안내소

## Tourist Information Center of Paldalmun Gate

김동훈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Hoon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2가 48-1, 48-4, 영농3-3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81.40㎡
건축면적	203.34㎡
연면적	405.35㎡
건폐율	42.23%
용적률	75.6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기간	2001. 1. 1 ~ 2002. 2. 15
공사기간	2002. 3. 8 ~ 2002. 11. 4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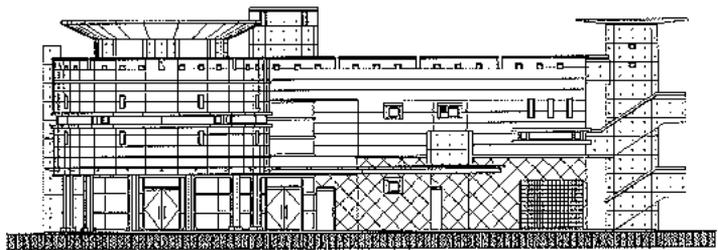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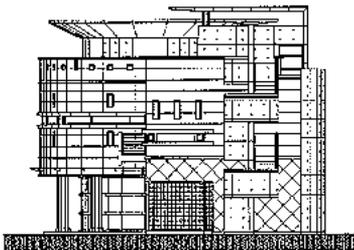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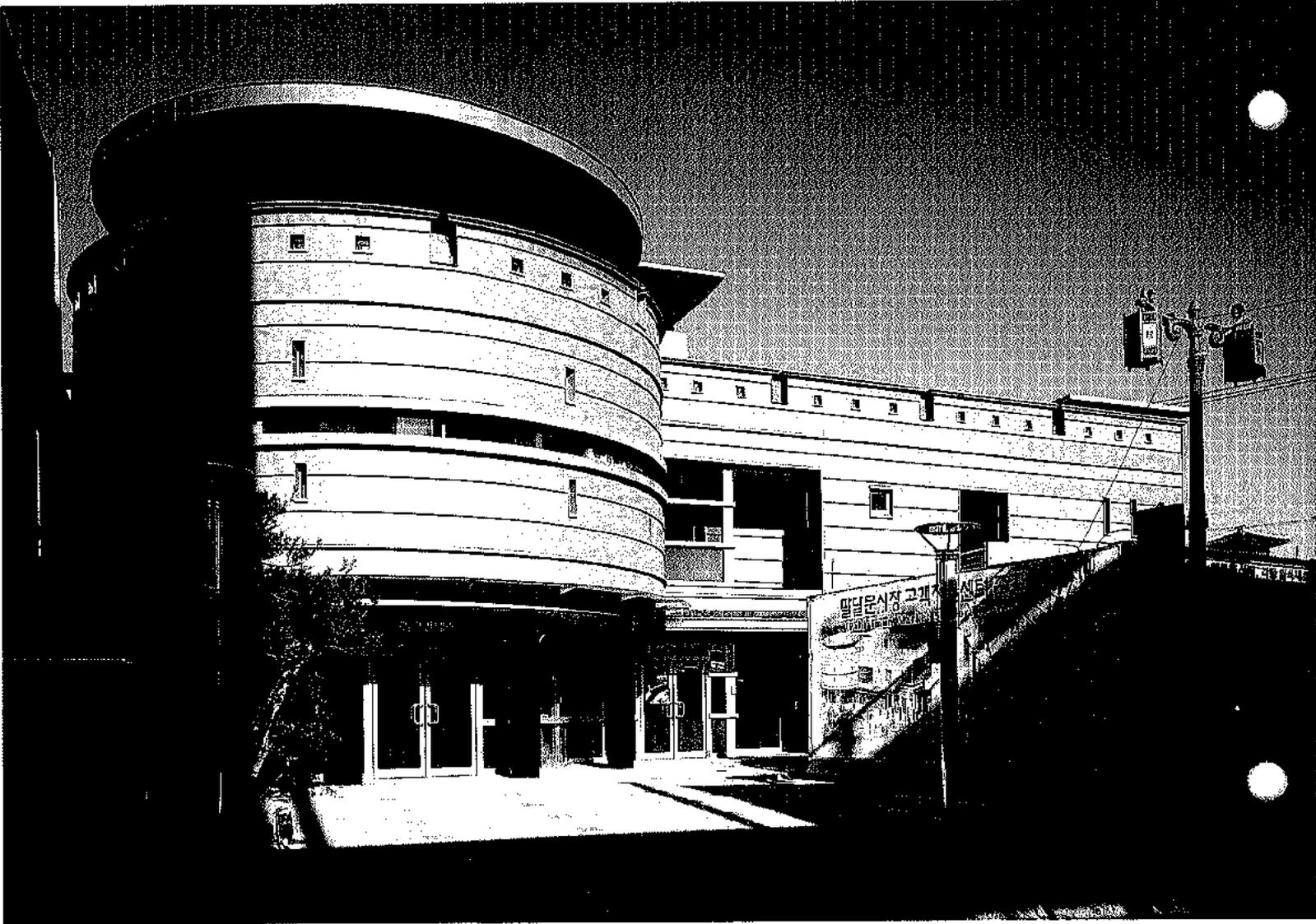
화성의 팔달로를 따라 무분별하게 개발된 상점군은 도시의 CONTEXT를 파괴하고 화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참모습을 되찾고 전통미를 음미하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 감각과 미래지향적인 종합 안내소를 건립하여 화성과 관동문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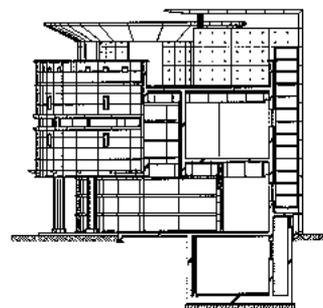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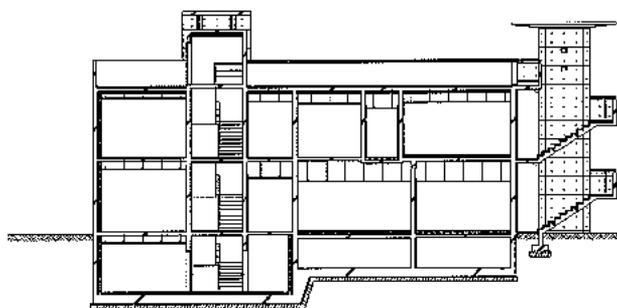
시민과 관광객에게 화성의 주요시설과 교통을 안내하여 화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관광상품을 판매하여 건물유지 관리를 위한 수익시설을 고려하여 1층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안내소, 관광상품 판매소, 인터넷 검색코너, 휴게실, 공중화장실을 계획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과 약속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2층에는 관광문 시장을 찾는 주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방, 문화센터, 소비자 보호센터를 계획하여 주부들이 부담없이 쇼핑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교양강좌 등을 통한 고객층 유인토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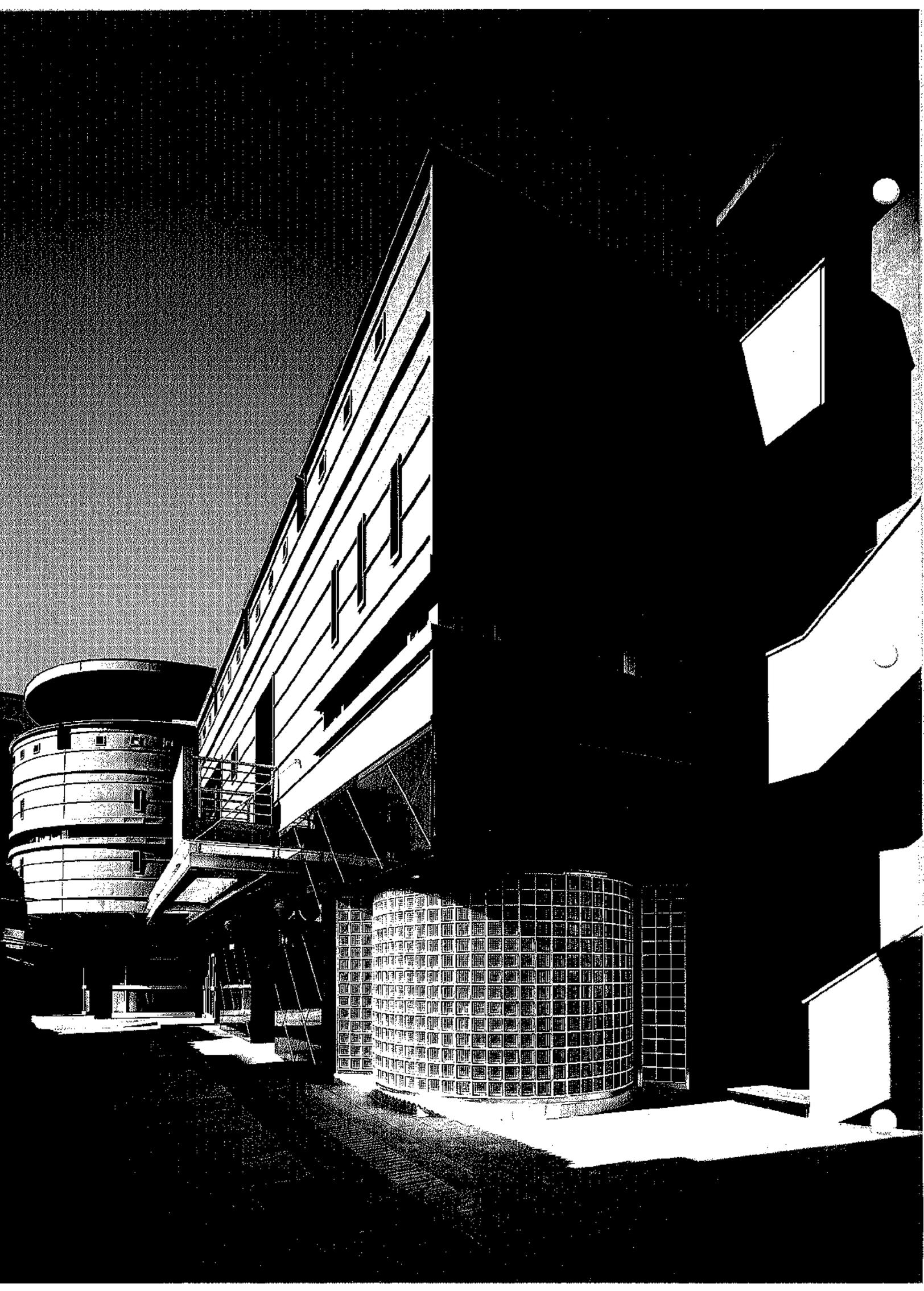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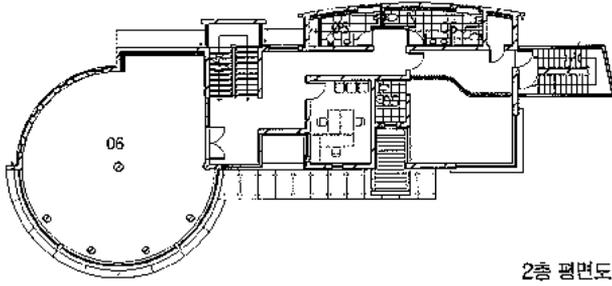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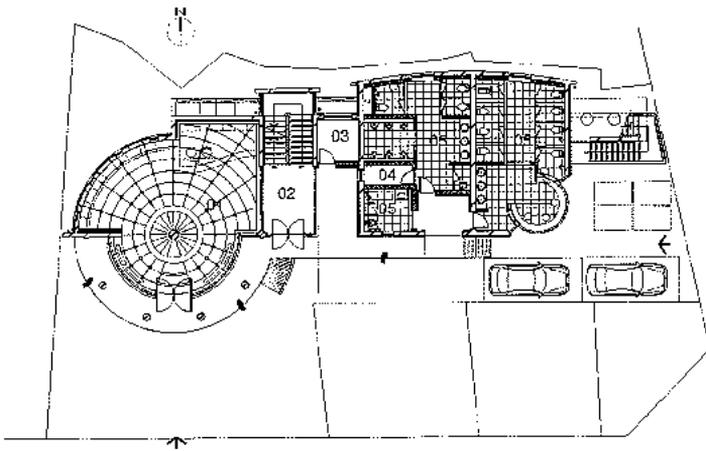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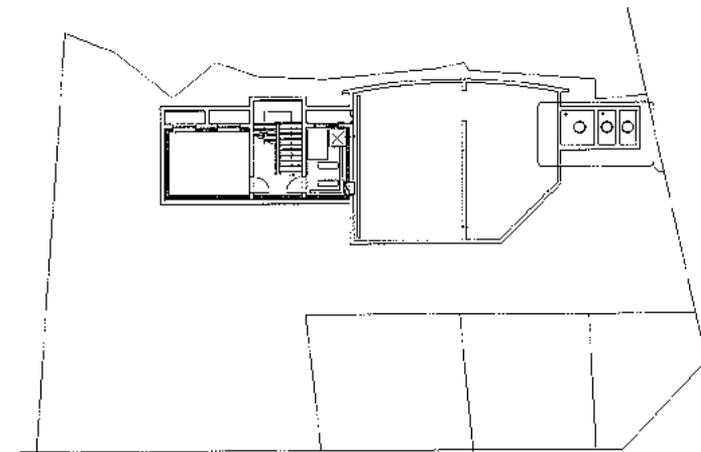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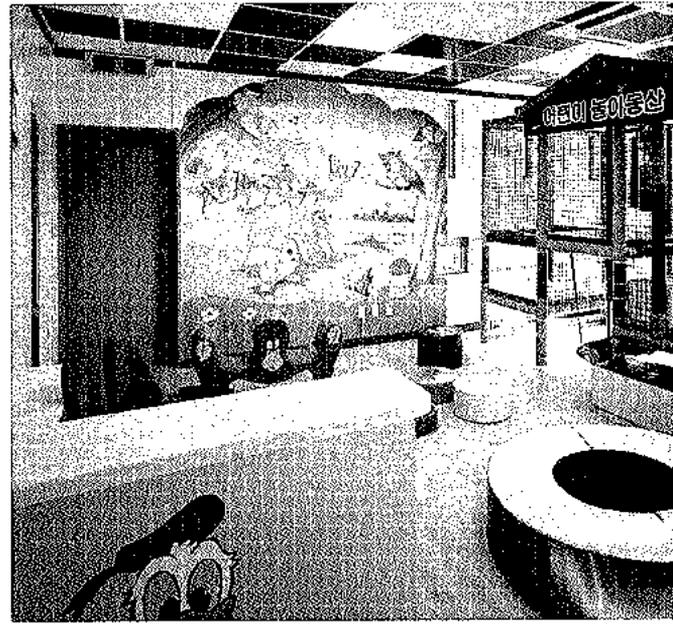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_ 안내소
- 02\_ 홀
- 03\_ 민원실
- 04\_ 창고
- 05\_ 화장실
- 06\_ 다목적공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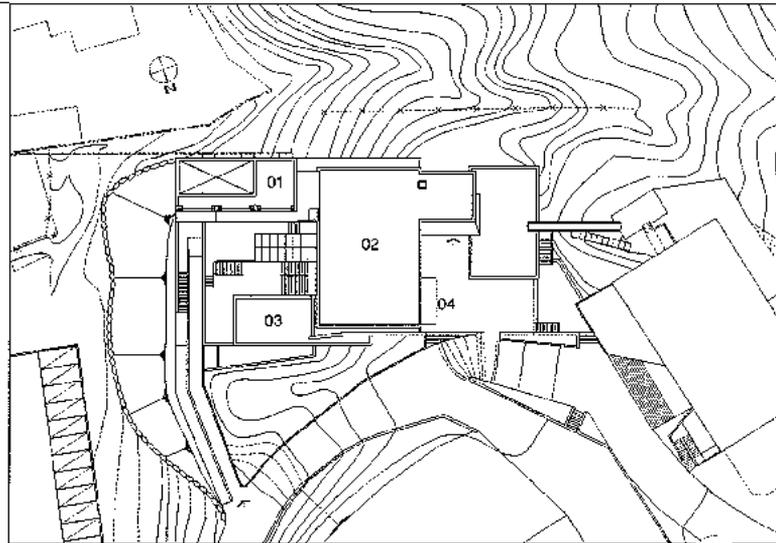
#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 Woosuk Memorial Hall,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박승홍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Seung-Hong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복합용도 (강의실, 교무연구실, 전시실, 기숙시설, 대회의실 등)
대지면적	62,561.30㎡
건축면적	938.75㎡
연 면 적	2,905.45㎡
건 폐 율	15.92%
용 적 륜	44.97%
규 모	지하2층, 지상6층
최고높이	19.90m
주요마감	외벽-노출콘크리트, 붉은벽돌치장쌓기, 라임스톤, 목재리브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구 조	(주)크로스구조
설 비	(주)정도설비
전 기	(주)정우종합기술
조 경	솔토조경(주)
시 공 사	(주)제인건설
설계기간	2000. 5 - 2001. 3
설계책임	박종남
설계참여	정우진, 박철, 김정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01\_ 기숙사 02\_ 교육연구시설 03\_ 옥외데크 04\_ 주출입구

전체적으로 급경사지에 위치한 캠퍼스 내에 동남쪽으로 레벨차가 큰 곳에 위치한다. 내지내 평지가 협소하며 경사지와 각 건물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길들이 산책로처럼 놓여져 있다. 남쪽으로 공원부지여서 자연은 수려하지만 조망하기는 어렵고 동쪽으로는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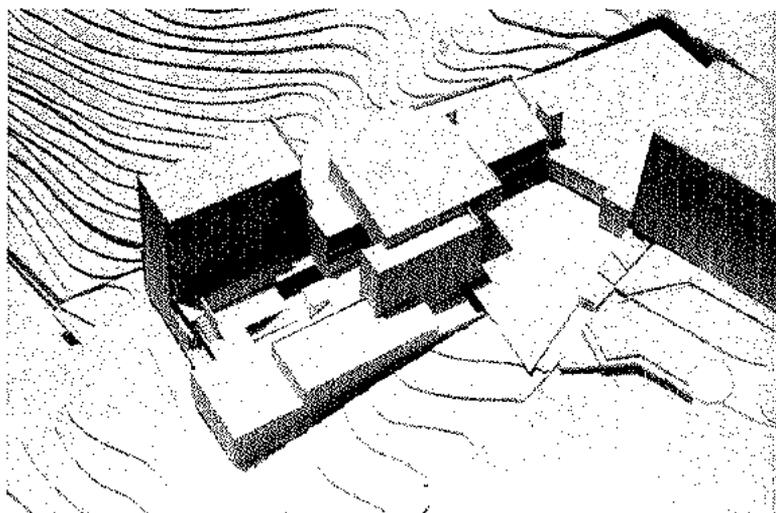
이 건물은 기존 건물내 필요시설을 최대 수용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숙시설, 강의실, 교무연구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 각각 다른 기능의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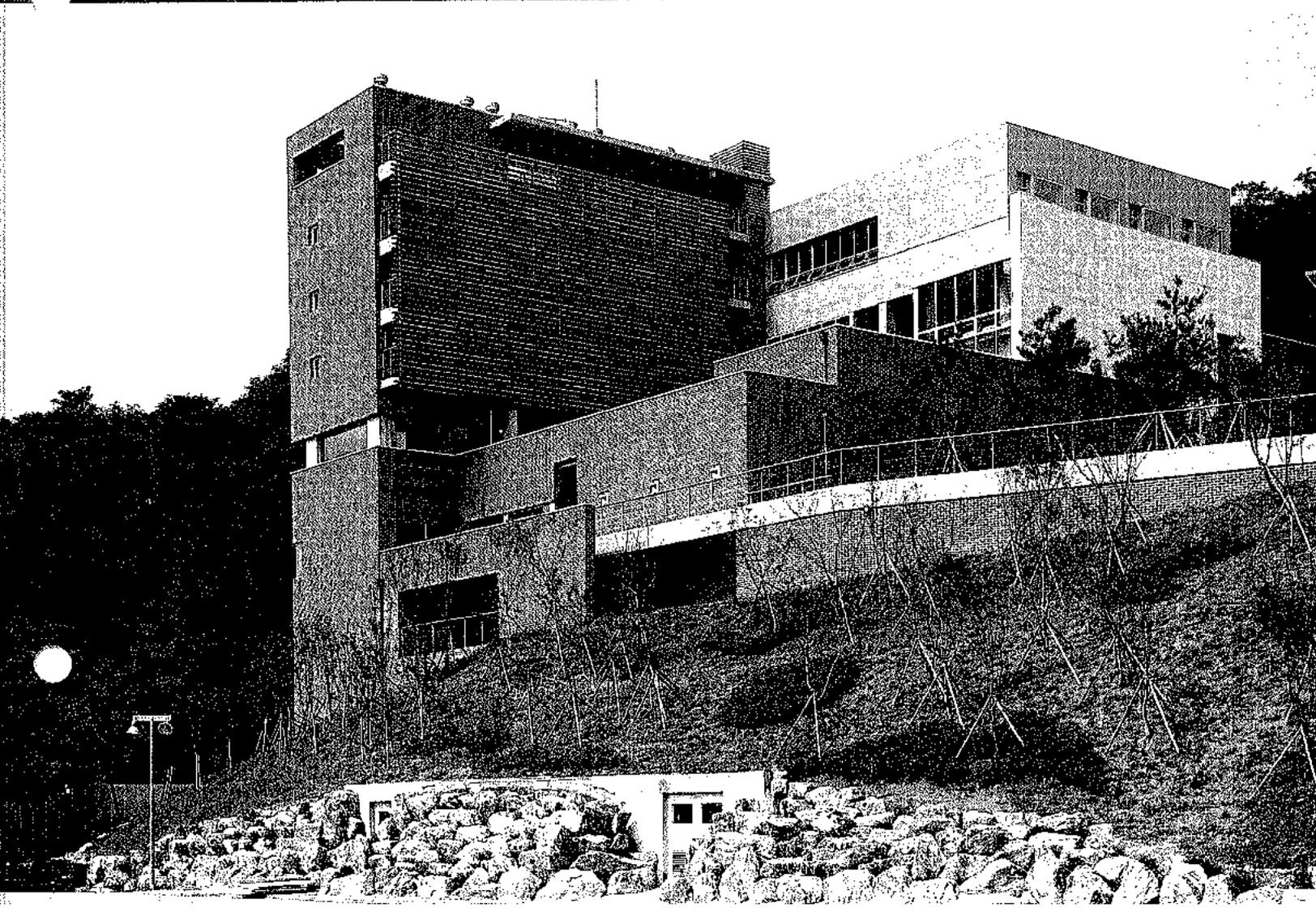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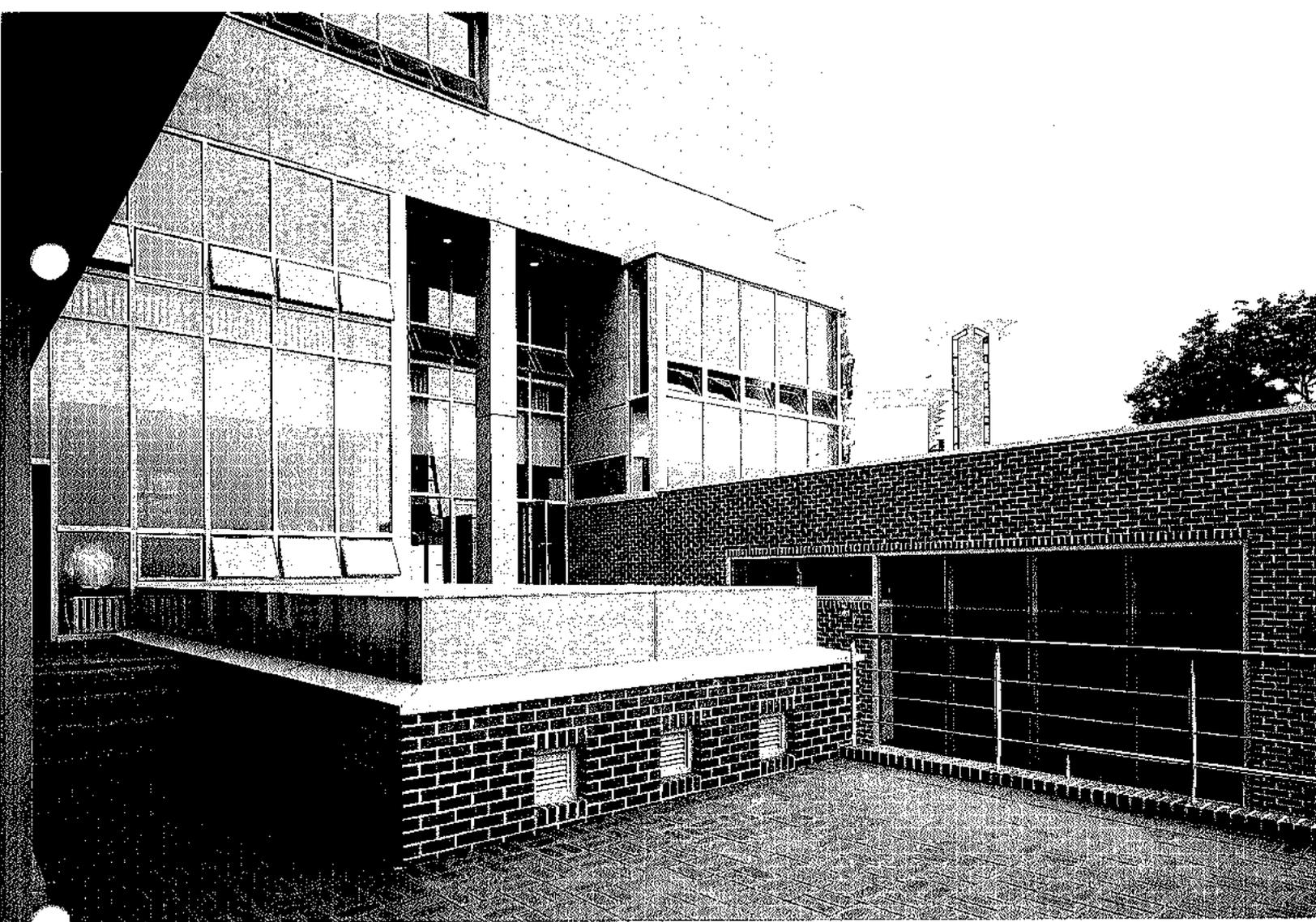
복합용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층을 겹겹이 올리는 대신 대지 레벨에 맞추어 각 실들의 섹션은 위,아래가 실내·외로 연결되어 있다. 6M 도로를 따라 걸다보면 쇠석을 깔아놓은 길에 서게 되는데 지하1층과 연결되는 진입로이다.

지하1층의 대회의실홀은 2층까지 오픈되어 있는 유리빛 천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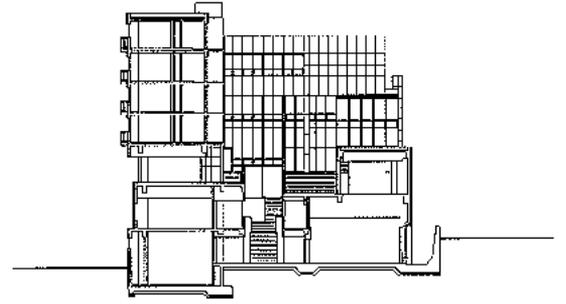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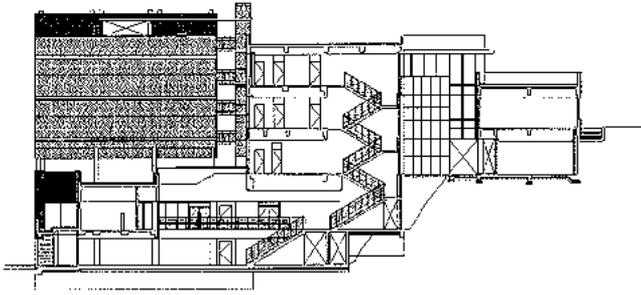
통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머리위로 전시벽이 둘러져 있는 회랑공간을 통해 사람과 공간의 상호교감이 이루어진다. 홀의 개방성을 통해 시선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전개되고 이곳은 사실상 실내공간에서 행위의 중심이 된다.

홀의 중심에 있는 노출벽 사이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오르게 되면 주진입홀이 나온다. 이곳은 여러 용도들이 교차되는 수직전개의 공간지점이기도 하고 순환적 동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다. 이곳에서 진입반대편으로 진입하거나 좌측으로 연결된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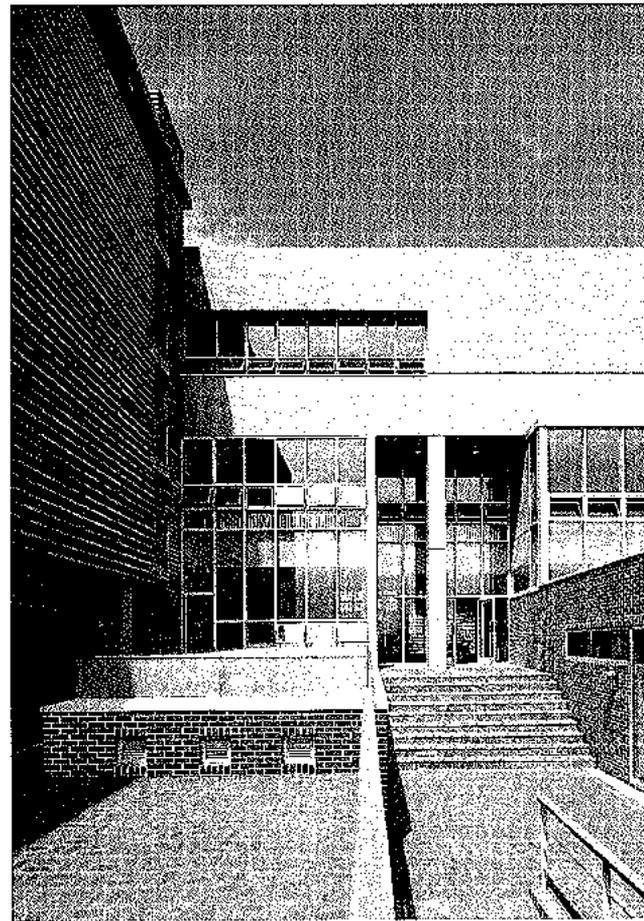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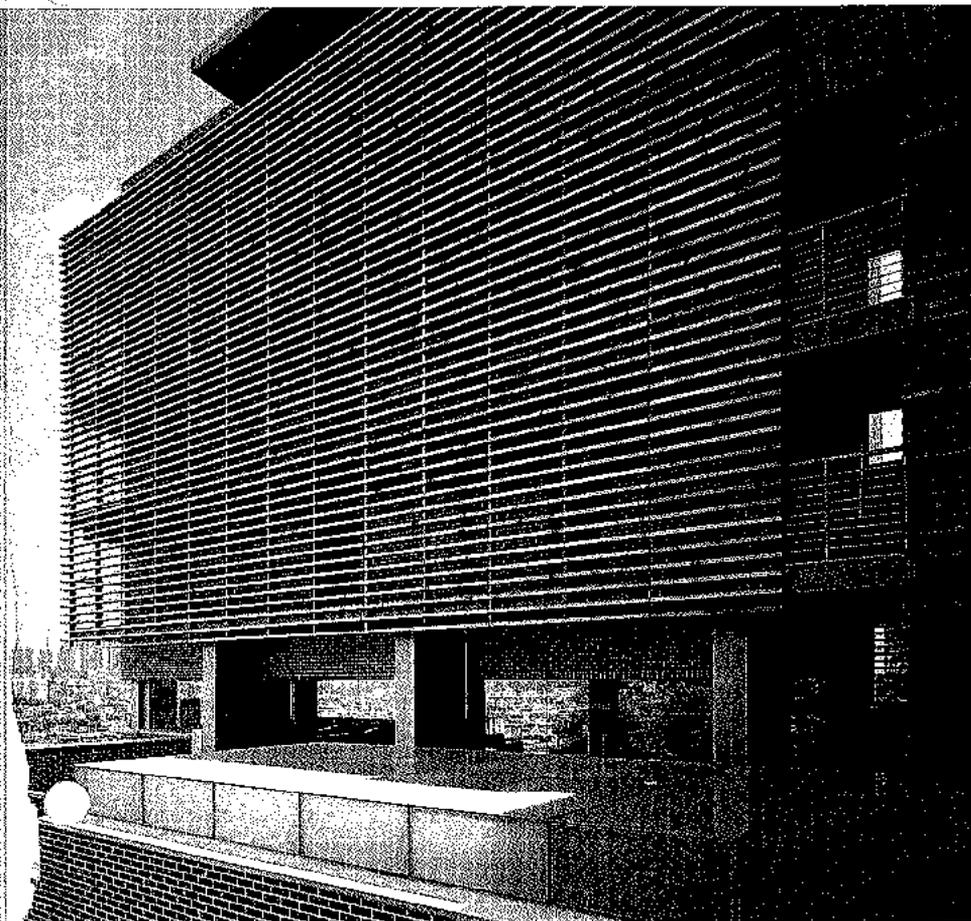




주단면도

을 통해 나가면 내부의 외부정원 즉 외부 테크를 만나게 된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내, 외 공간을 끌어들이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실내 산길은 사교적 잠재력을 지닌다. 이 테크는 이 건물의 수평적인 코어 중심에 있으며 주거 동선의 독립성을 확립해 주고 교사동, 세미나동 등 상호 동선을 연결해주는 반면 차단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특히 학교라는 대지안은 어느 곳보다도 이벤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의실 밖의 학생들의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공사 중간에 멀티룸으로 바뀐 테크인쪽부분은 건물 내부에서 자연과의 공명상태를 이룰 수 있는 피로티였다. 건축주도 이 곳이 좋았는지 비워두지 못하고 실로 채우고 싶었는지 결국은 기구가 백백이 들어선 곳이 되어버렸다. 준공식때 찾아주신 사람들에게 제일 반응이 좋은 곳이기도 했다. 기존의 피로티가 지닌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 바깥이 전면을 유리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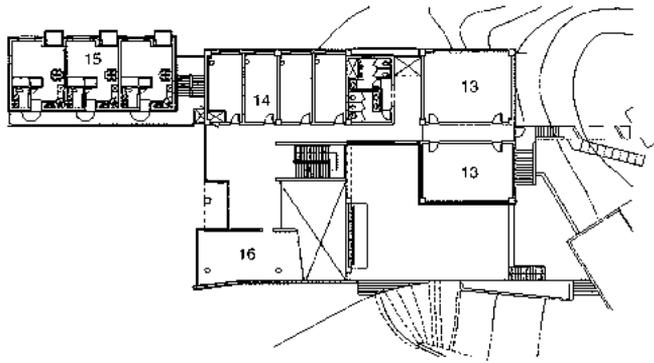
안식년을 맞이한 목회자들과 선교사, 외국인 교수들이 묵을 수 있는 10세대의 기숙사는 학교측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 복합용도내에 있는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교사동, 세미나실과는 동선을 단절시켰고 남쪽에 배치하여 채광, 환기 등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목재리브로 기숙사 복도와 주거의 내부공간을 외부로부터 시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옥상은 숙소만의 커뮤니티 장소도 마련하였다. 아직 때묻지 않은 이 공간들 속에 사람들이 찾아와 테크에서 담소를 즐기고 전시회도 보고 강의도 듣고 예배도 보고 썸미미당에서 이벤트도 갖고 한가로이 차도 마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담아가는 모습들을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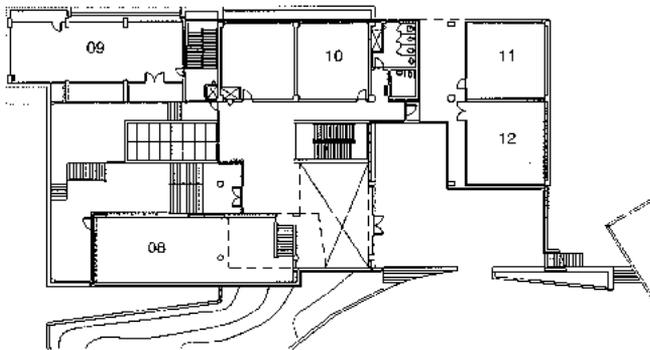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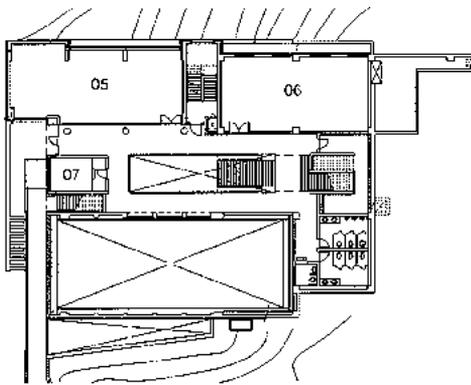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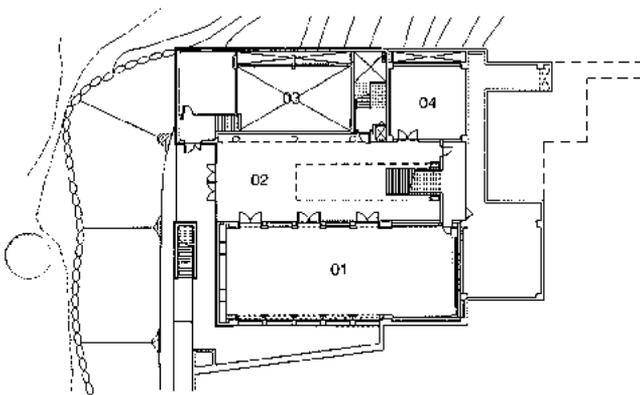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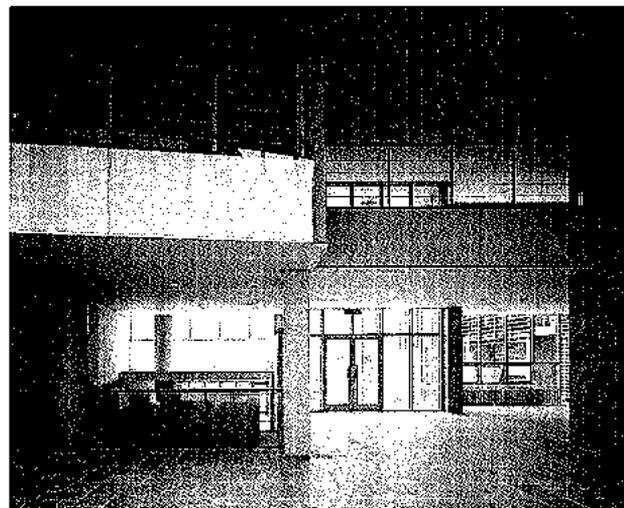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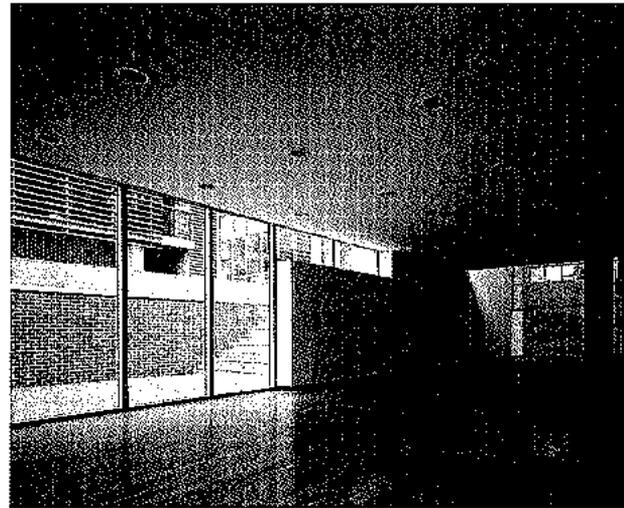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01\_ 대회의실
- 02\_ 홀
- 03\_ 기계실 상부
- 04\_ 예비실
- 05\_ 도서실/컴퓨터실
- 06\_ 이화인습실
- 07\_ 기도실
- 08\_ 전시실
- 09\_ 멀티실
- 10\_ 세미나실
- 11\_ 자반사무실
- 12\_ 학교기념품
- 13\_ 강의실
- 14\_ 교수연구실
- 15\_ 기숙사
- 16\_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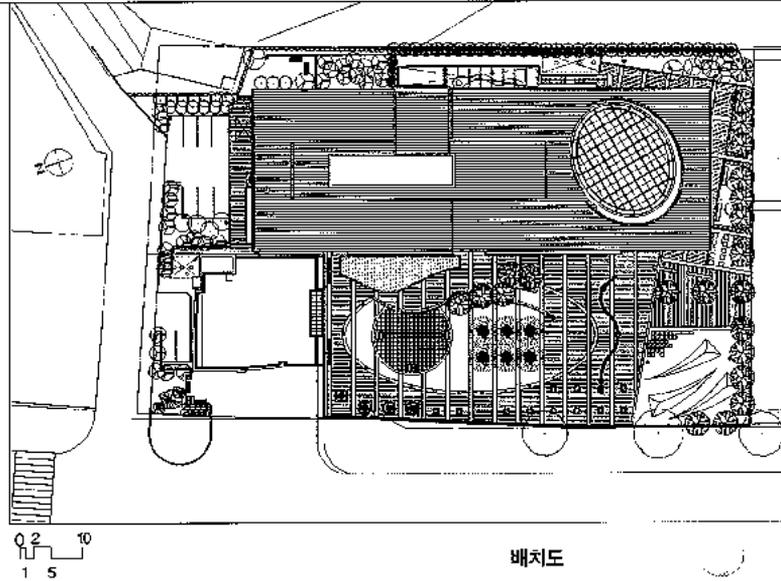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 Seoul Civil Safety Experience Center

이상림 · 안재일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 Ahn Jae-Il

###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주 용 도	전시 및 체험시설
대지면적	5,041.6㎡
건축면적	1,795.2㎡
연 면 적	5,443.5㎡
건 폐 율	35.6%
용 적 륜	82.16%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외장 : THK0.7 티타늄아연판, THK3 A.L. Sheet, THK24 복층유리, 로아복층유리 내장 : 바다 화강석, 벽-경량벽체위 전시마감
설계기간	2001년 6월 ~ 2002년 11월
공사기간	2001년 12월 ~ 2002년 12월
설계담당	한중석, 유대균, 권미정, 심형준, 한형욱, 이학규, 유동현, 박지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시민 육성

우리들의 삶에는 인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그런 불안감은, 재난을 만났을 때 극대화되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접근은 예방이며,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은 안전한 서울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체험의 장이다.

### 교육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구성

능동로를 전면에 두고 어린이대공원정문 옆에 들어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대공원내 잔디공원에서 정문 주차장으로 부지가 변경되었다. 설계자의 설계진행에 있어서 기본설계안의 개념을 지켰고, 소방파출소의 신속과 변경된 대지에 적합한 설계가 우선시되었다.

우선 건물은 단순한 매스감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직육면체 박스형태의 매스로서 건물의 성격에 맞는 안정감을 부여

하였다. 건물 곳곳에 사용된 수평적 요소, 수평의 지면에서 올라오는 선들로서 안정감을 부여하였으며, 건축물 자체가 바로 「안전」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안전체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코어의 수직동선 외에도 각 층에서 데크와 발코니를 통해 지상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물성격에 부합되는 요소를 반영하였다.

조형적으로 단순한 매스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은, 실린더형의 Glass Hall로 단순한 실린더 형태가 아닌, 타원형태가 축을 달리하며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자칫 딱딱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 건물을 개방적이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메인홀은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며, 전시시설 관람 동선상에서 내외부를 무리없이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아트리움 공간이 가지는 취약점 - 공조와 쾌적성의 문제 -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었으며, 그해결은 바닥부분의 히팅, 지면부의 난방시스템, 고창부에 전동창 등



을 설치하고 천정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할 천장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메인홀의 남측면에 반개방적인 벽이 있어 메인홀로 직접 유입되는 직사광선을 줄이고, 능동로에서의 인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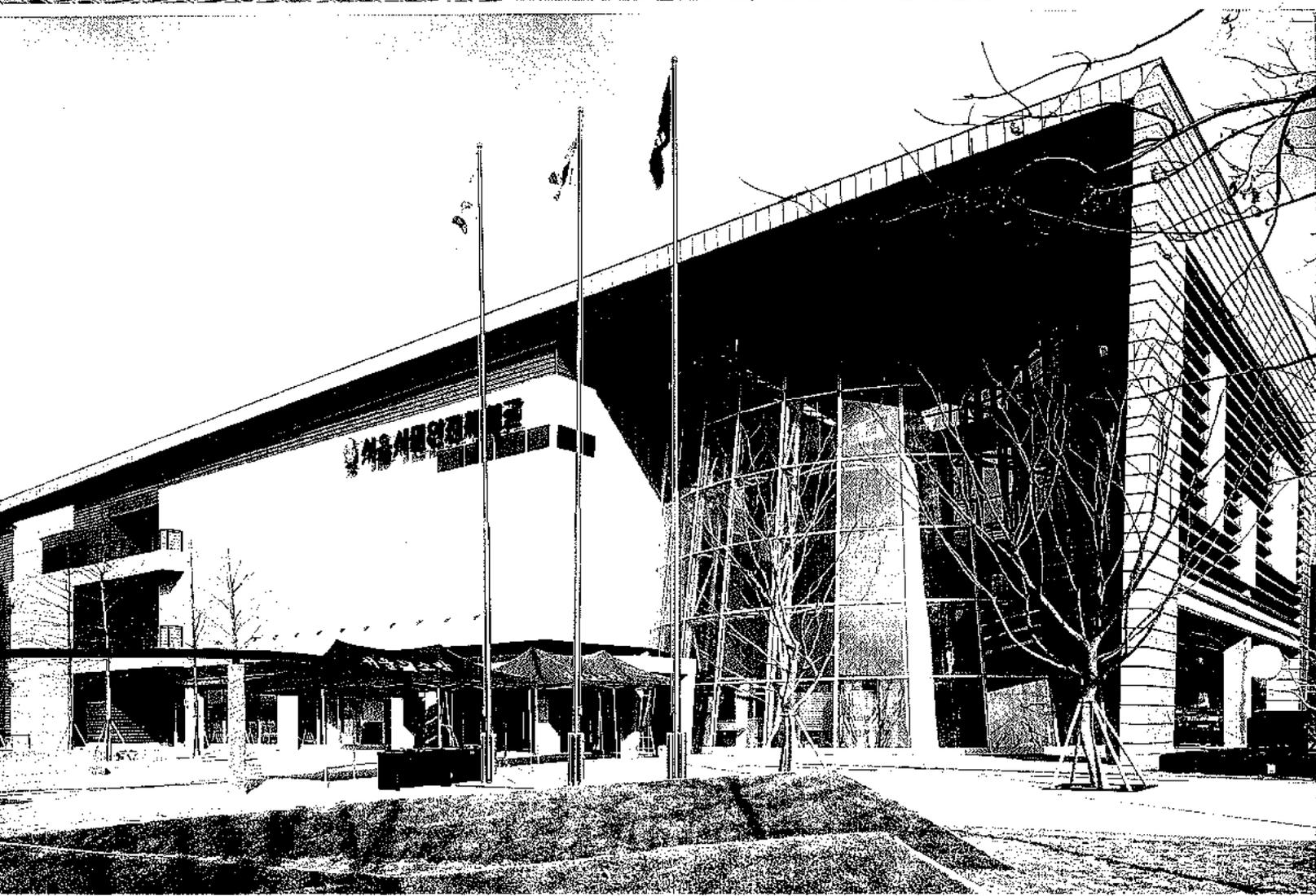
공간의 구성은 크게 Open공간과 Closed공간의 반복적 사용으로 긴장과 이완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결 Program이 원활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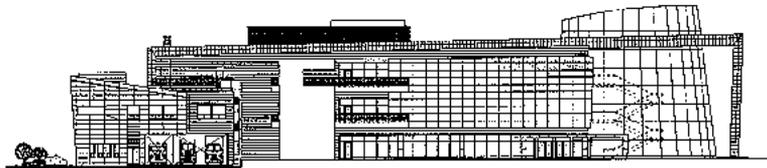
안내, 영상교육, 전시, 체험시설을 지상층(지상1, 2층)에 주로 배치하여 이용이 편리한 동선을 구성하여 체험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외부를 싸는 재료로는 첨단이미지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내식성이 강한 티타늄 아연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속이 가지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단순한 매스에 어울릴 수 있는 느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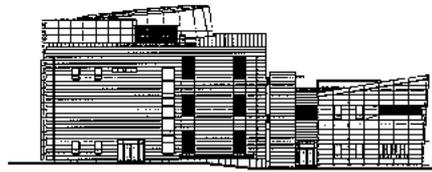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 들어서는 안전체험관이라는 특수성은 앞으로 들어설 체험관들의 선례로 남기에 한국적인 안전체험관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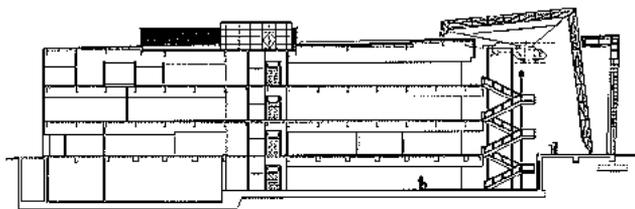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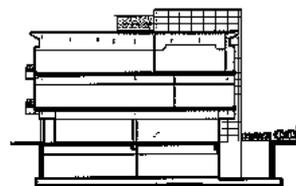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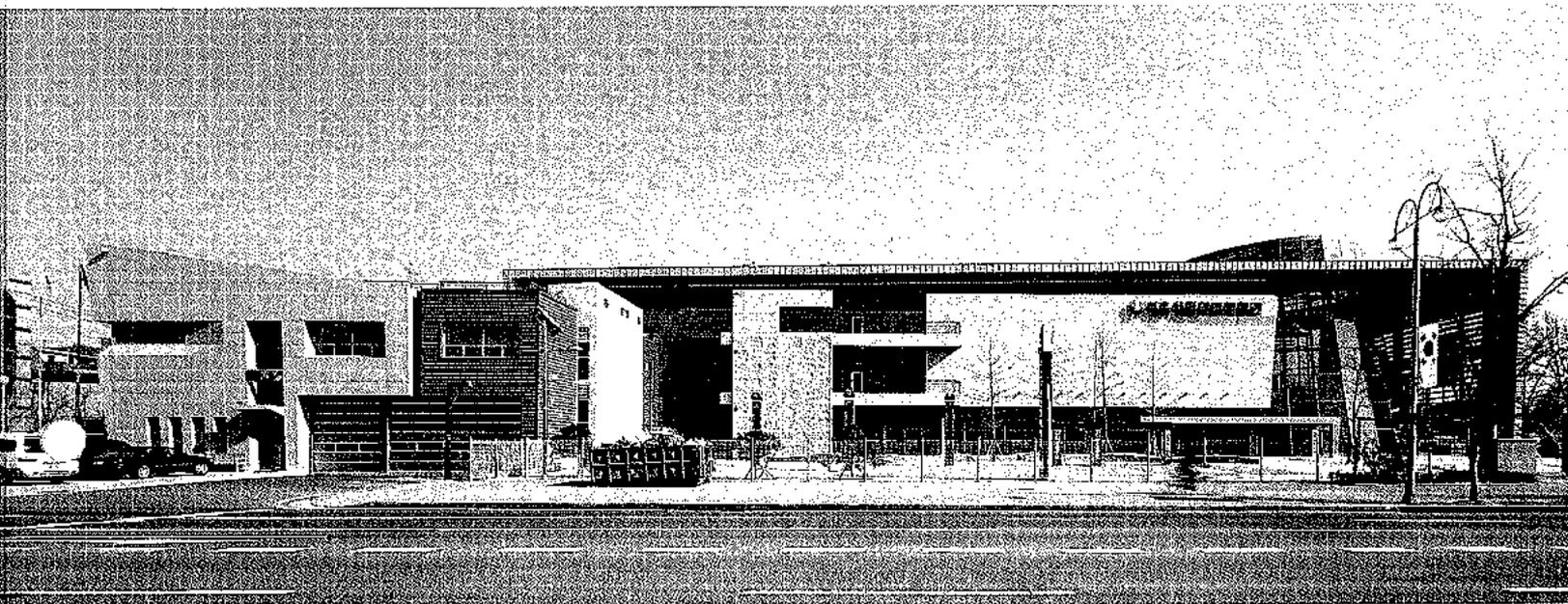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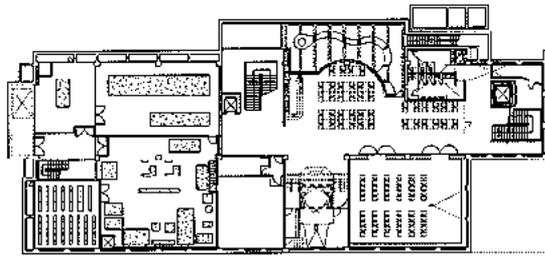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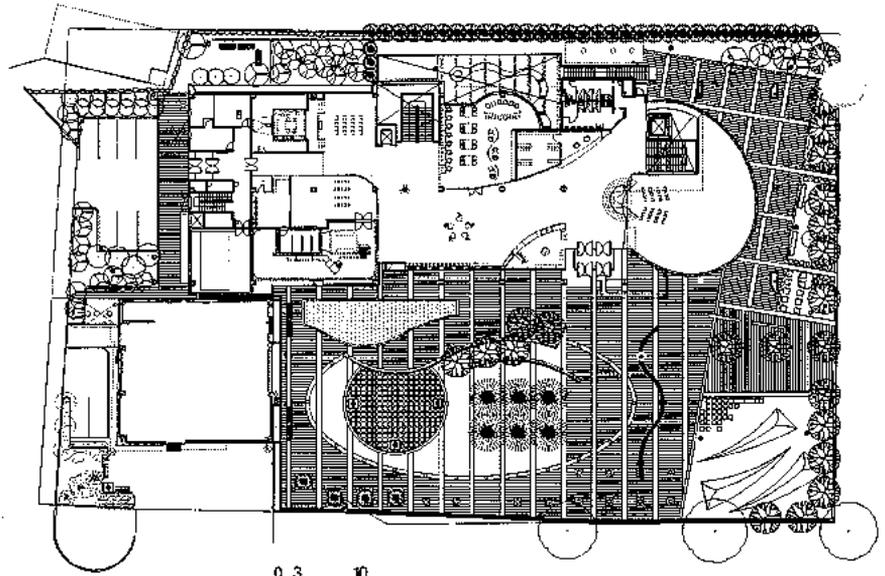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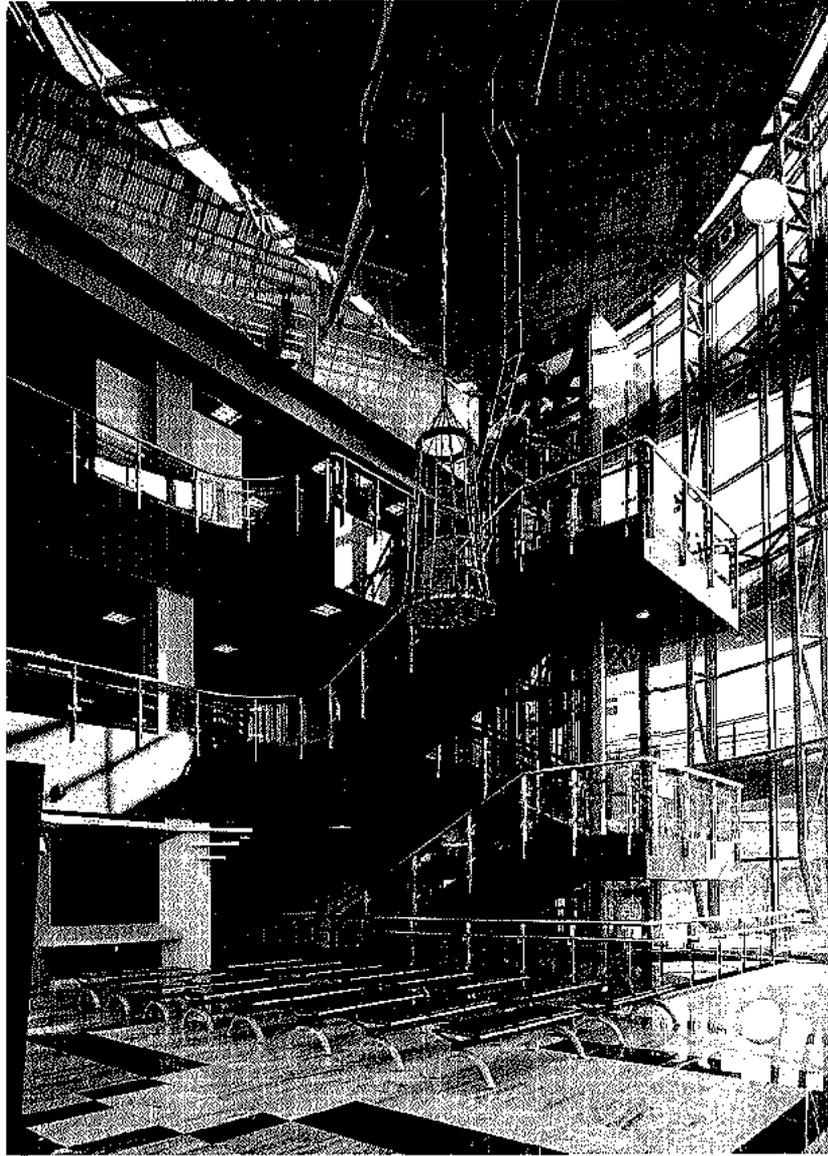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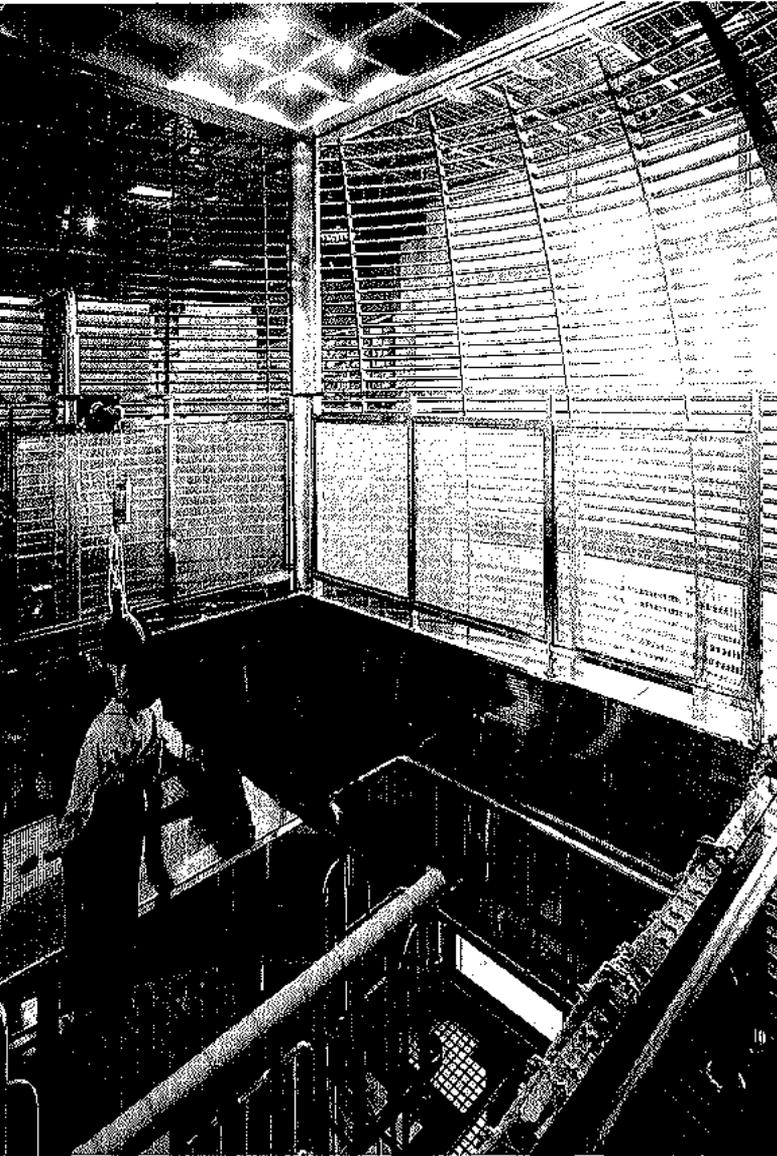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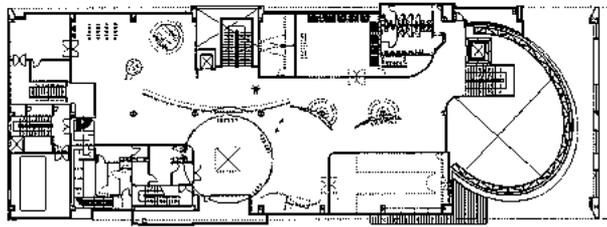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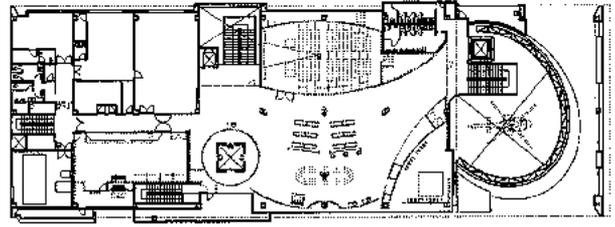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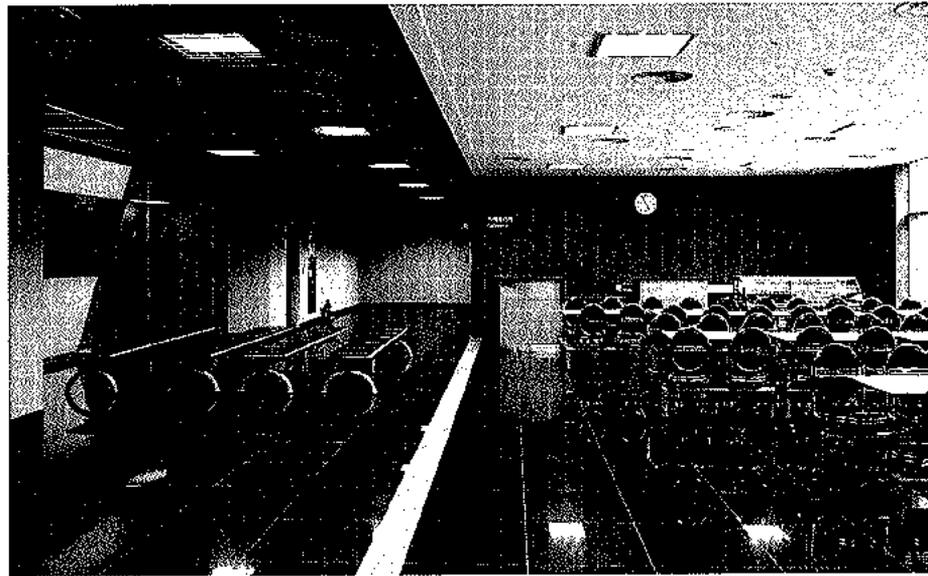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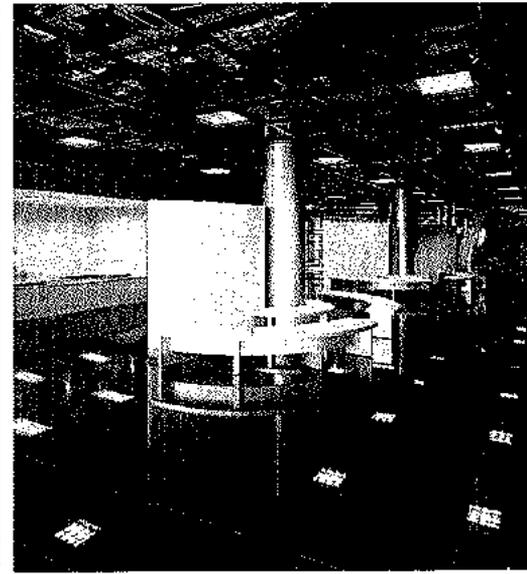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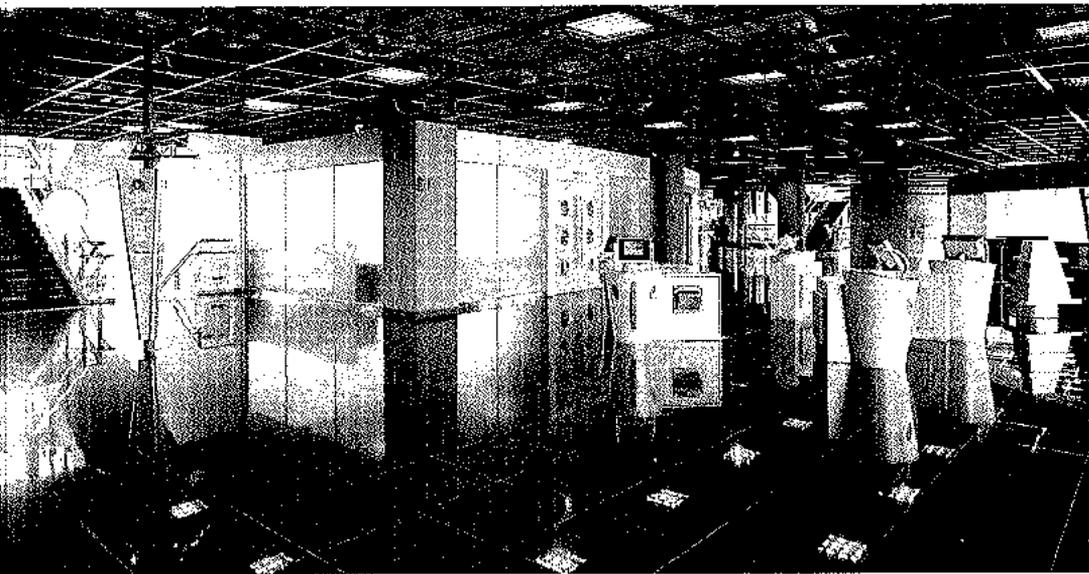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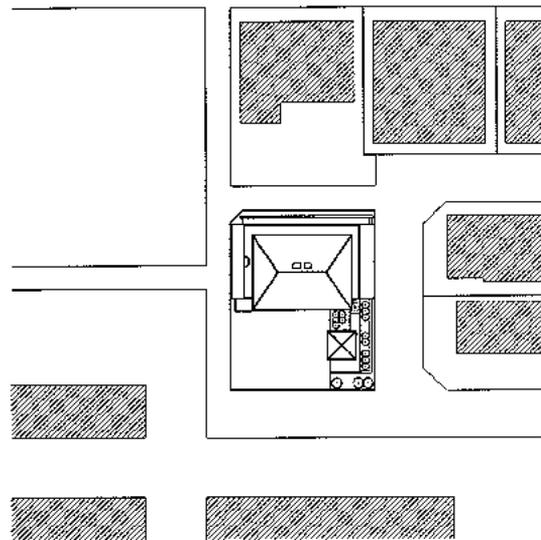
# 천주교 문정2동 성당

## Munjeong 2 Dong Catholic Church

김정신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허인원 / 시종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eong-Sin & Heo In-Won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33,34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721.4 m <sup>2</sup>
건축면적	412.7 m <sup>2</sup>
연면적	2,296.4 m <sup>2</sup>
건폐율	57.2 %
용적률	184.8 %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적벽돌, 16mm 복층유리
실시설계	시·종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남희식, 고미영, 김현수
시공	한울종합건설
설계기간	1999. 1~1999. 10.
시공기간	1999. 12~2002. 7.
사진	건축사무소 제공



배치도

2000년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음화의 요체는 작은 교회로의 분할과 소공동체의 활성화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큰 장애 요인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법규의 제약이다. 아파트촌의 신지 3000명으로 분가하여 5000명 목표로 건립된 문정2동 성당은 어쩌면 대도시 신설본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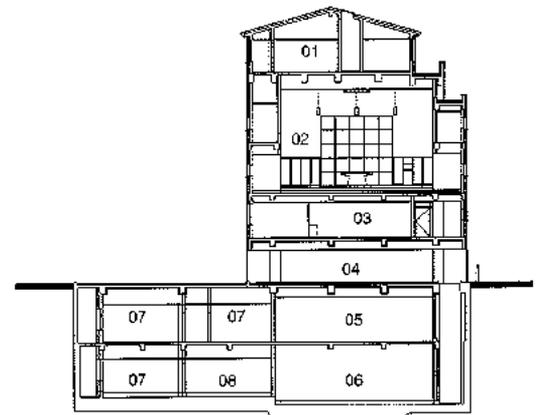
4면이 도로사선 제한을 받는 막다른 골목의 코너에 위치한 대지 218평이라는 협소한 땅에 700 여평의 건물면적을 확보하는데의 어려움은 주차장과 조경면적 확보, 높이제한 등이다. 그러나 다행히 한쪽면(서측)이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로 트여있어 여기에서부터 설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애초의 아이디어는 전례공간을 2층에 두고, 재단을 서쪽에 면하









- 01\_ 사제관
- 02\_ 대성당
- 03\_ 만남의 방/수녀원
- 04\_ 주차장
- 05\_ 다목적홀
- 06\_ 기계실
- 07\_ 교리실
- 08\_ 출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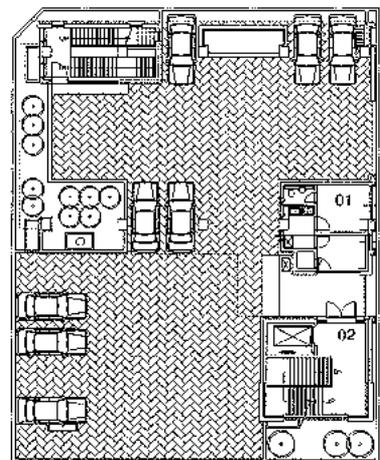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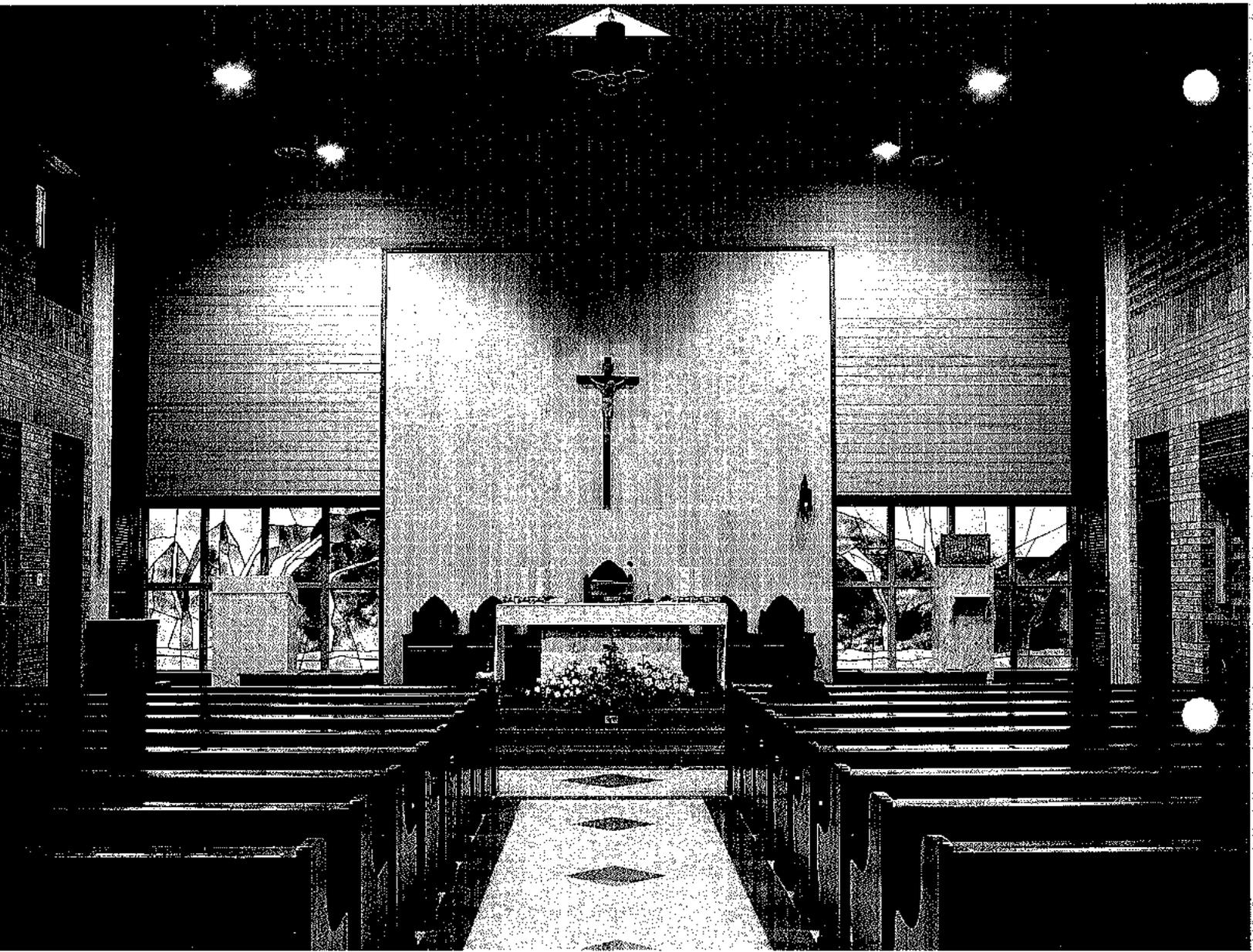
게 하여 제단의 뒷벽을 유리로 함으로써 공원의 조경과 하늘의 자연을 그대로 실내로 끌어드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찬미와 함께 자연과 합일하는 체험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1층은 피로티로 개방하여 마당을 확장하고,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 또 하나의 소공동체 마당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단벽 창, 옥상마당 등은 아쉽지만 실용과 관리상의 문제, 특히 상주하는 사제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배치는 1층 피로티(주차장)와 옥상조경으로 법규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T자형 평면으로 본체와 코어를 배치하였다. 사무실, 면담실, 만남의 방 등을 2층에, 전례공간인 성당을 3,4층에 배열하고, 사제관을

최상층인 5층에 두었다. 그리고 다목적 강당, 각종 교리실, 회합실 등은 지하1,2층에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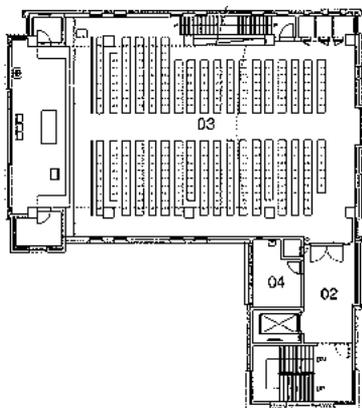
최대한의 건폐율을 채우면서도 시각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도로와 인접한 근린공원의 조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진부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종탑과 적벽들의 채움은 정통성과 함께 신자들의 의식과 타협한, 단순 명료한 형태와 장식의 절제로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외관을 추구하였다. 애초 의도했던 옥상공원의 활용과 제단 뒷벽의 유리벽 처리에 의한 자연과의 관계 맺기가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층 마당의 개방과 열린 공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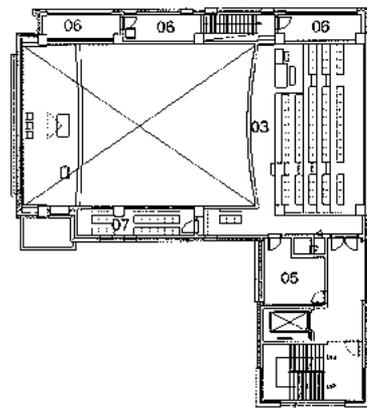
- 01\_ 관리실
- 02\_ 혼
- 03\_ 대성당
- 04\_ 제의실
- 05\_ 설가대준비실
- 06\_ 창고
- 07\_ 유이실

0 1 3 6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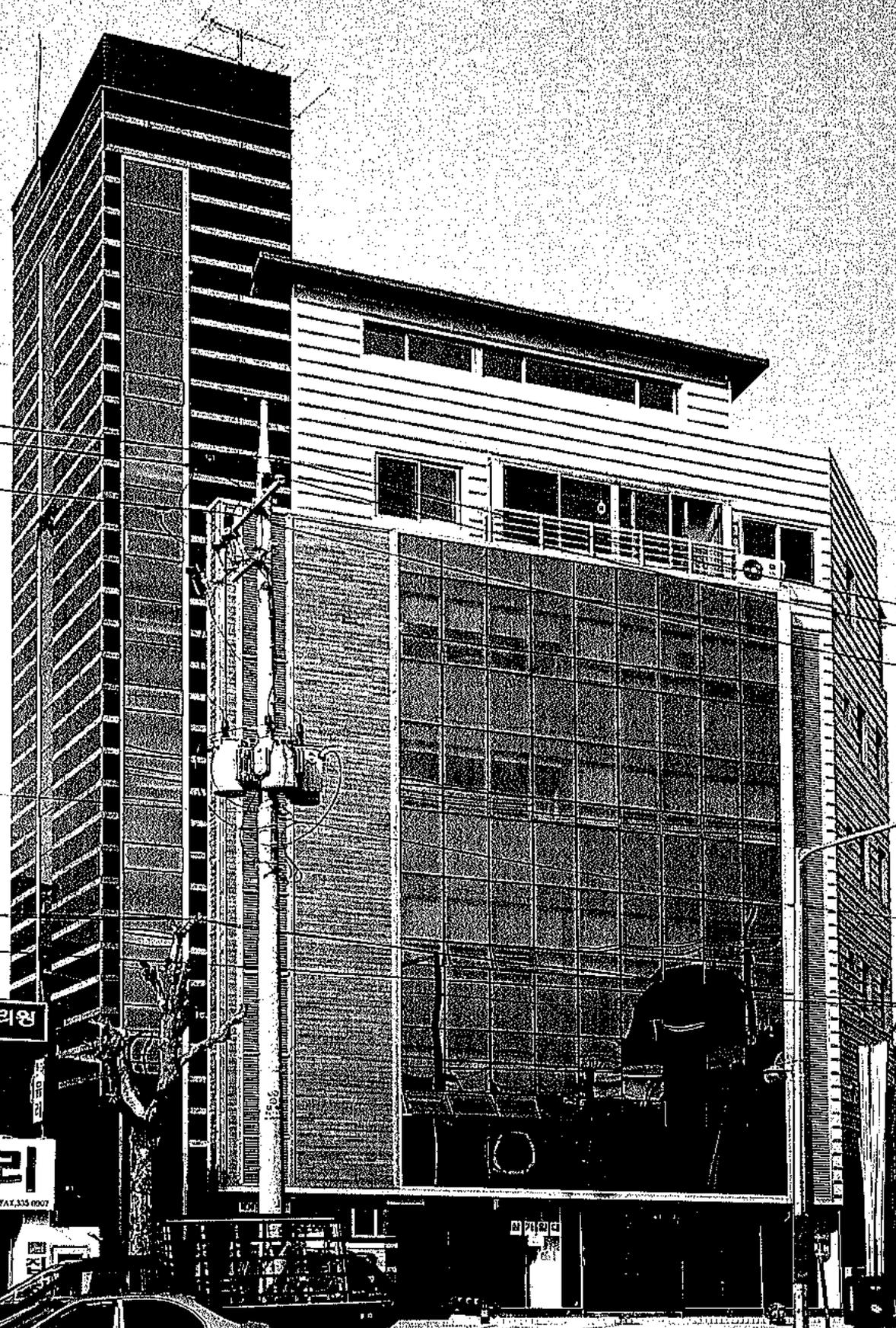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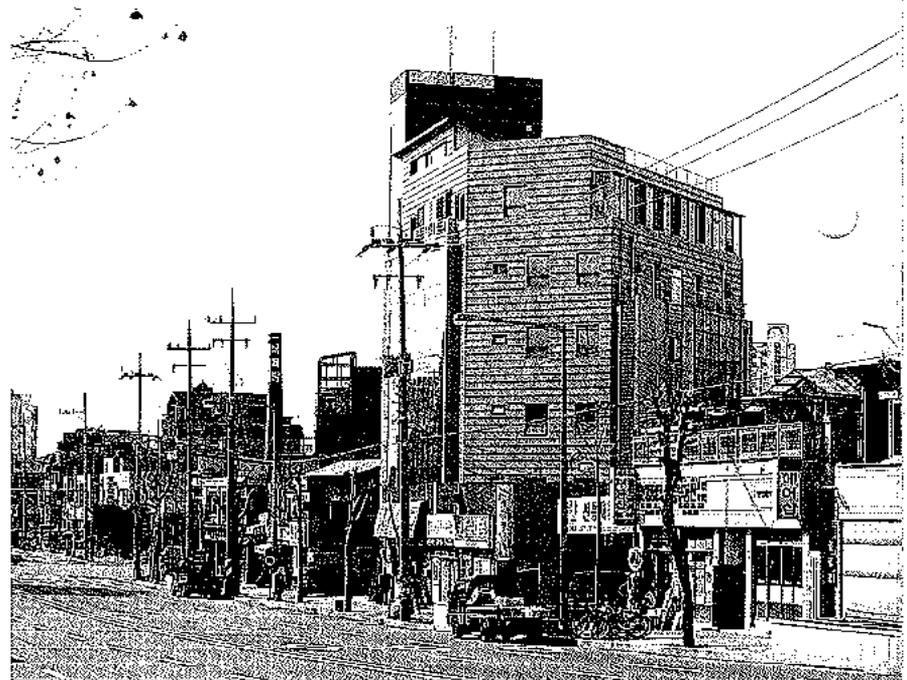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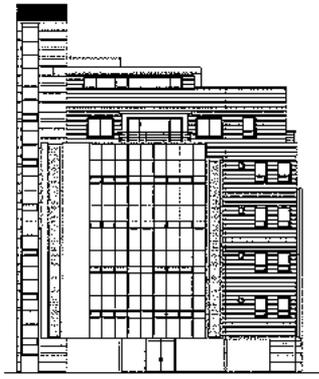
꿈동이 멀티소리원  
330-1026

현대유리  
관기울, 심재환석유비, T.333-0565 FAX.333-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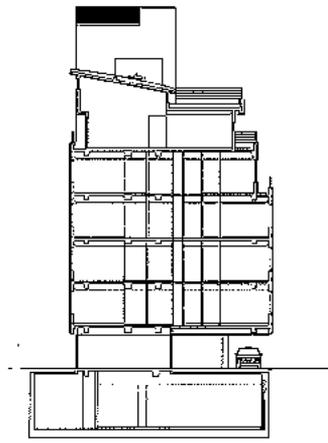
대유리  
한국유리  
한국유리  
한국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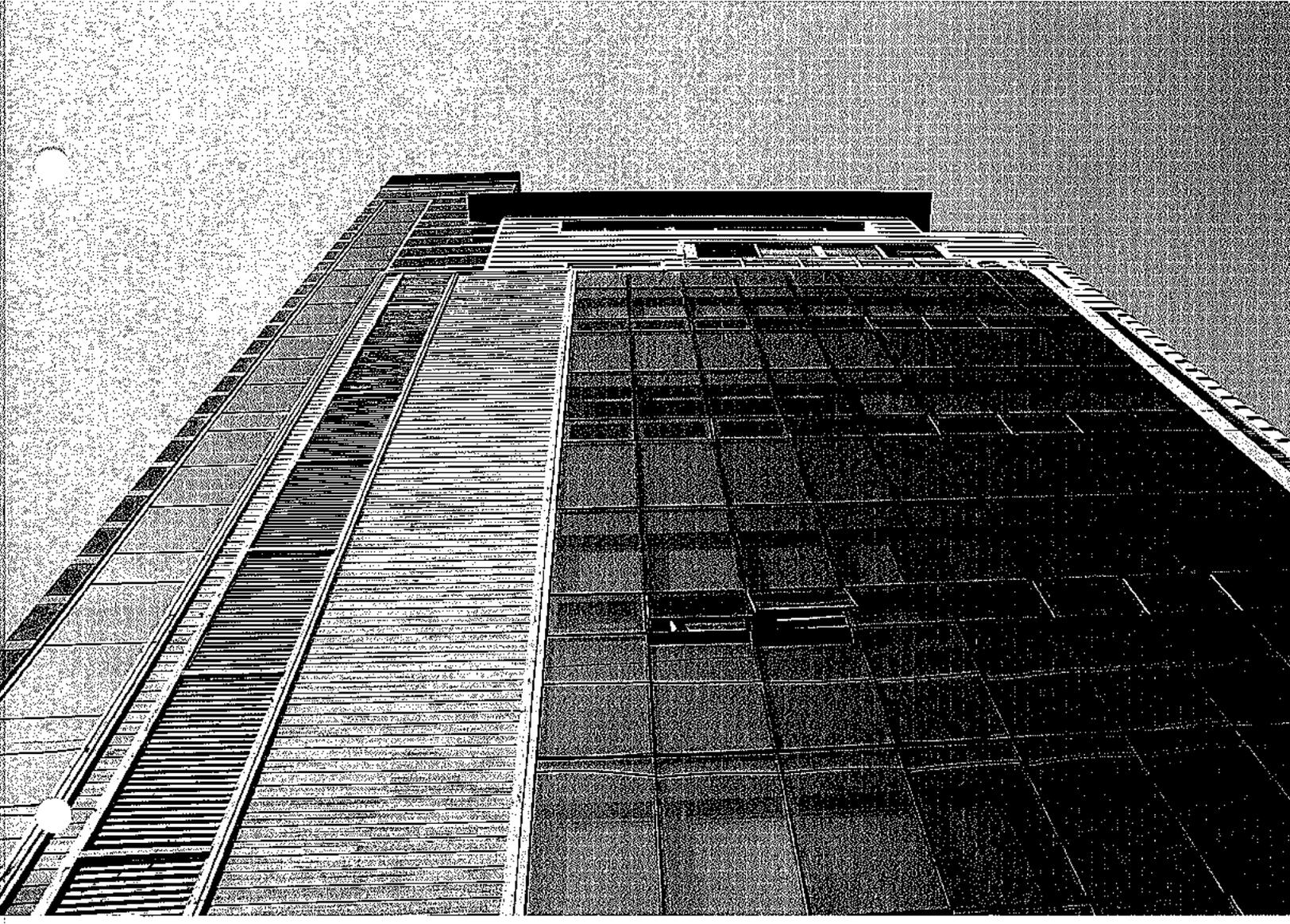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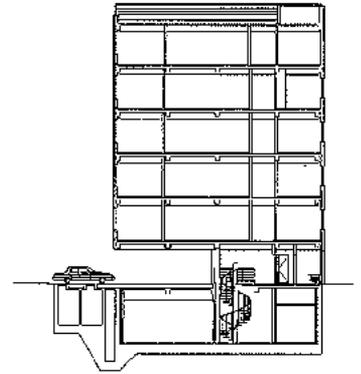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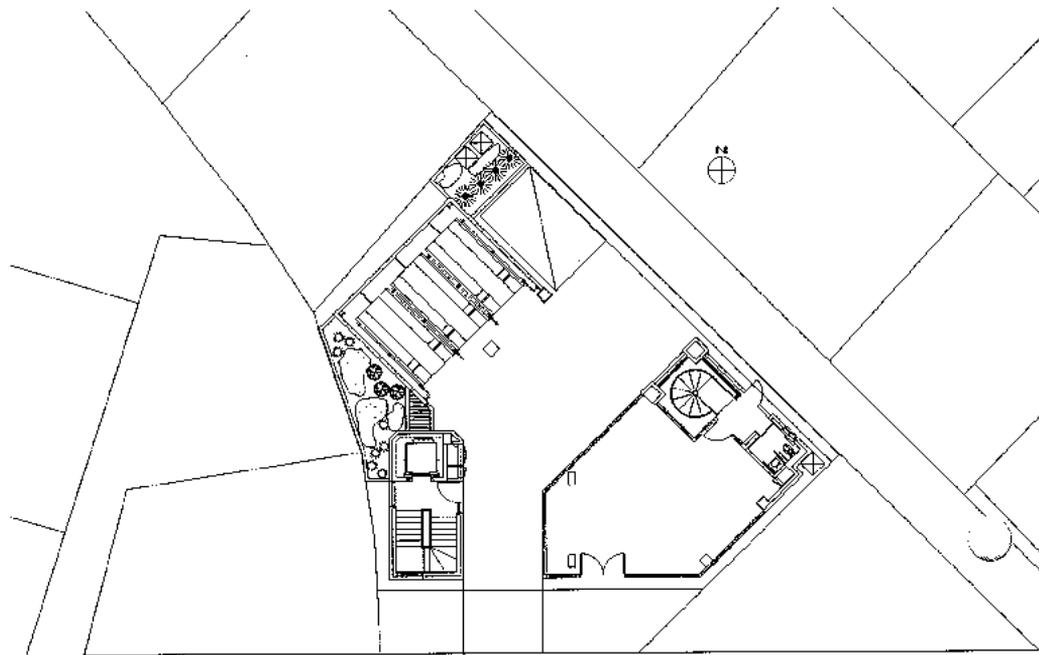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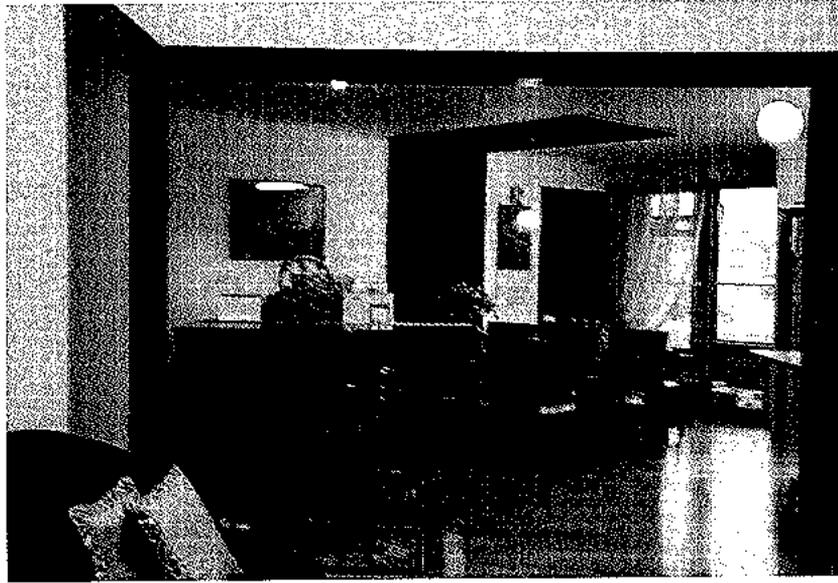


외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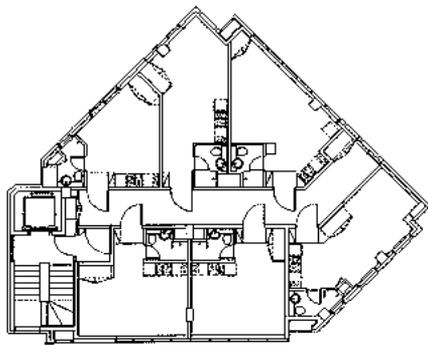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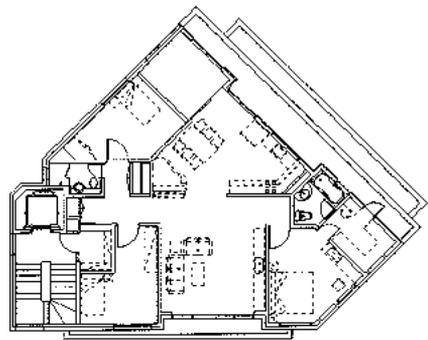


0 1 3 6

1층 평면도



2~4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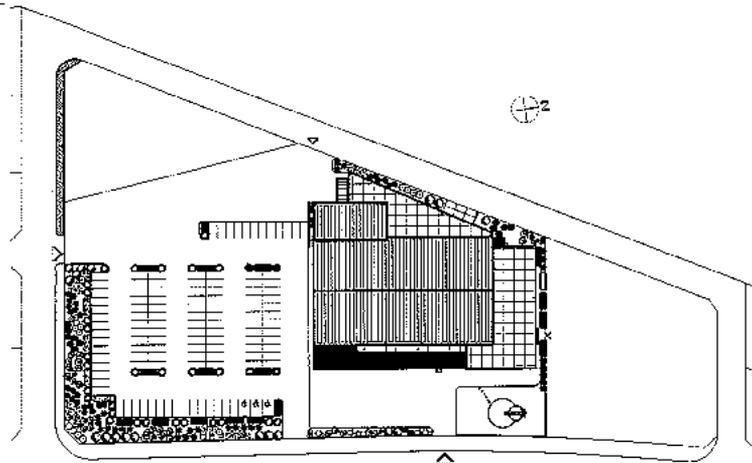
# 웅상농협 파머스마켓

## Woongsang Nonghyup Farmers Market

박현철 / (주)건축사사무소 라인애드  
 Designed by Park Hyeon-Cheol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양산시 양산을 삼호리 삼호지구
지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2지구
주요용도	2종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면적	9,769.00 m <sup>2</sup>
연면적	2,662.30 m <sup>2</sup>
건폐율	2,523.50 m <sup>2</sup>
용적률	27.25 %
규모	25.83 %
구조	지상 2층
외부마감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외벽 - THK50 폴리메탈 지붕 - THK75 샌드위치 패널
주차대수	창호 - THK18 컬러복층유리 117대 (일반: 114대, 장애인: 3대)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003 농협중앙회 준공부문 우수상 수상)



배치도

### 계획의 목표

이 프로젝트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성격이 다른 지역생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서, 생산농업인이 자가생산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거나(일부코너설치), 농협에 위탁 판매하는 상설 직거래 시설로서 지역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반조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 유통센터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배치계획

대지의 세면이 도로와 한면이 어린이공원으로 인접된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면 35m도로(7번국도)에서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호등설치 및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였고, 좌측 12m 도로에서 이용객의 차량동선을, 배면 8m도로에 물품반입 차량동선을 설치하셔서 동선의 완전분리를 기준으로 계획하였다. 건물형태를 대지조건에 맞추어 계획함으로써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지상주차장을 최대화 하였다.

인접한 어린이공원을 Open Space로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주보행자동선-휴게공간-어린이공원을 연결 이용자 및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 하였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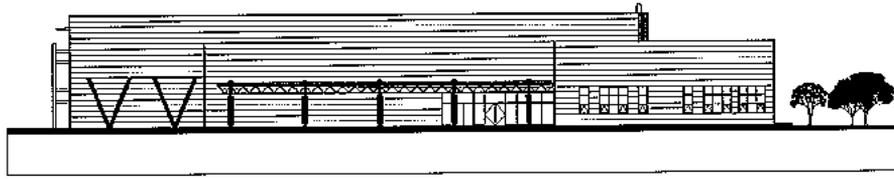
고객,물류,관리,서비스 동선을 분리하여 상호 원활한 기능을 발휘토록 하였다.

농협 파머스마켓의 기능상 생산농업인 직영코너 및 농산물잔류 농약검사실을 판매장내에 설치 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시설외에 부대시설(미용원,스낵코너,신용점포)을 설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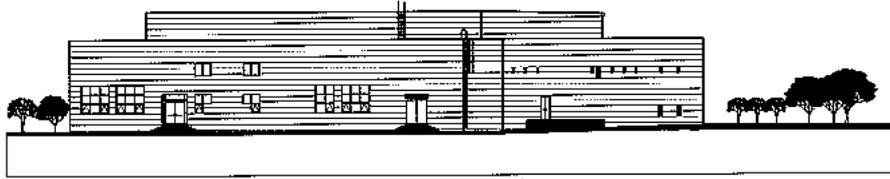
창고시설은 배면 물품 반입구에서 신속히 입고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 하여 배치 하였다.

판매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층고를 높게하고 공간성과 시야 확보를 위하여 매장내 기둥(29.7mX29.7m)이 없는 평면으로 계획하였다.





정면도



우측면도





### 입면계획

판매장 지붕은 경사로 하고 부대시설 및 기타부분은 평슬라브로 처리하였으며, 외벽과 지붕은 각각 폴리메탈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판매시설 부분은 매장의 조명시설을 위하여 무창으로 계획하였다.

단층건물의 수평적 지루함을 비움(피로티)과 채움(캐노피)으로 처리하였으며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Space Frame 캐노피와 V자형 철골의 노출로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고 조형성의 위해 구조적인면을 강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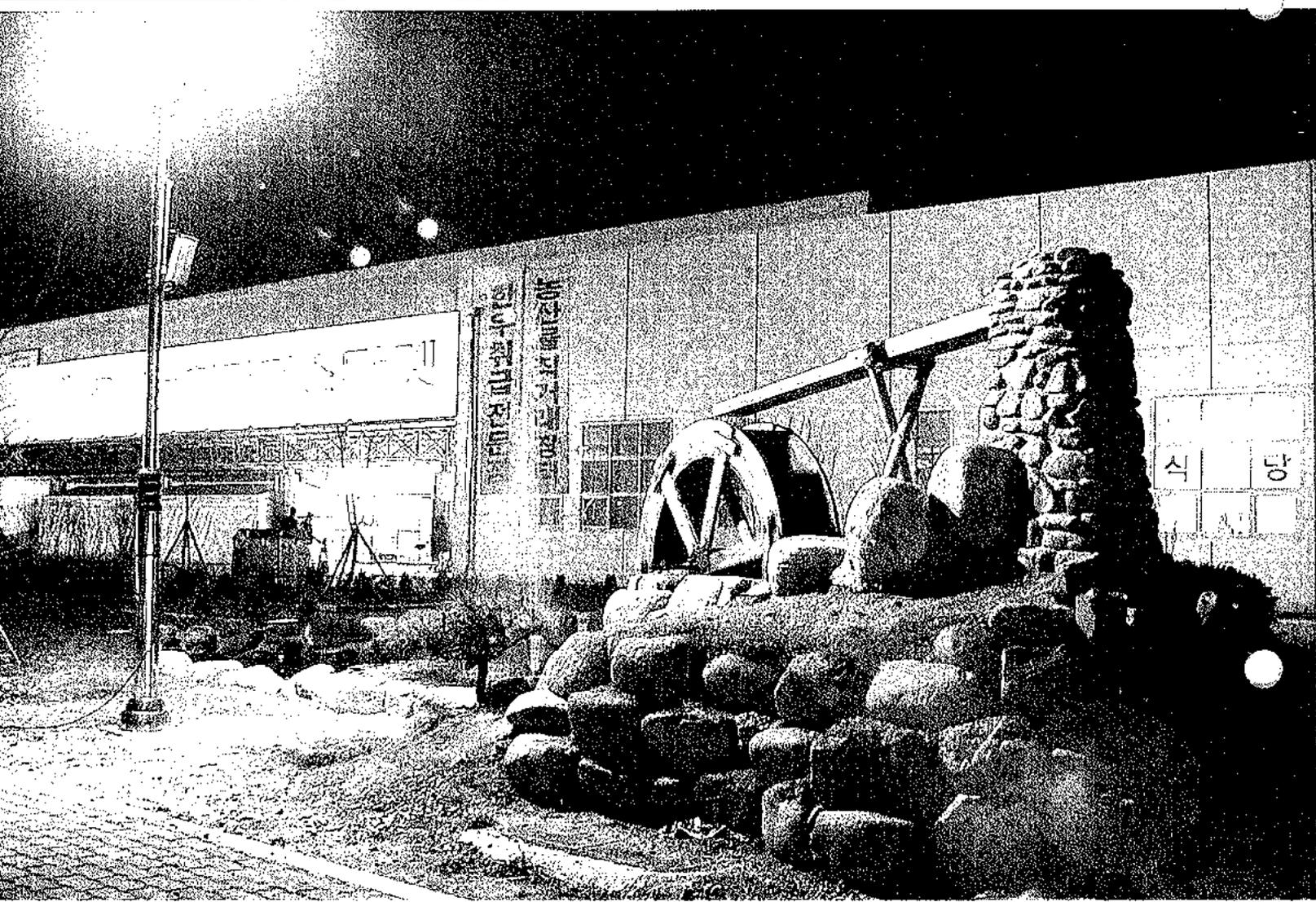
### 설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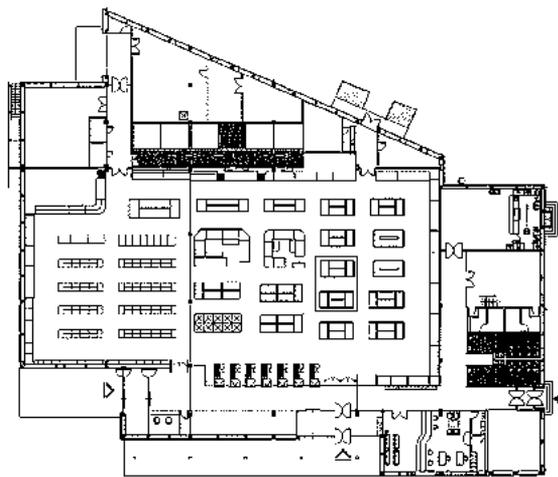
냉,난방에 있어 초기투자 및 관리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온수 유니트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농,수,축산물의 처리 및 주방의 냄새가 실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하고 배기는 옥상배출로 계획하였다.

용도별 운용이 용이하도록 기계 및 전기 제어시설은 개별조절기를 설치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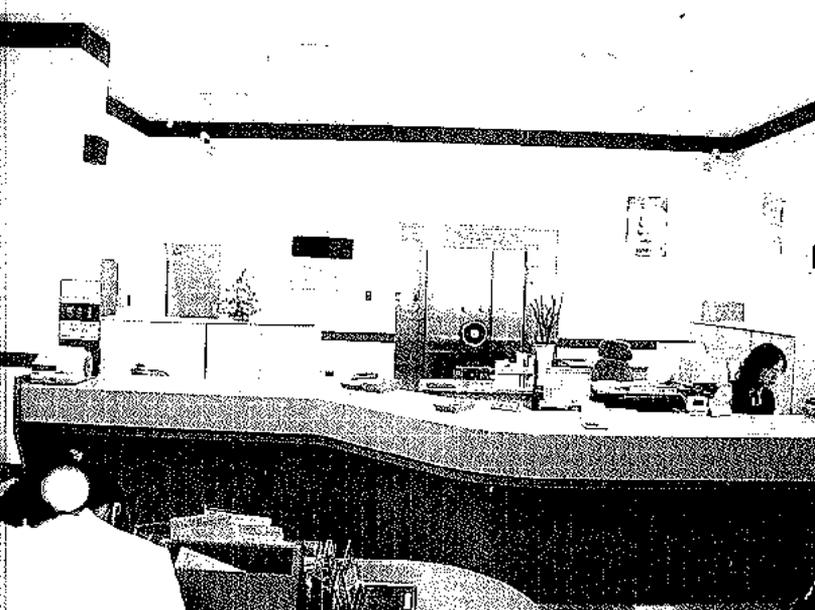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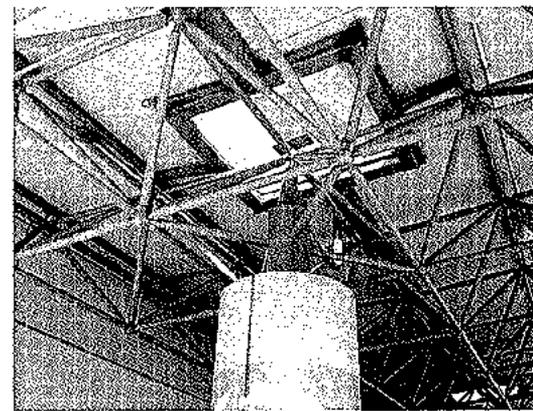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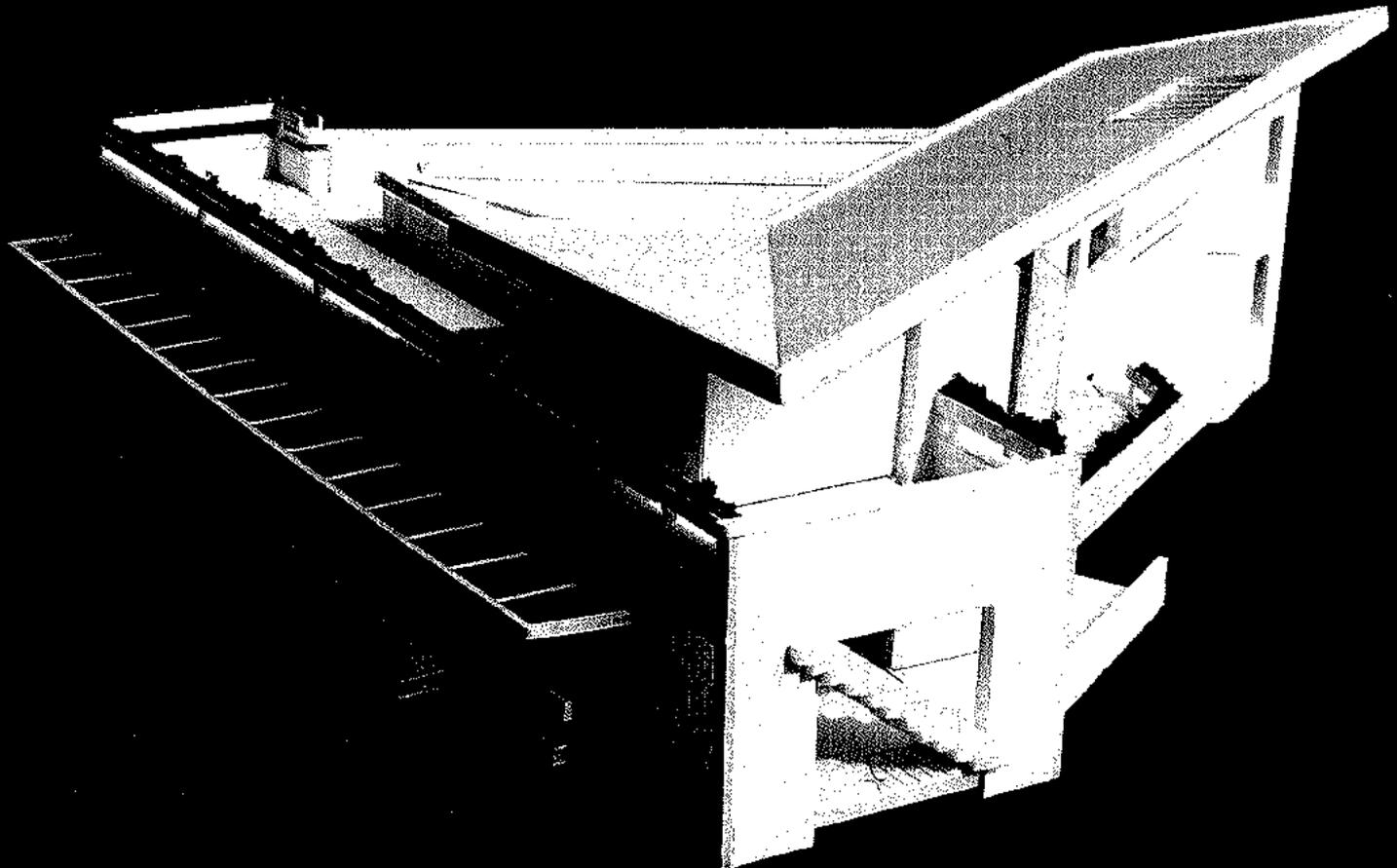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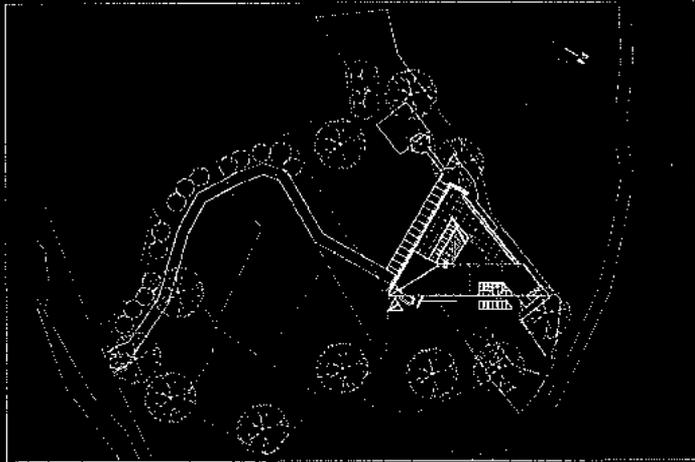


# 화성주택 Hwaseong Residence

이관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Lee Kwan-Jick

## 건축개요

대지우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78번지
지역지구	준농림, 농림지역
대지면적	1,765.00㎡
건축면적	328.21㎡
연면적	319.26㎡
건폐율	18.70%
용적률	18.19%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부목구조)
외부 마감	청선대리석, 목재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 풍경에서 장소로

건축은 의도된 개념에서 시작되든, 대지 조건 혹은 기능적 착상에서 시작 되든 건축주를 위한 작업일 것이다. 특히 주택처럼 건축주가 직접 소유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 구체성이 더욱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 소유는 다시 바뀔 수 있으며 사용자도 달라진다. 계획 단계의 많은 조건들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다. 그 조건을 가지고 착상하지만 남게 되는 건축은 여러 가지 중요한 건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축가는 설계의 기회를 통하여 공간과 형태 그리고 기능이라는 건축에서 다루어지는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현실 안에서 펼쳐보인다. 건축은 공간과 형태와 기능해석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건물은 실재물로서 주변과 함께 풍경이었던 곳을 새로운 의미의 장소로 바꾸어 놓는다.

대지는 개발 붐 아래 농지가 조금씩 대지화 되고 주택이 들어서는 시골 풍의 마을 가운데에 있다. 대지가 산을 배경으로 있지 않고 사방이 트인 곳에 있어서 배치 상에 나름의 설정이 필요했다. 향과 조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대지의 형태가 건물의 배치와 평면의 모양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거실 면이 정남 방향을 향하고 평면은 대지의 경계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강한 삼각형의 모양을 이룬다. 삼각형의 가운데는 작은 중정이 설정되고 식당과 복도가 그 작은 삼각형의 중정을 싸고 있다. 중정의 남은 한쪽은 피로티로 만들어져 2층이 상부에 지나간다. 시선의 열림과 채광량을 위하여 중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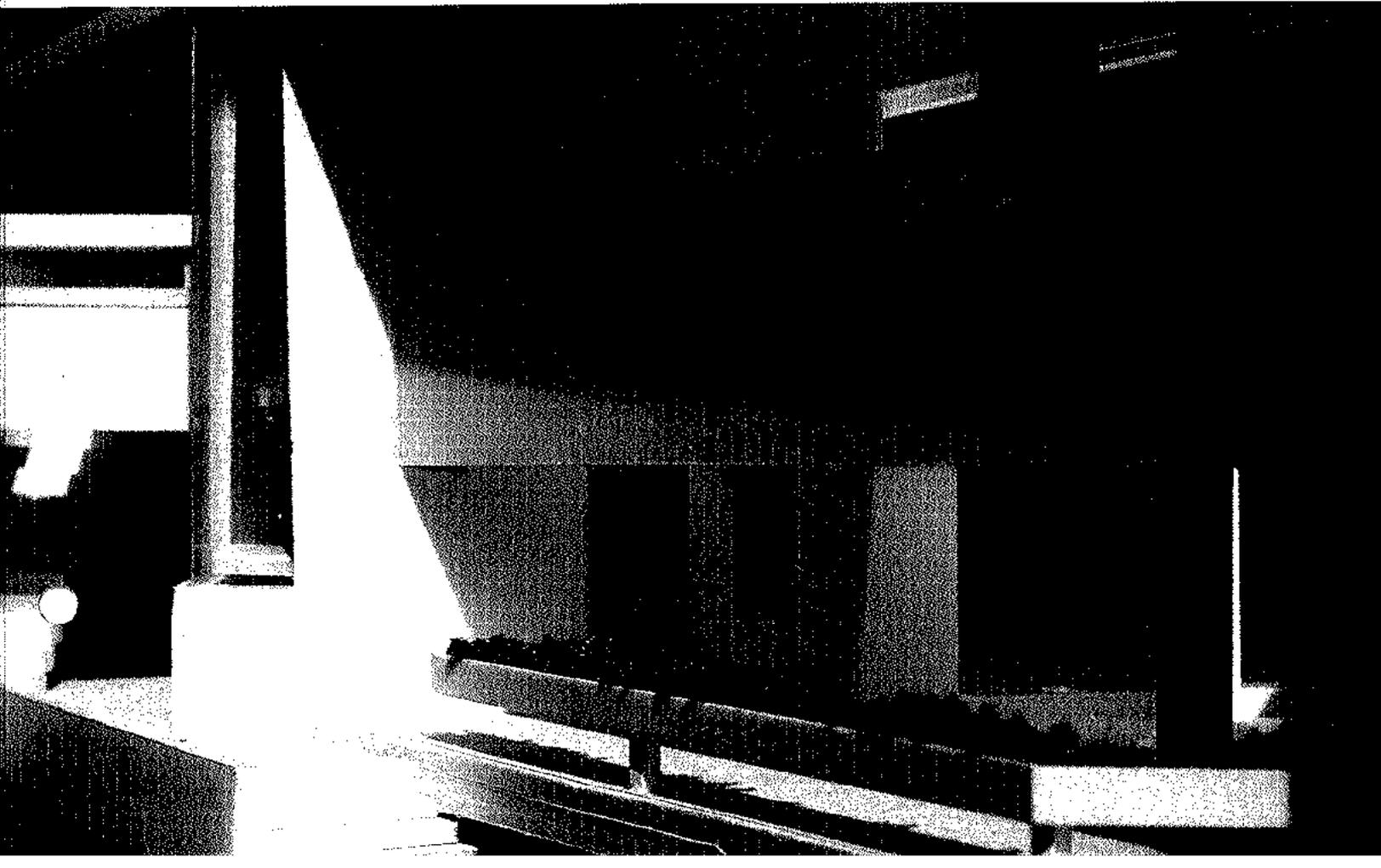
한쪽을 탁여 놓았다. 친구들의 방문시 같이 모이는 작은 방을 북쪽 구성에 만들고 노래방과 홈백을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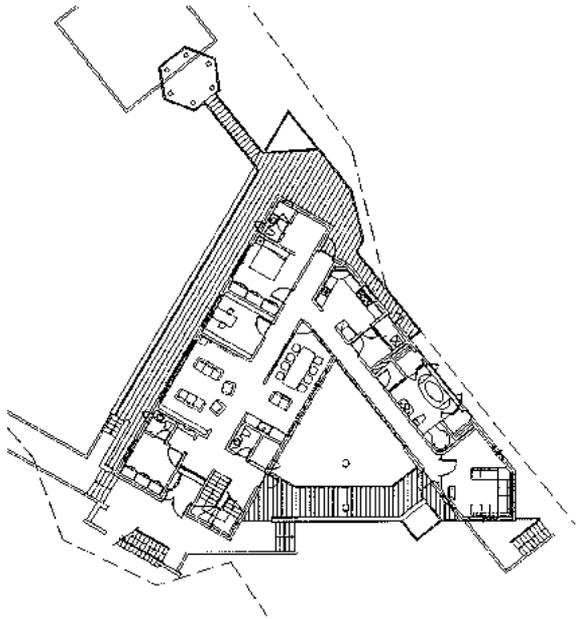
2층은 자녀방이 2개가 있고 연결하는 복도는 피로티의 상부가 되며 작은 거실과 주방이 있다.

지붕은 1층의 상부는 평지붕으로 하여 운동이나 건조장, 추후에 온실 등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생각했다. 삼각형의 한면만 있는 2층의 지붕은 경쾌감이 있는 한쪽 물매의 지붕으로 만들고 긴 캔틸레버로 여유있는 지붕이 되도록 하였다.

공법과 재료는 토속적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형 또한 자연에 순응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평적인 형태와 가벼운 지붕의 모습이 전형적인 농촌의 주택은 아니지만 마을에 새로운 시각적 활력을 줄 것이고, 새로 꾸미는 정원과 함께 민첩하고 쇠락한 농촌의 풍경을 새로운 건축적 도시적 이야기의 장소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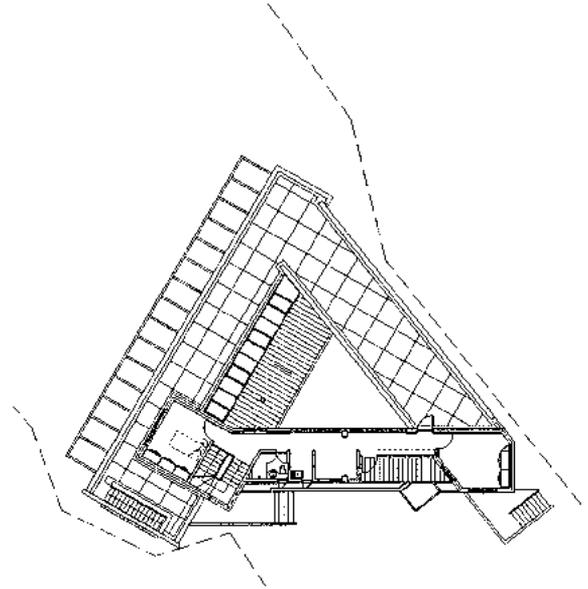
딱딱함과 부드러움, 예리함과 여유,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좋은 공간도 있는 건물, 작기도 호모하고 주인도 살기 좋은 그런 집을 그리고 싶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도 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작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일대일의 축척으로 만들어졌을 때 느낌을 가능하기도 만만치 않다. 매번 보는 재료도 어떤 장소에 놓이면 다른 목소리를 갖는다. 그것이 운이 아닌가 싶다. 이번 주택에 그런 운을 한번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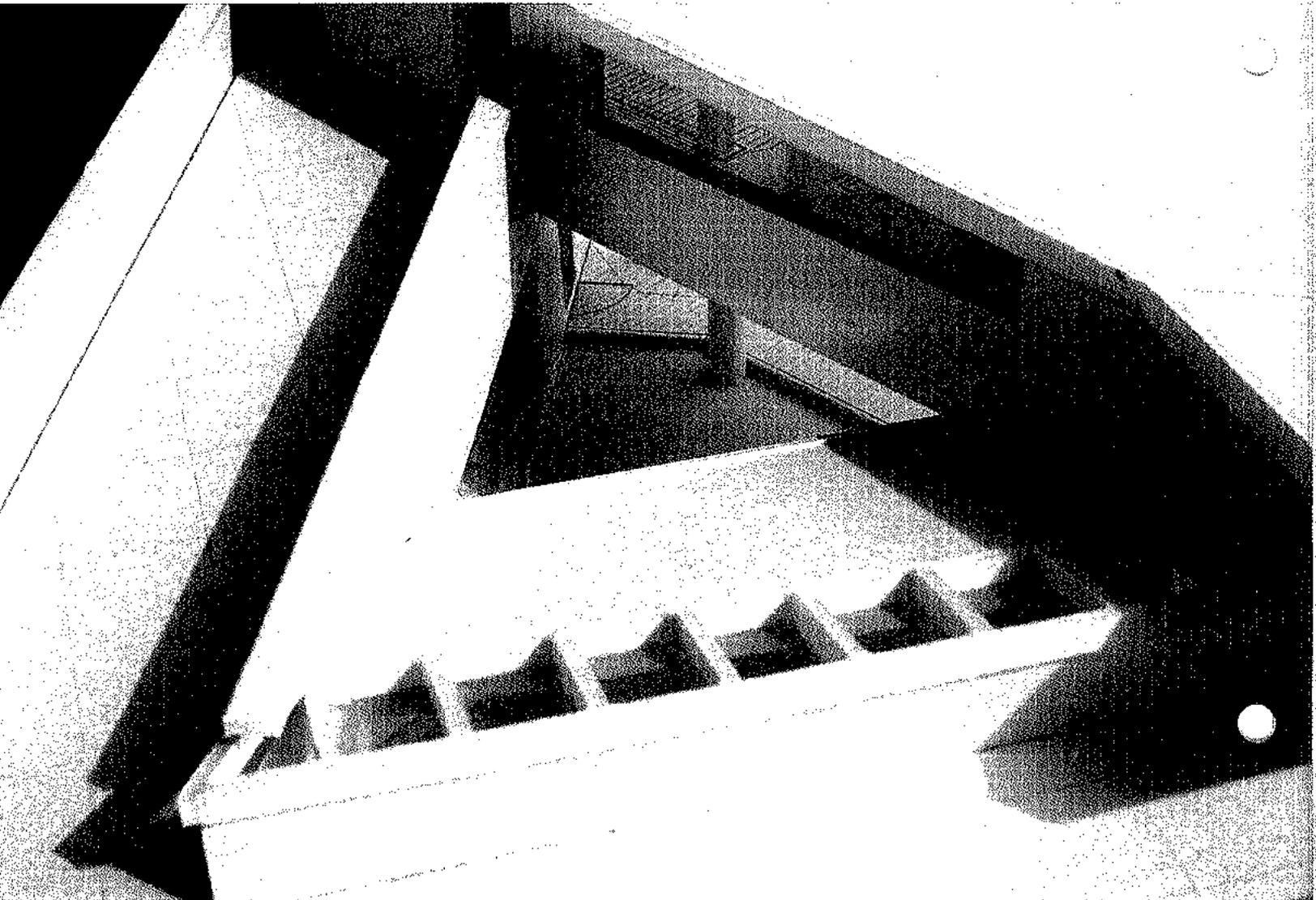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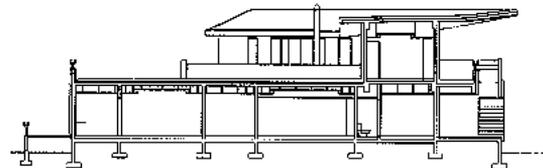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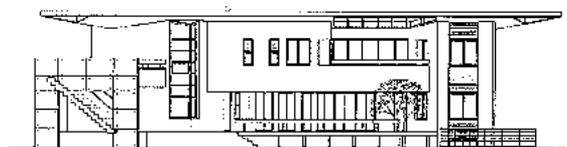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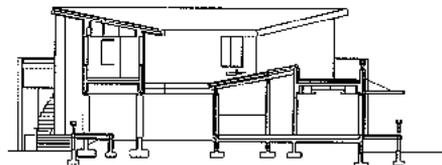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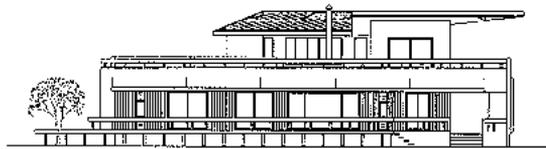
0 1 3 6M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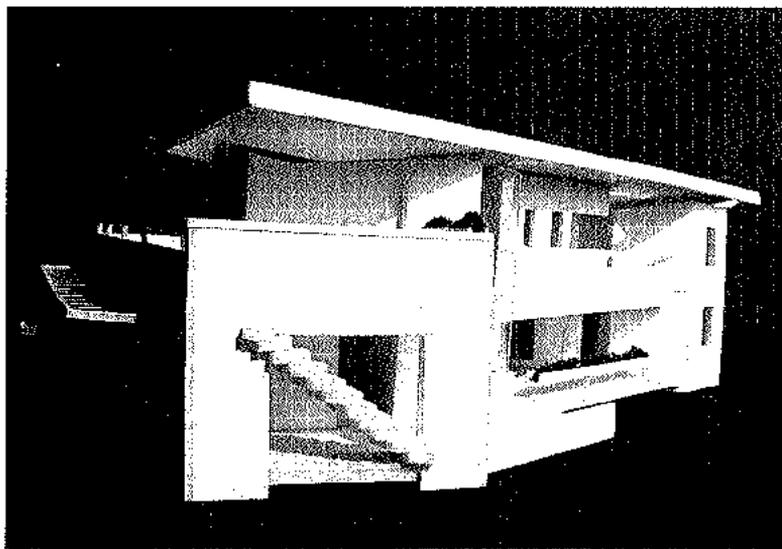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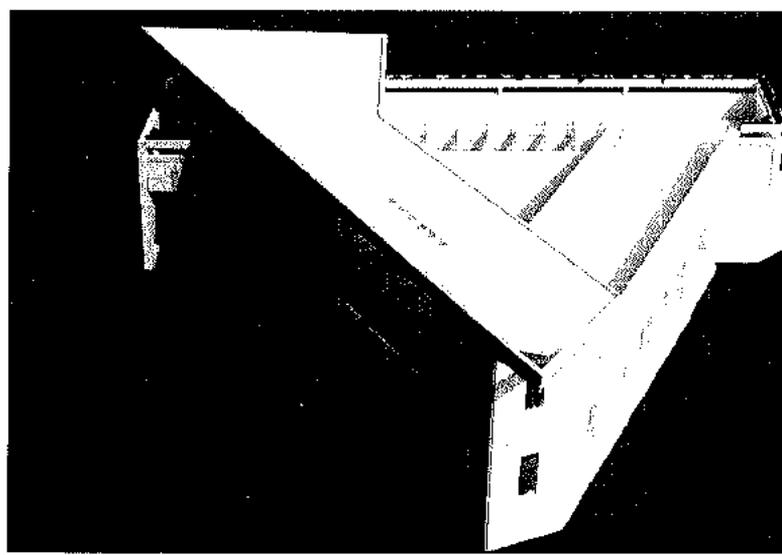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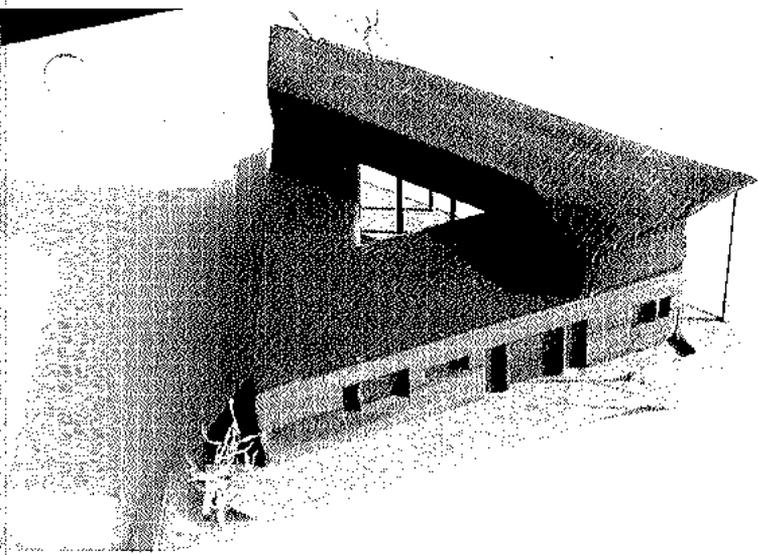




0 1 3 6M

입면도

단면도



## 연구소 2제 Research Center Two Project

김희옥/ (주)에이텍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Ok

2002년 작년에 우리가 설계한 2개의 연구소가 완공되었다. 연구소라는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는 보람도 있지만 이 두개는 연구 소리는 같은 용도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개의 차이점을 갖고 있어 이를 정리해보는 것이 다음 유사한 설계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소와 미래산업 첨단연구소는 설계를 시작 한 시점은 2년정도 차이가 있다. 완공은 미래산업 첨단연구소가 2002년 5월이고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소는 그해 10월에 완공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설계한 미래연구소가 먼저 완공됨으로써 도로기술연구소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미래연구소에서 발전된 설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공사진행의 차이로 생각만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도로기술연구소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1998년 봄 외환위기 시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으로 도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만주 등 우리나라로부터 연결된 도로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아래 현상이 추진 되었다. 우리회사도 역시 어려운 위기 속에서 모든 인원이 합심하여 현상에 몰두하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계획의 시작은 현상이라는 특수성으로 모든 심사위원이 만족될 수 있고 거기에 건축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양한 연구실의



기능적인 배치와 이 연구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당시는 실험적인 건물외피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초 에너지 절약적인 설비 시스템과 이중외피를 도입하였다. 이중외피는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던 시스템으로 외벽에 한 번 더 외피를 만들어 동 하 절기의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에너지 절약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 건축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중의 피막으로 면의 중첩성과 여기에 투명유리의 중첩은 안쪽면의 실루엣으로 입면의 풍부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중외피외에도 쿨루프와 태양열에너지이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많은 고려가 있었으나 쿨루프는 고도의 공사비로 삭제되었다.

배치는 마스터플랜이 주어졌지만 에너지절약에 유리한 남쪽배치를 기본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소의 기능적인 계획과 내부의 아트리움으로 계획이 시작되었다. 3베일로 중앙을 코아로, 양쪽을 연구실로 하며 장 스팬을 요구하는 강당을 가운데 존에 놓아 구조를 해결하였다.

아트리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계단을 이용하던 이동하는 연구원들에게 언제나 만나는 좋은 공간이다. 건물 좌우 양 끝단은 옥 내외 휴게공간을 두어 연구원들의 머리를 쉴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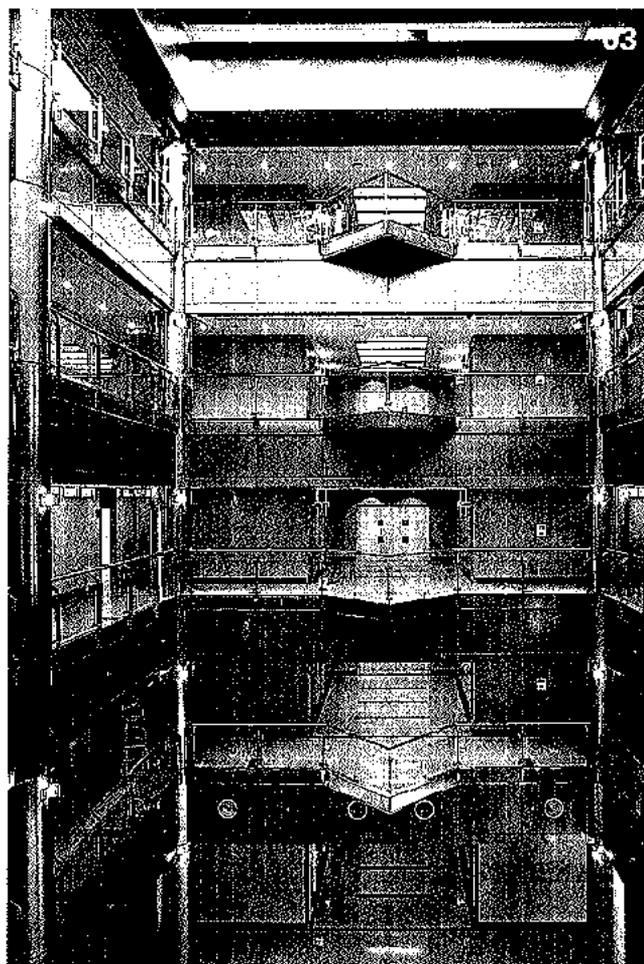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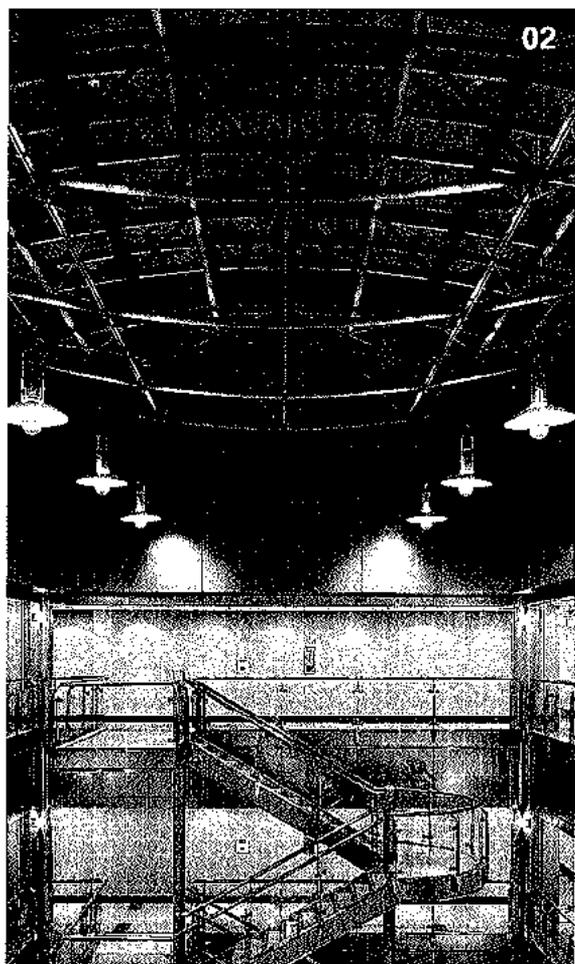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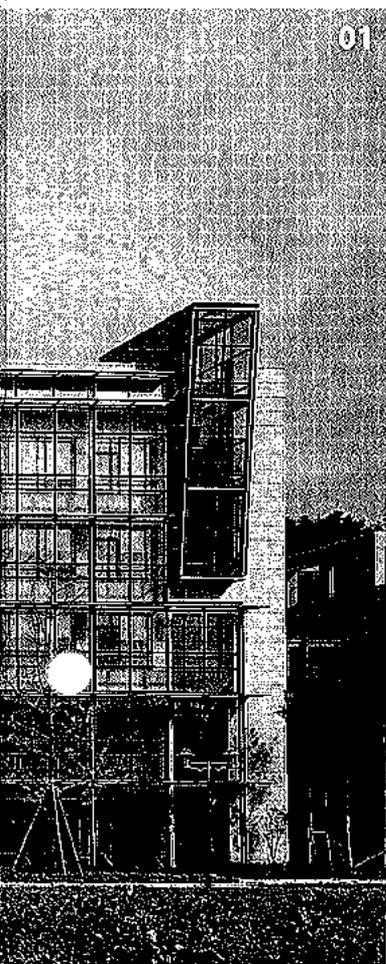
이중외피를 도입하면서 생긴 전면의 긴 커튼월에서 자칫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부 오픈 테라스를 두고 전면 계단실의 상부에서는 유리 박스를 구성하여 좋은 전망을 즐기기도 하면서 입면에서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다.

관공서의 발주여서 절차가 복잡하고 결정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상부지휘자가 바뀌면 보고와 함께 설계변경이 생긴다. 반면 그만큼 산중하고 정교한 장점은 있다. 공사는 동절기를 포함하여 3년 가까이 걸렸다. 처음계획과는 말 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아트리움이 축소된 것은 공간을 접할 때마다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시 건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자는 물론 담당 감독관의 사명감, 성실한 감리, 철저한 시공 모두가 제 역할을 했을 때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다.

미래산업첨단연구소는 도로기술연구소의 경험도 있었고 작품계획 전에 발주처 감독관과 시공사와 같이 미국의 유사 시설들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 그 중 IBM연구소는 1960년대에 에로 사이리넨이 설계한 건물로서 수 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함이 없어 보였다.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도착하자 건물입구에서 비서가 반갑게 맞이하며 미리 준비된 회의실로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건물을 계획한 건축가부터 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건축가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 연구소의 형태는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장을 하면 원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고 한다. 반원의 형태는 양쪽으로 긴복도가 있고 복도 가운데가 코아와 연구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구실은 외부로의 창이 없었다.

이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설계자의 의도이며, 대신 복도로 나오면 외부의 전경이 모두 보이는 커튼월로 구성하여 복도를 걸으

01~03.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술연구원



면서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고 한다. 복도는 또한 개인 혼자만 있는 방을 나오면 다른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부딪히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밖에 DELPHI와 G.M 본사 등을 견학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설득하지 않아도 발주처의 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성과중 하나였다. (당시 미래의 사장이었던 정문술 전사장은 최고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이긴 했다.)

미래연구소는 관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 의뢰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99년 12월 우리는 지금의 미래연구소와 상징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만들어 정사장과 미팅을 가졌다. 처음엔 대안을 맘에 들어 하는 것 같더니 우리에게 좋은 안을 선택해 달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지금의 안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지성인다운 표현으로 자신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더욱 존중하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 한 후에는 한번도 그 계획안에 대해 언급함이 없이 그 건물을 쓸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만을 당부하며 자신이 수집해 전시해놓은 그림과 조각품들을 일일이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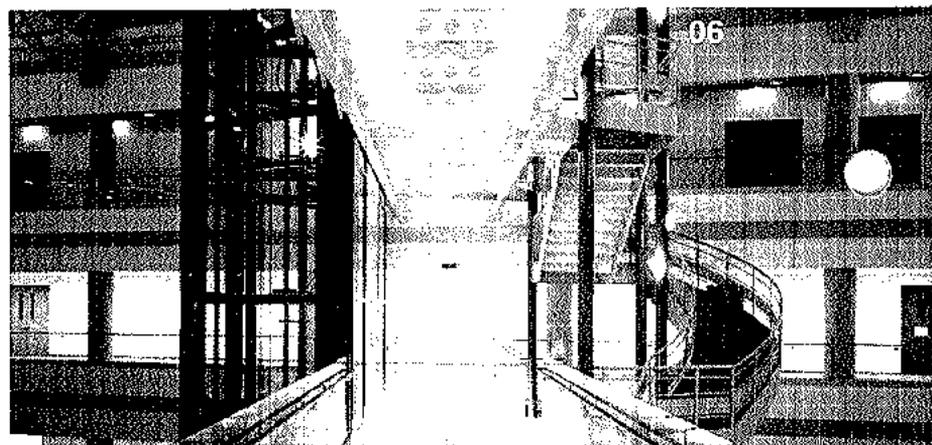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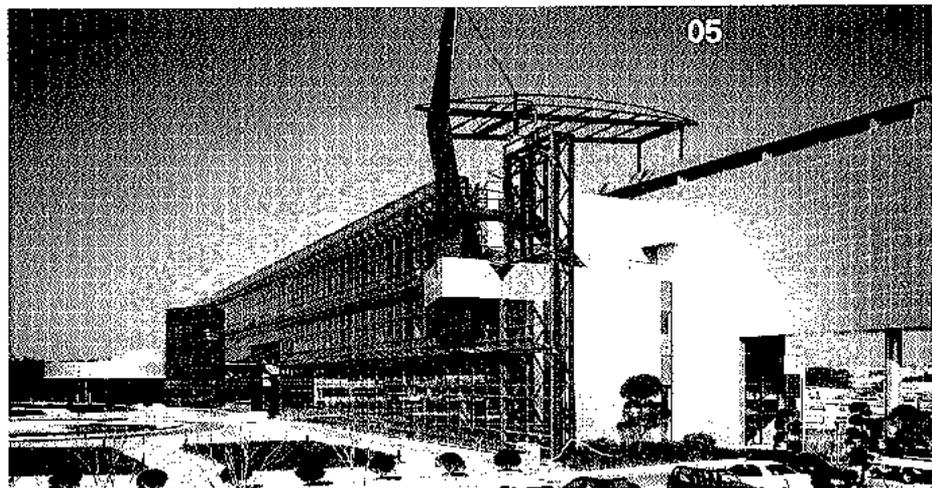
건축가에게 좋은 건축주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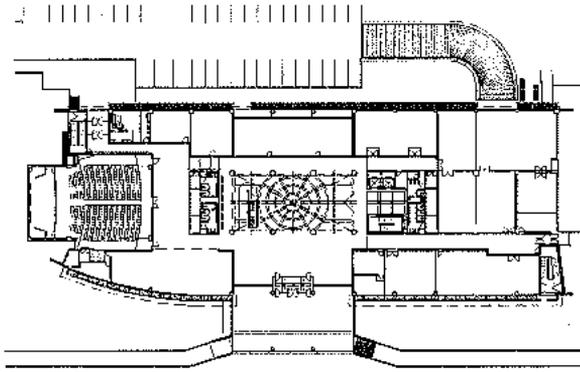
미래연구소는 아트리움과 축(軸)에서부터 출발한다. 대지가 반원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북쪽으로 배가 부르고, 긴 모양을 하고 있어 진입의 축을 만들어 입구부터 계속 뻗어 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지형상에 따른 반원의 형태로부터 생긴 아트리움은 의도하

였으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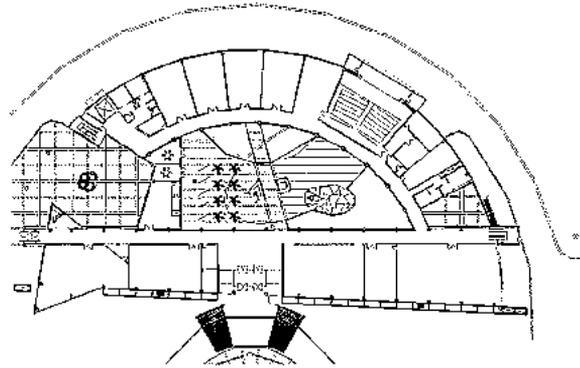
전면은 반도체 관련 첨단연구소의 이미지와 같이 전면커튼월과 커튼월의 열적기능저하를 감쇄하고 첨단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이중외피를 역시 도입하였다. 이중외피는 공사비는 많이 들었지만 이용자에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한 겨울에는 완충공간에 밖에서 일하다 들어온 작업자가 손을 넣어 언 손을 녹이곤 할 만큼 따뜻한 공간이 된다.

연구소에서 꼭 필요한 실 증 하나는 fitness공간이다. 연구에 몰입하다 좋은 공간에서의 휴식은 연구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의 우선은 아트리움이다. 녹화된 아트리움은 실내에서도 자연을 바라보며 시각적 청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층마다 적정한 장소에 휴게소를 두어 각 연구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연구실과 실험실과의 관계는 연구소 기능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인데 이곳에서는 하중과 진동이 있는 실험이어서 집중하여 각종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였다. 아트리움을 관통하는 브릿지는 바닥을 유리로 처리하여 가볍게 보이게하며 보행자에게 경쾌함을 준다. 식당으로의 접근은 전면 긴 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끝단은 <타이타닉 발코니>로 명명된 전망좋은 발코니가 마련되어 고속도로와 주변 경관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반원형의 뒤쪽매스는 전면 축으로 나오면서 교차하는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상승하는 탑이 있다. 이는 미래산업의 발전하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부분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옥상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있어 이용자에게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술연구원 1층 생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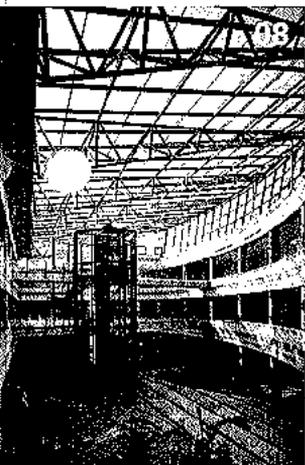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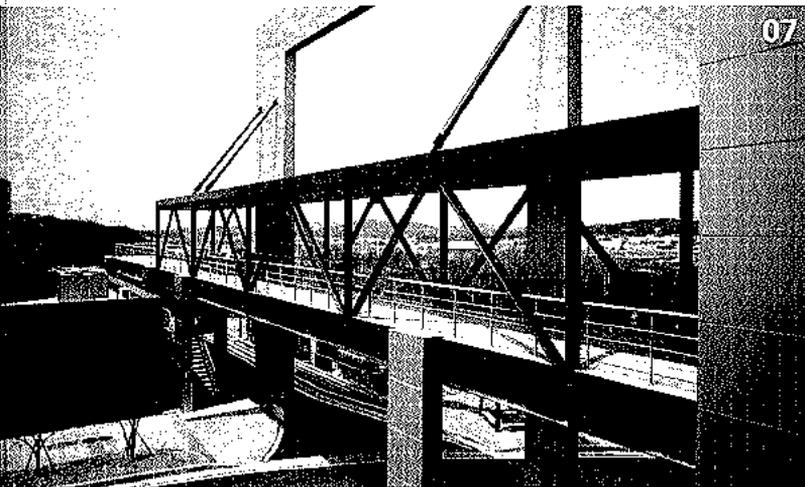


이러산업(주) 총진기술연구소 1층 평면도

상승감을 체험케하고 전면 전경을 보여주도록 한다.  
 공사 진행 과정상 미래산업의 자금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건축가의 의견을 물었던 감독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완공과 함께 2002년 경기도 건축문화 동상을 수상했다. 적은 공사비에 촉박한 시간으로 서둘러 완공했지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건축가에게겐 보람있는 일이었다.

이중외피는 두개의 연구소에 적용된 공통된 주요 시스템이다.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실제된 데이터가 없어서 과도한 비용으로 건축주에게 적용하도록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3년 전 사무소 부설 건축연구소를 만들면서 이중외피를 비롯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로 먼저 완공된 미래연구소가 먼저 완공되어서 이 건물 이중외피의 열적 성능에 대하여 대학기관과 같이 조사하여 논문(\*)으로 정리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이렇듯 건축가도 디자인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출처]

\* 김경규, 임정원, 김상길, 허정호, 이중외피 시스템의 부하 절감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10  
 -서정훈, 김경규, 임정원, 김상길, 허정호, 이중외피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 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대양에너지학회, 2002  
 -임정원, 김상길, 미래산업첨단연구소의 이중외피 시스템 설계사례, 대한설비공학회,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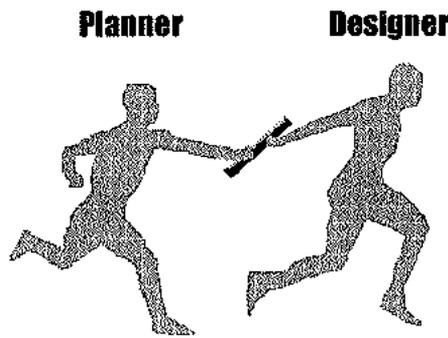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실습(1)

## Practice for District Unit Plan

문홍길 / (주)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oon Hong-Gil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했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와 실습' 강좌에서 마지막 실습부문을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건축사들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자기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가 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야념과 목적을 보면 건축가의 사명을 '건축과 도시계획을 발전시켜 공동체의 개선을 꾀할 것' 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본고가 이러한 사명감에 따른 매뉴얼을 지닌 외국건축사들과 경쟁 또는 협력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의 관념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회에 나누어 실게 될 본고 중 이번호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구분기술 환경속에서 이 주제를 압축한다면 계획가와 설계가간의 연계 '바튼' 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다. 그 속에는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윤곽선과 용도 등이 들어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관점과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필자 주)



내용물 : · Mass Envelope  
· 용도  
· 기타 필요한 사항  
(Program, Design Guideline)

###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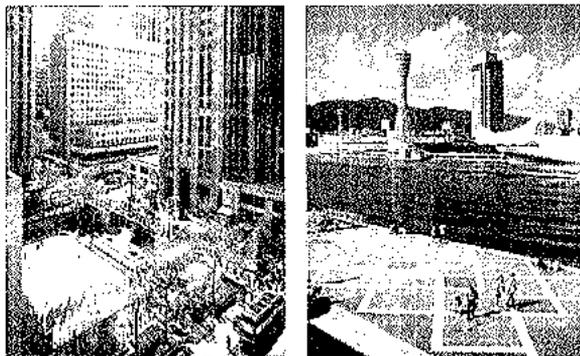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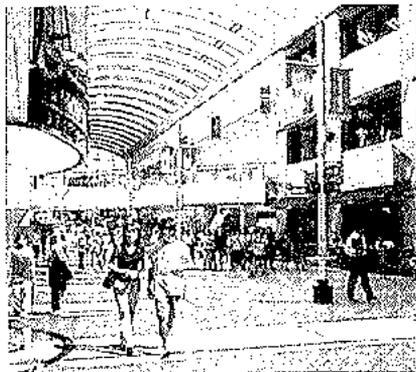
#### 1. 지구단위계획의 성립 배경과 접근방식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의 2차원적인 조정, 개별적인 건축행위의 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가로와 특성이나 도시환경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없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거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만으로는 훌륭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도시설계,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제도 등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사이의 다리역할을 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도시설계의 주요 관심은 도시환경을 건축가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보다는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며, 공공의 권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시설계는 도시환경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상황, 장소에 따라 항상 변한다 하더라도 도시설계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서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된 새로운 제도이다.



계획과 설계를 수행하는 계획가, 설계가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 상세계획은 한마디로 Urban design 즉, 도시설계라고 볼 수 있다. 건축계획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주환경을 다루는 기존 기술체계의 접근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정주환경을 다루는 도시설계의 접근방식은 비의

도적 도시설계와 의도적 도시설계로 나눌 수 있다. 비의도적 도시설계는 관련집단의 공통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개별건축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례는 전제군주나 제후의 뒷받침을 받아 의도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으로, 주로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의도적 도시설계는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적 내용을 설계하되, 도시의 공공영역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환경은 이러한 두가지 접근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공공주도형 지구단위계획은 의도적 측면이 강한 반면, 최근 도입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은 비의도적 측면을 적극 수용하려는 정책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 1) 비의도적 도시설계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주민제안형)

비의도적 도시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도시설계자의 역할보다는 거주민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거주환경을 부분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비의도적 도시설계는 적은 노력, 유사한 건물의 형태, 단순한 재료의 사용으로 공간을 창출하려는 거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격의 사회공동체(community)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설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비의도적 도시 환경은 오늘날 경험주의적 측면의 건축과 도시설계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건조(建造)환경이 된다. 실제로 비의도적 도시설계에서는 건물의 배치와 구성에 대한 약간의 규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불문율이나 전통적인 실행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결국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서히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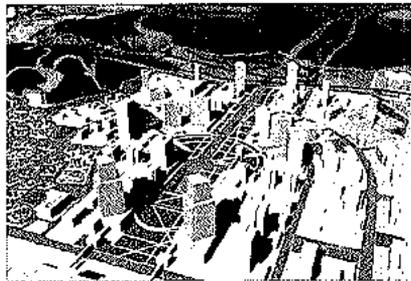
비의도적 도시설계에서는 그 도시의 경제구조와 법, 제도,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연적, 사회적 요소가 도시구조와 형태를 결정짓게 된다. 즉 도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도시가 갖는 지형, 지세,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인 특성과 장소성, 지역성, 도시성, 외부의 물리적 힘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과 함께 시장, 지역 산업과 정주지(settlement)의 입지와 같은 비단 비의도적인 도시설계에서 뿐만 아니라 의도적 도시설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2) 의도적 도시설계 접근방식(Top-Down Approach-공공주도형)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의도적인 도시들과 구별된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로패턴은 토지이용과 공공시설물의 위치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과 건물형태도 결정한다. 도시 전체의 배치 또한 물리적 형태와 토지이용 면에서 위계를 갖춘 기하학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의도적 도시설계에서는 도시구성을 위한 계획을 미리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설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의 뒷받침을 받게 된다. 즉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시들은 개발 전에 이미 도시설계에 의해서 주요한 내용이 결정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침까지 준비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장소의 3차원적인 배치는 전문가들의 특수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인구·환경전문가, 교통계획가, 도시계획가, 조경가, 건축가, 환경설계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공 관점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편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 본래의 계획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도시설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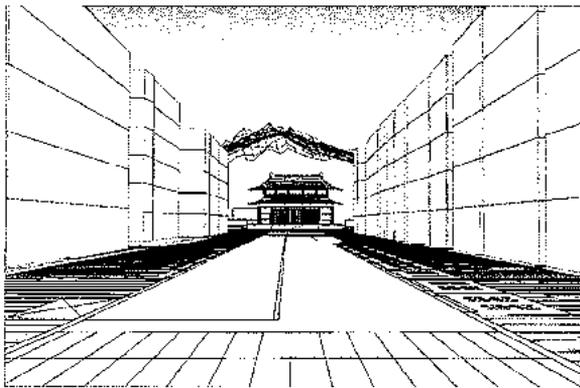
의도적 도시설계에서 도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비의도적인 도시설계의 요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로체계, 교통 등과 도시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요소, 미적인 요소 등 도시형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요소의 일체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 2.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 도시계획, 건축설계와의 관계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도시의 형태를 설계하는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설계 사이의 중간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취급되어야 할 내용은 건축과 도시의 중간영역, 물리적 환경의 3차원적 외부공간, 대규모 또는 광의적인 건축,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 도시의 중간영역을 다루는 분야이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예측된 수위에 따라 공간상의 한정된 자원을 평면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이다. 이에 반하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입체화하고 부분적으로 즉지적 여건에 맞게 상세화하여 개별적 건축행위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시켜 그 맥락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사적 영역을 다루는 건축과 도시의 보다 광범위한 공적 영역을 다루는 도시계획의 중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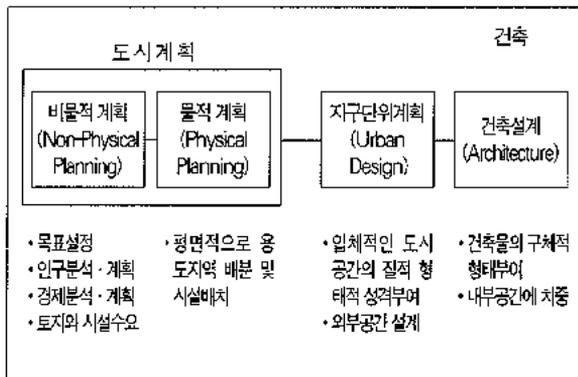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이 갖는 역할은 크게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의 매개적인 관리수단, 지구의 특성 반영과 즉지성의



확보 실현 수단, 바람직한 도시개발 유도수단의 3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매개적 관리수단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제어방식은 공공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법상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도시계획과 개별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규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계획의 집행을 위한 지적고시단계가 있지만, 지적고시는 계획결정단계의 차이일 뿐,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적합하게 구체화시키거나 입체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매개적 관리수단으로서의 역할

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사이에 지구단위의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단계의 도시개발 관리수단으로서 역할을 지닌다.

### 2) 지구의 특성 반영과 즉지성의 확보 실현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의 지정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건축행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개별 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 적용이 되어, 지구특성이나 필지상황을 반영한 도시환경관리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도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즉지적인 여건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에, 지구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은 개별설계에 대한 단기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필지별 즉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구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3) 바람직한 도시개발 유도 수단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법의 건축규제는 건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소극적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저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해 최소 수준 이상의 토지이용과 바람직한 건조환경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도시의 양적인 계획(Programming)과 배분·배치(Planning)이라면, 오킨대 지구단위계획은 일정한 지구의 공적영역, 건물군, 오피스페이스, 이미지 등과 관련하여 단위 건물이 가져야 할 외부논리를 규정하는 것이며, 건축설계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단위 건물의 구조, 전기, 설비 등과 재료 등을 망라하는 건축의 내부논리를 구성하여 외관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지구단위계획의 물리적 대상별 제어요소

물리적 대상 (한계지)	계획요소	설계제어요소		제어내용	
		대지	규모,형상,용도,분할 공공부문		
건물 주변공간 (건축주)	대지	대지	규모,형상,용도,분할	•필지형태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개공지	대지내 공지	공지물, 공지면적, 전면공지록, 측면공 지록, 배후공지록	•비건폐 토지이용의 면적, 위치, 형태 •Mass Envelope	
도시공간 (공공)	공원, 광장 어린이 놀이터	-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광장	
도시공간 (공공)	보행자전용도 로, 보도 보행자 테크니케이션 건물통과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공공공간, 보행자 통 로 보행자 출입구, 이케이드	보행자전용도로	
	지하도로	-	-	지하도로	
도시매면 (공공)	도로망매면	자동차 통행	-	버스정차대, 좌우의 전차선 신호등	
		보행 자동차 자전거도로	유계보행도로, 보행자 통로 보행자출입구	보행자전용도로, 보행 자도로, 자전거도로	
	토지이용매면 기후분할/최저 분할	주차장	주차장위치, 진입위치, 주차장면적, 차량전출입 통로, 공동주차장	노외주차장 (공공지하주차장)	
		필지분할가능선 필지분할권장선/ 공동개발	-	-	
도시경관 (건축주, 공공)	가로축의 형상 접지층의 높이 건물의 외벽 외관의 형태 광고간판	건물외관	1층 바닥높이, 기둥높이 벽면(외벽)처리 투시벽, 재료, 색채 지붕/옥상, 담장형태 광고물, 안내판설치	•건축물 Mass •외관의 구성, 품질	
	조경	단지내 조경	옥상조경 대지경계선 조경	공공조경	
	스카이라인	건축물	건축물 높이제한(경관) 고지대 높이제한	-	
	가로시설물 대중교통시설	가로수	가로수	벤치, 쉼터, 휴지통, 택시정차대, 볼리드, Kiosk, 대중전화, 교통표지판	•위치, 수종, 시설물의 종류 등 •휴식편의시설 •교통시설 •정보편의시설
				환경조형물, 플랜터 가로등, 보행 등	•조형시설 •조형시설
건축물 (건축주)	건물의 규모	규모	용적률, 건폐율 높이/층수	•Mass Envelope 형태, 품질 •3차원적 용도구성 •점연성	
	건물의 높이	용도	용도제한, 관장		
	건물의 용도 혼합용도	위치	건축현계선, 건축자정선 벽면현계선, 벽면자정선		
	건물의 위치	형태	건물전면방향, 건물 외 배치, 길이폭		

#### 4. 결론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구역의 현안과 예상문제, 향후 10년 내외의 발전과정과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와 규모가 과연 지역여건과 미래 전망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를 개별 획지차원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도로·공원·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자연 경관과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 들어설 건축물에 대한 건폐

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용도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위도시계획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의 기능구성계획(Diagram)이라면 재정비계획은 비로소 지적현황과 관련되는 보다 중기적인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은 획지차원의 3차원적 계획이고, 건축설계는 개별 필지에 대한 3차원적 설계로 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3차원적 구성논리중 용도구성은 중심지체계와 관련된 지구위상과 관련해서는 상위 도시계획에서의 계획내용을 차용해 오지만, 그대로 적용·구체화되기 보다는 도로용량, 필지규모, 개발잠재력, 경관구조 등 지구의 특성·현황과 결합됨으로써 종합적·일체적·구체적 설계요소로서의 합리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합리성은 지구단위계획에 참여하는 교통, 환경, 인구, 도시계획 등의 관련전문가들에 의한 계획수립과 주변주민들과의 계획협의·조정과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결과물은 결국 개별건물 필지(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 윤곽선(Mass Envelope-3차원적으로 건물이 튀어 나올 수 없는 선), 그리고 비건폐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개별 필지를 담당하는 건축가에게 필지 외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별건축가 개인이 취득·해결하기에는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내용과 양을 계량(Programming)하고, 건축계획의 3차원적 외부공간을 정합하는 계획(Planning)이기 때문에 분석적 합리성에 기초한다면 건축계획은 건물의 구조, 설비 등의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건물의 외피를 포함한 외곽공간의 형태 디자인과 내부논리를 구성, 취합하는 직관적 경험성에도 근거를 둘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의 구분에 앞서 상위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이든, 개별필지의 건축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이든 그 모두가 도시의 토지이용질서유지와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기능활성화, 지역특성의 유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체도의 계획수립의 전과정과 절차는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며, 어느 일방의 무절제를 견제하고자 하는데서 이러한 모든 계획과 설계, 절차의 정당성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우리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도시설계, 상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화되는 변천과정이 발전적 해체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새 제도의 성공적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 소고

### View on the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곽선규 / 건축사사무소 폴리건  
by Kwak Seon-Kyu

특별검사원 제도에 대한 기고자 이 봉춘 건축사의 글(건축사 0301호) 잘 읽었다. 특별검사원제도(이하 특검제도)에 대한 문제점검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한 사람의 건축사로서 감사를 드린다. 다만 이 글은 이 봉춘 건축사(이하 기고자)의 글을 읽은 후 생각나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반추하여 본 특검제도의 제도적 보완을 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검제도의 각론적 검토보다는 제도의 개념적 이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기고자는 그의 글 말미에서 "더하여 건축사 스스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외연히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민간이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건축사의 위상과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고취로 우리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글을 맺는다. 필자는 이 절어가 함의하는 건축사의 문화적 소임에 대한 기고자의 의견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 건물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건물은 좁게는 개인의 물리적, 지적 재산이며 넓게는 사회의 물리적, 지적재산이다. 즉 건물이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사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이 개인의 사적인 대상물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집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대상물로도 귀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은 건물자체로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한 사회를 향해 소유해야할 기능적 덕목과 도덕적 덕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좁게는 개인 삶의 수용과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넓게는 건물과 건물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덕목을 건물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를 점유하는 건물 자체로서 완결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기능적 덕목이라 한다면, 도덕적 덕목은 좀 더 포괄적으로 건물이 상대적으로 대지주변과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며 소통해야 하는가에 요구되는 건물과 사회와의 관계성이라 하겠다. 또는 건물이 세워지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요구를 기능적 덕목이라 한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통시적 시점에서 건물이 담당하는 것을 도덕적 덕목이라 생각한다.

#### 건축사 공동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기고자가 설파한 건축사의 책임과 사명감은, 따라서, 이러한 덕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건축사의 전문가적 역할수행으로 보다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건물을 창조해야한다는 보편적인 그리고 어쩌면 일상적인 가치에 기준한 건축사의 시대적 소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건물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사는 복잡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하여야 한다. 대지현황, 건축주의 기대치, 자연환경 조절, 인공환경 대입, 문화적 코드, 건축법규, 재료, 사후관리 그리고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건물을 설계한다. 이 설계행위에 건축사의 책임과 사명이 디자인 의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이 기존의 가치를 초월하여 극도의 이윤추구를 위한 소비 상품으로 문화적 코드를 달리하는 현재에서, 건물의 기능적 도덕적 덕목의 이해를 전제로 한 건축사의 사명감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있다. 그 도전은 소비상품으로서의 건물가치추구와 이를 설계하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이다. 건물이 이윤창출의 한 수단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현상은 건물을 기존의 이해를 벗어난 첨예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성을 우선한 건물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도덕적으로 결여된 환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1차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2차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되었다.

한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 가치가 보편적 가치를 이룰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경제논리의 힘에 의한 이러한 소비재생산의 문화 앞에서 건축사의 사명과 윤리를 홀로 논하기엔 거대한 이윤추구문화 앞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더욱이 지금의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건축사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명감에 귀결시키기에는 너무 버겁다. 또한 현재와 같은 건축시장의 첨예한 시장경제 속에서 건축사의 도덕적, 윤리적 사명만을 주장하는 것은 건축사의 직업적 소명을 떠나서 개인의 생존소명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 문화적 사명감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전제된다면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전문인으로서 건축사의 책임과 자긍심, 위상만을 논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특검제도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건물이 담당해야하는 문화적 전제를 회복하자는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제도는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그간의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정이 너무 협소하고 현재적 시점에 국한된 것에서 문제를 시작한다. 즉 제도의 힘으로 개선하려하는 이른바 특검제도가 표방하는 목

표- 건축부실과 부조리라는 반기능의 해소를 문화적 전제를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또는 제도와 제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건축주라는 개인이 대표하는 집단과 건축사라는 개인과의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건축주는 개인이되 개인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문화적 전제를 공유하는 거대개인이자 집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현재로는, 철저히 개인이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의 세계화 시대는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빼앗고 있으나 자본과 문화를 등에 진 거대한 개인(집단)은 그 가능성을 더욱 독점하고 있다.

이제 건축사도 개인에 머물러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좁게는 건물 사용승인 현장검사에서 건축사가 건축주와 생업의 열쇠를 쥐고있는 특별검사원이라는 2명의 골리앗을 상대하는 편향적인 제도의 폭력은 사라져야 하며, 넓게는 건축사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소통방식과 제도를 수용하는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건축사와 건축사가 협력하여 집단(제도)의 힘으로 현상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질서와는 다른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비단 건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 물론 건축사 집단의 구조조정은 집단에 속해있다는 안도감이나 안일함 그리고 집단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함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를 기획로 해서 건축사 본연의 덕목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은 공동체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특검제도에서 특별검사원에게 주어진 현장조사는 그것이 어떠한 정계를 초래하는 조사가 아니라 사전 현장조사로 사용승인에 저촉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축사간의 협력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즉 건축사 개인의 조사와 특별검사원의 객관적 조사를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공조체제로의 전환으로 제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건축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건축사와 특별검사원이 개인과 제도와의 만남이 되어서는 개인의 존립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존재의 위태로운 건축사 전체의 빈곤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건축문화를 더욱 빈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건축사들은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건축사들의 궁극적 사명이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건축문화의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 건축공무원 업무의 민간이양을 반대해야 한다

현재의 특검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건축계 현상의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정부조직을 배제한 것에서 시작한다. 앞서 건물은 개인의 재산이기에 앞서 사회의 재산이라고 했듯이 건물의 가치는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의 가치를 기증하는 문화의 보편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 가치의 내면적 요구에 의한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은 제도라는 틀로 규정된다. 제도라는 것이 인간집단의 어떤 기능, 즉 사회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제도 자체를 생산하는 주체의 술부적 속성이 배제되어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맥락의 파악과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자발적 억제기능을 담당하며, 사회에 구심력을 부여하는 인간의 습관, 행동억제, 기대치 등을 공인하는 힘이 있다. 자발적 억제기능이라 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준한 제도의 규제와 의무의 틀을 전제로 한다. 언뜻 보기에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듯하지만 이윤동기가 전제된 그들의 경제적 행위는 너무나 쉽사리 문화적 상징물의 상업화와 착취라는 반문화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우리가 사회의 비경제적 측면을 보호함에 있어서 자유시장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며, 제도를 생산하는 한 주체인 정부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좁게는 상업주의에 쉽게 매수되지 않는 관료들과 넓게는 문화유산 보존에 참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정부조직의 국토계획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검제도의 한 목적인 건축부조리 척결을 위한 인과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정부관료를 배제한 협소한 현상분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조리의 연결고리만 생산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특검제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축문화의 발전 즉 도시의 거주적합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화적 소임과 그를 위한 상호협력과 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정부조직 각자가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 상호간의 관계에서 제도가 규정하는 규제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이 특검제도는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시대적 소임은 인정하지만 국민과 국가의 기초적인 재산인 건물을 다루는 건축 전문업무의 민간이양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정부관료인 공무원이 행하던 업무이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만 집행

하여야할 고유업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기고자의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업무 고유영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업무간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업무 고유의 책임과 의무까지도 변질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굳이 건축문화의 소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재산인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조직(공무원)의 고유업무는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건축사와 특별검사원의 현장조사와 확인에 의거한 소극적인 건축 행정처리와 그로 인한 건축사에 향한 편향된 책임부여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거대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한 제도 앞에서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특검제도의 긍정적 방향 제시

따라서 이 특검제도는 건물에 대한 전문인의 고유영역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규정은 유지하되 건축주와 건축사, 건축사와 정부조직 그리고 건축주와 정부조직이 상호 협력하는 제도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사와 특별검사원의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는 거주적합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로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조직은 이들의 업무협조를 근거로 한 보다 책임 있는 행정처리로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사의 전문가적 역량 측면에서 건축사들에게도 긍정적인 도전이 될 것이며, 정부조직의 기능적 업무수행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도전을 동시에 부여할 것이다.

우리가 제도의 부조리를 논하는 것은 제도의 파괴를 의미함이 아니라 그 제도의 발전적 모습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다. 제도는 제도 자체로 완벽할 수 있지만 그 운영자인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어차피 인간의 사회조직이 이해를 발생시키는 배타관계로 형성되지만, 배타적 존재는 자기논리에 의하여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를 통해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을 도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현재를 살고있는 동시대인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 에너지 절약형 희망의 도시찾기

### Searching for the Hopeful City in the Type of Energy Saving

- 브라질의 쿠리치바시 -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ng

새로운 정부에 걸맞는 에너지 절약형 희망도시를 찾아보려 노력한 결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박용남 선생의 「꿈의 도시 쿠리치바」를 통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곳을 방문하여 그곳 시장과 교류활성화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용기를 내어 관련자료들을 모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희망의 도시 쿠리치바를 능가하는 길은 세계적인 월드컵을 성공리에 이루어 낸 대한민국이라면 결코 어렵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잘못된 진보에 대한 환상을 과감히 버리고, 늦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글과 사진은 공공의 계몽이라는 명제아래 박용남 선생의 저서에서 퍼온 것임을 밝힌다.(필자 주)

#### ‘쿠리치바를 모델화’에 나선 서울특별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 파고를 우리들이 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이 이런 때에 정치가 살아 숨쉬고 IMF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도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서도 개선하지 못한 일을 남미의 한 변방도시 쿠리치바가 공공영역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구현하면서도 사람과 장소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곳이 최근 모일간신문 「인물과 화제」 코너에 아래와 같은 글이 소개되었을 때 필자는 강한 심장 박동을 맞볼 수 있어 좋았다.

“미주를 순방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1월 24일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 카시오 다니구치 시장과 서울·쿠리치바시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두 도시 시장은 이날 세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쿠리치바시의 교통정책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비롯한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시장은 면담에 앞서 쿠리치바 시내 튜브 정류장과 환승터미널, 버스전용차로, 보행자전용공간 같은 교통시설들을 둘러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지만 결과를 보면 주민을 위한 것은 미미하고, 또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허명은 있지만 건강하게 변화된 모습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사업을 위한 사업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보존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너저분한 환경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도처에서 아주 쉽게 발견되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앞에서 언급한 쿠리치바의 '희망의 도시'에 대한 꿈을 우리 도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쿠리치바시의 과거와 현재, 다양하고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왔던 개발경험, 그리고 쿠리치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 쿠리치바의 과거와 현재

쿠리치바(curitiba)시는 브라질 남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파라나 주의 주도이다. 평균고도 908m의 아열대 지방에 자리잡은 이 도시는 총면적이 432㎢로 우리의 대전광역시 보다 작지만, 지형이 이파수 유역을 축으로 북쪽, 남쪽, 남동쪽에 고원을 가진 구릉성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 가능한 토지 규모는 대전보다 약간 큰 대도시이다. 1842년에 소도읍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시로 승격되었고, 시의 인구가 약 6,000명에 이르렀던 1853년에 파라나 주의 수도가 되었다. 이때부터 유럽의 이주인들이 대거 쿠리치바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쿠리치바는 1950년대에 이미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도시로 변해갔다.

이렇게 도시 파피는 아예 저항했던 '자이메 레트네르' 라는 시민운동가의 출현으로 1962년부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쿠리치바의 성공을 이끌어 왔던 그는 임명제 시장과 민선시장을 3회나 역임한 쿠리치바의 산 증인이자 연출자이기도 하다. 한 도시를 보존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을 공인으로 봉사했던 그와 관료제에 물든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과 함께 한 적극적인 공직자들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룩한 시민들의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쿠리치바시는 보전과 시민정신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빛나는 예로서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공직자들은 도시문제를 스스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주민들과 부단히 토론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를 전반적으로 변화

시켜 나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관료제도형 탁자위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통찰력을 제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유연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나갔던 것이다.



과거 쿠리치바의 시의 거리모습



현재 쿠리치바 시의 스카이라인

그 결과 1995년 로마클럽에서 세계 12대 모범도시로 뽑혀 '희망의 도시'로 선정된 교통과 환경, 복지분야 선진도시로 알려졌다. 특히 1974년 브라질 최초로 급행버스와 역류버스 전용차로, 무료 환승이 가능한 분산형 교통 터미널을 도입해 전 세계 도시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최적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 다양하고 창조적인 실험들

1인당 국민 소득이나 소득분포를 우리나라 도시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도시가 아님이 분명하다. 게다가 쿠리치바는 아름다운 해변이나 항구는 물론이고 로마나 파리와 같은 위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리치바가 '꿈과 희망의 도시'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쿠리치바시의 전시장이자 뼈라나 주지사인 자이메레르네르의 아래와 같은 대담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보다 나은 도시에 대한 꿈을 언제나 그 주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낙원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민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다루는 일보다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첫번째 시도는 1943년 완성된 ‘아가쉬 계획’이다. 도시 성장을 지향하는 쿠리치바는 주거지에 둘러싸인 중심지역을 핵으로 환형도로에 방사형 도로를 연결한 교통체계를 제시한 이 계획의 기본원칙은 중심상업업무 지구를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과밀 예측이 빚나가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잘 짜여진 도시계획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직 사회에 깊이 인식시켰다는 교훈은 남았다.

두번째 시도는 ‘아가쉬 계획’을 수정한 ‘에비도시 계획’을 거쳐 ‘쿠리치바 종합계획’이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컨설팅사가 주체가 되면서 시청과 지방 전문가를 참가시켜 구성한 컨소시엄에 의해 입안되었다. 이후 도시계획연구소-IPPUC를 설립해 집행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많은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훈련장’으로서 기능도 수행했다.

상세 계획의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로망, 교통과 토지이용의 통합을 통해 방사형의 도시성장 추세를 선형으로 바꾸는 것
- 중심지역의 ‘탈혼잡’ 과 역사 중심지의 보존
- 인구 통제 및 관리
- 도시개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하부구조 개선

쿠리치바의 사례는 모든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의 초기에 통행과 토지이용 패턴을 연계해 그들의 공간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고, 선형 성장이 공공 대중 교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교통체증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땀질식 도로 확장과 같은 도시 개발을 일삼고 있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올바른 원칙에 따라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세번째 시도는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의 물리적 변화는 목표에 의해 유도된 도시성장으로 특징화되었다.

- 토지이용법을 마련, 대중교통체계의 발전과 점진적 통합
- 시간을 낭비하는 조사나 이론적인 논쟁에 앞서 물리적 사업을 명확히 설정
- 위에서 언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 하부구조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

위와 같은 방향아래 쿠리치바시는 우선 두개의 간선 교통축과 이와 관련한 하부구조를 개발하고, 기본적인 공원 네트워크, 자전거도로와 중심지에서의 보행자 도로망을 연결한 공공광장의 건설을 실행에 옮겼다. 즉 보행자들이 주요 가로와 대부분의 역사 중심지를 이용하게 되고, 공원과 녹지가 증가되고, 경제적 변화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형 교통축 개념의 의식은 쿠리치바시를 도시성장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안내했다.

그 결과 공업단지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높은 삶의 질과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시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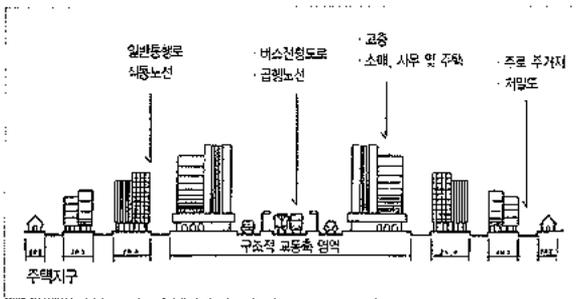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폐쇄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찬 쿠리치바의 생활방식을 바꾼 문화적 혁명은 물리적 변화의 산물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없이는 기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문화적 변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중요한 모임 장소로서 도심의 재생
-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이용하는 ‘건물 재활용’ 정책의 집행
- 쿠리치바 역사지구와 문화재단의 창조, 문화유산의 보존
- 문화적 가치 및 민족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하는 일련의 사업(영화관, 공공광장, 기념관)시행
- 새로운 광장과 하부구조 건설, 공원에서 의 레저 활동, 저소득 공공주택 개발 등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시민운동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공동체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혁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또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래의 삶을 올바르게 설계해 자신들이 뿌리박고 사는 터 자체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개조해 나가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 개발사례분석 - 독창적인 통합교통망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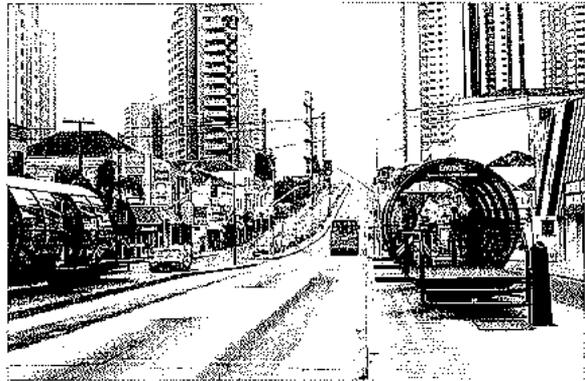
쿠리치바의 도시성장은 '구조적 도로'와 함께 5개 주요 간선 교통축을 따라 해가 거듭되면서 조성되었다. 간선 교통축의 도로는 폭원이 60m나 되는 광로였다. 이런 광로는 기존의 도로폭을 확장하려 훼손하고, 나아가 토지 수용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만 한다.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 자랑할 만한 가장 큰 발명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60m 폭의 광로 건설 대신에 그들은 필요도로도 확보하면서 도심 경관을 훼손시킬 필요도 없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 각 교통축 '3중 도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중앙도로의 중심부에는 급행버스를 위한 2개의 역류버스 전용차선이 있고, 이 중심도로의 양쪽 측면에는 자동차 차선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기 한 블록 떨어진 곳에는 지선간 운행차선과 교외로 나가는 일방통행이다. 교통신호는 철저하게 2단계로 운영돼 우리나라의 4단계에 비하면 용량이 2배정도이고, 신호 대기시간은 불과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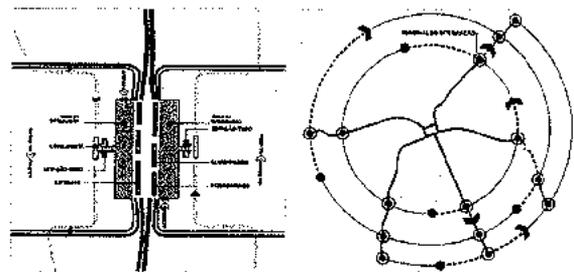
3중 도로를 따라 도시이동과 건축 밀도

이상과 같은 통합 교통망 덕분에 5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쿠리치바에는 대부분의 현대 도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교통 문제는 거의 없다.

이후로 버스를 지하철처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창안해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기 전에 운임을 지불하는 원통형 정류장을 개발, 도입해 예정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한번에 270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이중굴절버스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모든 시민들은 개인 자가용 운행 대신 편의적 대중교통 수단을 부담없이 이용하고 있다.



역류버스 전용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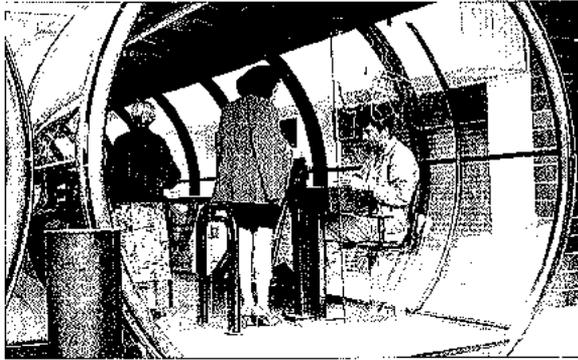
통합터미널의 네트워크 및 내부구조

이러한 시민들의 협조와 보다 많은 버스 이용으로 서비스의 질이 지하철 수준이다. 그리하여 쿠리치바는 미국의 워싱턴 보다 더 많은 승객을 km당 150배 더 싼 가격으로 수송하고 있다. 또한 버스를 컬러로 부호화해 급행버스는 적색, 직행버스는 은색, 지구 간 버스는 녹색, 지선 버스는 주황색, 재래식 완행버스는 노란색 등으로 차별화 했다.

이 밖에도 쿠리치바의 교통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개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지선버스에서 급행버스로 환승할 수 있고, 다른 지선버스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의 용이성에 있다.

'사회적 요금'이라는 단일 요금제도는 한번만 요금을 내면 환승터미널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추가 부담없이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다. 우리의 서울 지하철 같

은 시스템을 지상의 버스시스템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원동형 정류장의 입구



승강대와 동일한 높이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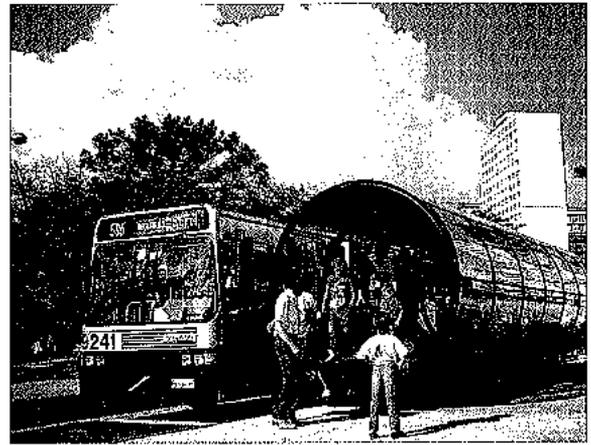
## 교환과 할 일

우리 건축 전문인은 쿠리치바 도시공사의 전 회장이었던 건축가 까를로스 세네비바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교환과 할 일들을 찾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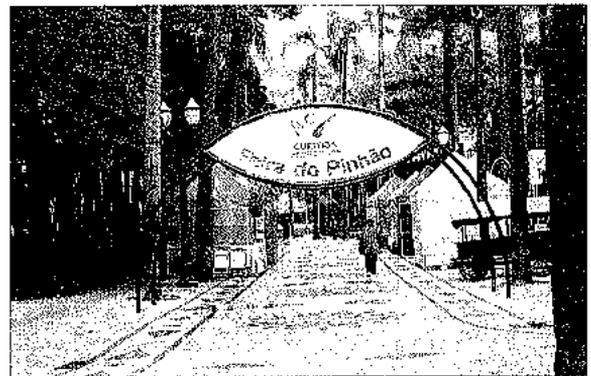
“쿠리치바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도 해외기술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이 부단히 연구, 개발한 새로운 교통해결책은 단순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신속하게 이식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즉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가지고도 엄청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경전철, 노모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과 관계전문가, 시민들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뼈아픈 충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꿈의도시 쿠리치바」저자이신 박웅남 선생이나 우리 건축전문인들이 앞장을 서서 역사보존과 희망의 도시라는 두 마리의 양을 잡을 많은 다양한 기획안을 열려진 디지털정보로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적극적인 생활자세를 새로운 시대는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바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위대한 정책은 아이들과 같이 단순하며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된다. ■



독점적인 원동형 정류장



허기받은 노점상 겨유시장

##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2)

###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 10차 아카시아 총회가 인도의 수도 뉴델리 소재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2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 되었다. 총회전 12월 3일, 4일 이틀간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 기간 중에는 학생 잼보리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카시아 이사회에는 이정근, 오근석 위원이 참가를 하였고, 총회에는 필자 1인, 학생 잼보리에는 최기현, 강혁진 두 사람이 참가 하였다.

아카시아 회원국은 총 2001년 네팔이 새로 가입하여 총 17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금번 총회에서는 준비가 급하게 진행된 관계로 참여를 하지 못한 국가도 있으나 많은 현지 건축가들과 함께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개막식 행사는 비그얀 바완(Vigyan Bhawan) 회의장에서 인도 정부 도시계획, 반곤 화처부 장관을 비롯하여 새로 아카시아 회장 임기를 맡은 홍콩의 배리 윌(Barry Will), 그리고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발비르 베르마(Balbir Verma) 인도 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금번 총회의 주제는 "인간 중심의 건축"(People Centric Architecture)으로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인간적 건축에 대한 재고와 우리가 사는 건조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유지에 대한 아시아 건축사들의 생각이 담긴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 12월 5일, 6일, 7일 3일간 치루어진 행사는 다음과 같다.

#### 12월 5일

##### 오전 : 개회식

개회식은 비그얀 바완(Vigyan Bhawan) 회의장에서 열렸다. 아니탄 쿠마르(Anathan Kumar) 도시개발 반곤화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어 개막을 상징하는 등잔불 세리모니, 화환증정 등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발비르 베르마(Balbir Verma) 인도 건축사 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신임 회장인 홍콩의 배리 윌(Barry Will)등 관계자의 인사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그림 1 크리스탈 볼룸 회의장 풍경

### 오후 세션

이후 모든 세션은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첫번째 연사로 일본의 가즈오 이와무라 (Kazuo Iwamura)가 "인간중심의 그리고 환경 친화적 주거 계획" (People centric and environmentally symbiotic housing in Japan : all through the sustainable design process)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그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과정을 디자인 전, 디자인 중, 디자인 후의 3단계로 나누어 과정을 설명하고 그에 의해 도출된 결과로서의 건축을 예시하였다

이어서 인도 건축가 라즈 르왈(Raz Rewal)은 알함 브라궁의 이미지를 자신의 건축디자인에 적용한 과정을 발표하였다.

간단한 커피 브레이크후에 호텔 지하층 리젠시 룸에서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에 대한 전시회 개막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철린 소장과 조남호 소장의 작품이 아카시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전시되었다.



그림 2. 아카시아 수상작 전시회

## 12월 6일

오전 세션의 전반부에는 인도 건축사 비제이 리즈부드(Vijay Rizbud)와 반살 박사(S.P. Bansal)가 델리 남서쪽에 위치한 드와르카(Dwarka) 신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드와르카시는 인구 약 백만명을 위한 신도시로서 현재 2단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위성도시개발 계획이다. 총 5648ha로 1688ha는 이미 건설되었고 현재는 2098ha가 진행 중에 있다. 주거는 80ha에 인구 3-3.5만명의 단위로 나누어져 모든 커뮤니티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계획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홍콩대학의 파트릭 라오 교수(Patrick Lau)가 "환경건축" (Eco Architecture)의 제목으로 3개의 학교 건축 설계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중국의 천, 지, 인,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 고건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 한 계획이었다.

약 30분간의 티 브레이크후 인도 건축사 비말 파텔 (Bimal Patel)이 "아메다바드(Amedabad) 사바르마티 강변개발 계획" (Sabarmati River Front Development)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현재는 강변이 빈민거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1997년 개발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는 인도 건축사 쿠라나(J.J. Khurana)가 "인간적인 도시, 문명화된 도시" (Humanizing Cities, Civilizing Society)의 제목으로 이스파한(Isfahan)의 정원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점심 후 모든 회원들은 연꽃사원과 인도정부 주택성을 방문하였다.



그림 3. 인도 정부 주택성

## 12월 7일

마지막 날의 세션은 필자의 귀국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라 신도시의 경험(Experiences of Their New Township) : 아스혹 드완(Ashok Dhawan), 킴티 랄 샤만(Kimti Lal Shaman), 사티쉬 칸나(Satish Khanna) 인도 건축사

- 비디아 나가의 창조(Creation of Vidyanagar) : 제라르 다 쿤하(Gerard Da Cunha) 인도 건축사

### 티 브레이크

인간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 : 쉬리시 데스판데 교수(Prof. Shirish Deshpande)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중심의 건축(People Centric Architecture for Social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 릴웰론 반 아이크(Llewellyn Van Wyk), 남아공화국

### 점심

인간을 위하여 사유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여가(Providing Housing & Recreation for People Through Privatization) : 피 카시(P. Kasi) 말레이시아

응답(Responses) : 호앙 다오 킨 교수( Prof. Hoang Dao Kinh), 베트남

세션의 발표가 모두 끝나고 저녁 7시부터는 아속 차 나카푸리 ( Ashok, Chanakyapuri) 호텔에서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식이 진행되었고, 각국 대표들의 장기자랑이 곁들여진 저녁 만찬을 끝으로 제 10차 아카시아 총회가 막을 내렸다.

아카시아 회원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로 이루어졌다.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와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가까워 질 수밖에 없고, 우리 건축사들이 진출하여 일할 기회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에는 낮은 설계 가격 등으로 진출의 조건이 좋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변국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의 아시아 설계 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홍일 / 본 협회 국제위원)

## ARCASIA STUDENT JAMBOREE 기행문

시작하며..

건축잼보리의 참가기회가 주어진 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도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소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실무건축을 시작한지 10개월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11월 3일

며칠 간 계속되던 일을 밤샘작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서 정신 없이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더 준비할 시간을 가졌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잼보리 대상으로 결정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기다리만 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이다.

6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간단한 탑승 절차를 마친 후 경유지인 방콕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 30분정도였으며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는 기분이 든 것은 아마 그때쯤이었다.

하지만 잼보리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라서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 11월 4일

방콕에서 1박을 했던 ASIA AIRPORT HOTEL에서 나온 시간은 오전9시(방콕시간)정도였다. 동행했던 최기현씨와 들어서 방콕 시내에 나가보기로 한 것이다. AIR TRANSIT을 위한 하루정도의 시간에 호텔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GRAND PALACE에 가보기로 하고 물어 물어 버스에 오르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GRAND PALACE를 자세히 살필 여유가 없었지만 태국의 고궁과 근대 건축물, 그리고 오가며 길가로 보이는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11월 방콕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초여름 수준으로 매우 더운 날씨였으며 아마도 건물의 입면에 차양이 많은 것은 이러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짧은 반나절의 여행을 마치고 저녁 6시 반경에 인도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 진동하던 냄새는 한 두시간 지나면서 익숙해져버렸지만 여행 떠나기 전에 인도여행의 어려움 등을 들었던 기억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다. 인도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10시경이었다(인도시간). 교수님께서서는 아마 주최측에서 마중 나올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산한 인개와 먼지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겼던 것 같다.

별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콘티넨털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에 개회식장에서 잼보리 행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학생 잼보리는 이미 4일 오후에 시작되었지만 늦게 도착한 이유로 하루 늦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 11월 5일

아카시아의 공식행사 개회식이 10시에 있었으며 개회식 이후에 잼보리 행사에 공식 등록을 마치고 최기현씨와 둘이서 잼보리 행사장으로 향했다. 잼보리 행사장은 SPA로 델리의 건축대학이었으며 숙소는 JNS 호텔로 유스호텔 개념의 숙박시설이었다. 호텔은 간이 침대가 6개 놓여진 허름한 곳이었다. 시설이야 우리나라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함께 지냈던 prem(건축대학 3학년 학생)이 친절하게 우리들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델리의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로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추운 편이었다.

오후에는 건축대학에서 "The computer will make the pencil redundant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Debate 시간을 가졌다. 다른 나라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행사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한 상태여서 발표는 못했지만 여러 학생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Debate 시간이 끝난 뒤 토론의 주제에 따라 간단한 컴퍼티션을 하였으며, 우리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했으며, 주제는 "Peace and Celebration"이었다. 저녁시간에는 건축대학의 음악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과 연극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밤11시가 되어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 11월 6일

잼보리 일정 3일째 날로 오전에는 시티투어를 하였으며 오후에는 5일과 비슷한 컴퍼티션과 학교동아리의 공연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한 패션쇼가 있었다.

시티투어는 델리에 있는 고건축과 근/현대건축들을 답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Lodi Gardens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 로디 정원은 몇몇 왕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정원의 형성된 기간이 길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건축양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정방형 기단에 8각형의 탑형 건축인 Octogonal tomb, 정방형 저층부에 원탑이 서있는 SHISH-GUMBAD, 양쪽에 저층부 주랑이 있고 중앙에 정방형 구조로 되어있는 BARA-GUMBAD 등이 로디 정원에 산재해 있었다. 로디정원에 인접한 INDIA HABITAT CENTER는 알렌 스타인의 건축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외관상의 테라코타는 인상적이었다.

다음으로 HUMAYAN'S Tomb에 들리게 되었는데 타지마할의 원형이라는 말처럼 구축적 형태는 타지마할과 비슷한 형상으로 정방형 기단부 위에 팔각형 구조부가 외주부로 4개 그 내부에 4개 그로 인해 만들어진 중앙의 8각 로툰다와 4개의 사각형 공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문에서부터 본당까지 진입하는 경로 또한 정방형 담벽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는 진행으로 외부조경의 형태나 패턴이 서로 엄격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힌두교 성전으로 현대식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연꽃모양으로 구성된 성전은 구조적으로 매우 특이하였다.

### 11월 7일

특이한 일정은 없었으며 각자 얻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과 폐회식과 수상식 등이 이어졌다. 공식일정은 2시 30분 경에 끝났으며 우리는 8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델리 공항으로 향했다.

델리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일 때 만들어진 계획도시로 역사가 600년 이상이 된다고 들었다. 사실 가로변의 나무들을 보면 그 도시의 역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나무가 왕복4차선 도로를 뒤덮을 정도로 자라있다. 그때문인지 도시가 숲과 섞여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숲 속 사이로 드문드문 고층빌딩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인도 학생의 말처럼 근대건축이 발생하기 이전에 인도 자생의 근대건축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도 인도라는 나라의 풍토와 동서 문명의 점점지역으로서 갖는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도시에서 발견되는 건축물들은 근대건축의 원형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량하기까지한 먼지진 거리와 타오르는 태양 아래의 건축이란 정말이지 건축이 본질만이 남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다.

### 맺으며..

우선 아쉬운 점은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다. 귀국 후 인도건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인도에 가고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일정이었지만 미리 준비했으면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자로 참여하긴 했지만 대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실무건축을 하는 참가자는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두 사람 밖에 없었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왕에 경비를 들여 여행할 간 것이므로 충분한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강혁진 / (주)원도시 건축) 圖

건축계소식 / 91

해외잡지동향 / 98

현상설계 / 102

법령 / 108

세무안내 / 113

건축사 자격 예비시험 안내 / 114

건축계소식 archi-net

우리협회 제25대 신임회장에 이세훈 회원 당선

지난 2월 26일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신임회장에 당선된 이 세훈 회원



이·취임식 광경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세훈(李世勳/63세/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대표)회원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이관영(한인건축사사무소), 이철호(승창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회원이 함께 회장후보로 출마, 경합을 벌였다. 한편 지난 3월 5일 우리협회 중회의실에서 산구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세훈 신임회장 약력>

- 1940년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서울시건축상 수상
- 대통령 표창
-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세하 대표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26일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총회 광경



정하남 전달 모습

우리협회 제37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전국대의원 4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우남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대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때이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일본건축사연합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전회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등의 식순에 의해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안건 심의에 앞

서 일부 안건의 순서를 바꿔 예·결산 심의 뒤에 임원선거, 정관개정안, 회관 처리대책안건 등의 순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의한 부의안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200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 승인
- 제2호의안: 200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제3호의안: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 제4호의안: 정회원 회비 장기 미납 회원의 징계에 관한 건 - 원안 승인
- 제5호의안: 임원개선의 건 - 회장: 이세훈, 감사: 이영복(삼부건축), 이사(9인): 신입회장에 위임
- 제6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표결 결과 부결
- 제7호의안: 회관처리 대책(안) 결정의 건 -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처리 못한 채 산회

## 2003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특별전형 시험일자 발표

오는 5월 18일(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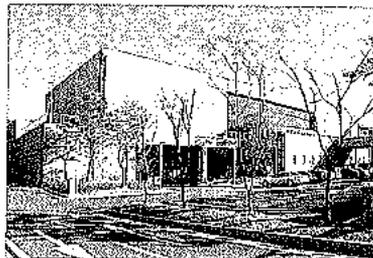
2003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일자가 오는 5월 18일(일)로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가 이루어지며, 시험장소는 4월 22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합격예정자발표는 5월 28일에 있을 예정이다. 예비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등 객관식 선택형으로 치러진다. 이번 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된다.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공고는 이번 시험 발표이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114쪽 참조)

## 2003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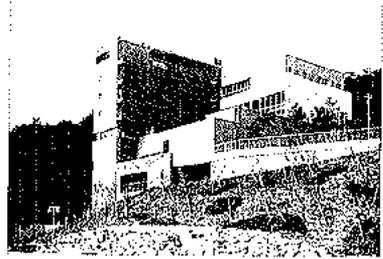
지난 2월 25일 시상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6일 2003년도 제25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및 특별상(초평건축상, 아천건축상, 엄덕문건축상) 수상작(자)을 발표했다. 제25회 한국건축가협회상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공순구+임채진),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박승홍),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다산컨설팅), 안성맞춤박물관(권문성+이경락), 펼쳐지는 집/성동구 행당1동 청사(김인철), 한국소방검정공사(김상식+김현철+김용미), ACROS(우경국)가 선정됐다. 한편 특별상인 초평건축상은 원정수(간삼건축) 명예이사, 아천건축상은 박수근미술관(이종호), 엄덕문건축상은 전통문화학교(민현식)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5일 LG아트센터 오리목스홀에서 개최된 제45회 한국건축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다. 건축가협회상의 심사는 강석원(그룹건축), 박영건(범건축), 배병길(배병길건축연구소), 여영호(고려대학교), 정명원(홍익대학교)씨가 맡았고, 아천건축상과 엄덕문건축상은 김한근(한애김중합건축), 박연심(장원건축), 손기찬(동이건축), 아왕기(목원대학교), 장웅재(원도시건축)씨가, 초평건축상은 윤승중(원도시건축), 도창환(우노담), 민선주(위가건축), 양해운(예전종합건축), 이영수(홍익대학교)씨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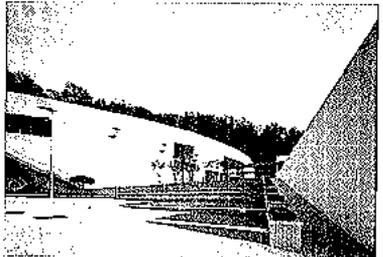
문의: 02-744-8050 www.k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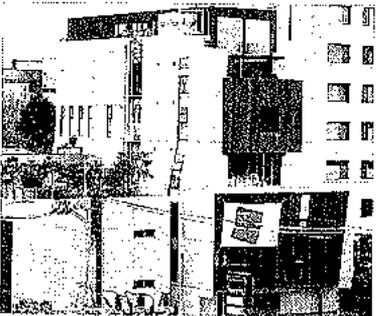
임채진+공순구 /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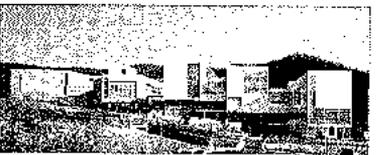
박승홍 /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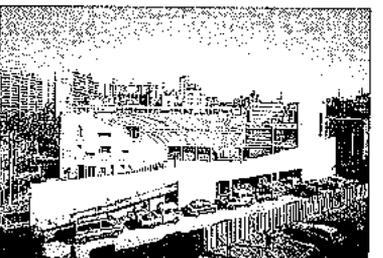
권문성+이경락 / 안성맞춤박물관



우경국 / 아크로스



김상식·김용미·김현철 / 한국소방검정공사



김인철 / 펼쳐지는 집 - 성동구 행당 1동 청사



정영선+조성룡 / 선유도공원

## 서울건축학교 2003년 워크숍

2003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다시 오늘의 자리에서

서울건축학교 2003년 정기워크숍이 「2003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다시 오늘의 자리에서」란 주제로 스튜디오를 선정하며 세미나와 전시, 출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심포지움이 병행된다. 박영훈(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프랫대학원, 인덕대학 만화애니메이션 조교수), 최욱(홍익대 건축학과, 이탈리아 국립 베니스 건축대학, studio 최욱)씨가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국내외 건축, 미술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3월, 9월중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봄워크숍은 4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가을 워크숍은 10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린다.

또한 여름워크숍은 1998년 이후 실시된 제주, 무주, 강경, 양구, 부산워크숍에 이어 이 시대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도시의 상황·비전을 그 현장으로부터 탐구하는 워크숍으로 이번에는 최문규(연세대 건축학과, 동대학원, 콜롬비아 건축학과, (주)가이건축사사무소대표)씨가 코디네이터를 맡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이며, 일정은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로 5월말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763-0471

(fax: 763-0473)

담당: 이주미

<http://www.saschool.or.kr>

(saschool@saschoo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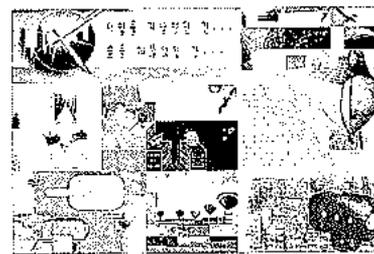
## 2003 이상건축상 발표

「내마음의 옥탑방」을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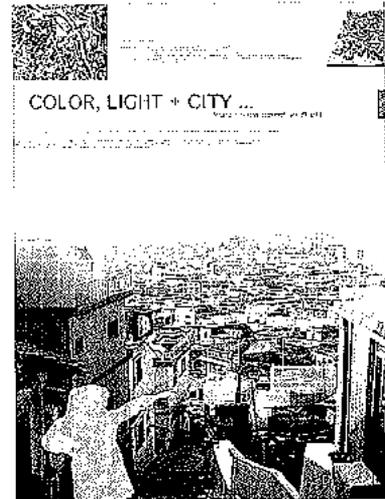
지난 2월 13일 월간 이상건축은 제9회 이상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마음의 옥탑방」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김선구(김준식건축사사무소)씨의 「Garden of sky for 48 families」, 박상선(시공건축)씨의 「They stroll in the air」, 이상민(성균관대학교)씨의 「Change the way of seeing」, 박현제(성균관대학교)씨의 「Color, Light + City... 옥탑방은 도시와 정신적인 교류를 한다」, 성은아(동아대학교)씨의 「태양을 겨냥했던 건... 숲을 깨웠었던 건...」 등 5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전재영(한남대학교)씨의 「Embrace the sky」와 6작품이佳作, 정구영(두가건축사사무소)씨의 「매일 매일 자라는 집」의 8작품이 입선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1점의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1차에 19점을 선별하여 2차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서현(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최두남(서울대학교), 헬렌박주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씨가 맡았다. 문의: 02-549-5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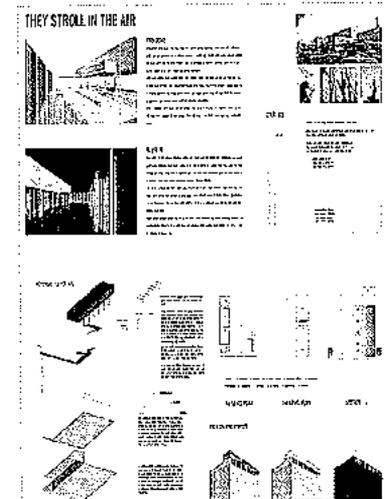
당선작 / 김선구 씨의 48가구를 위한 하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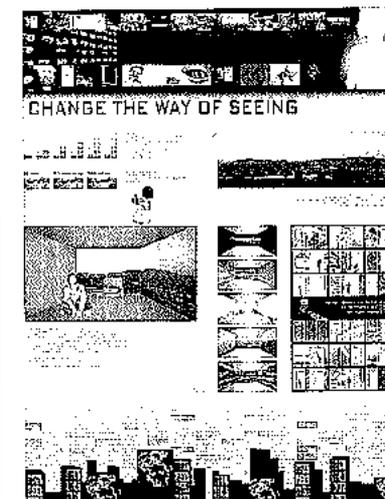
당선작 / 성은아 씨의 태양을 겨냥했던 건... 숲을 깨웠었던 건...



당선작 / 박현제 씨의 색, 빛 +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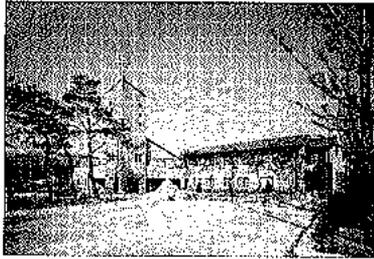
당선작, 박상선 씨의 '그들은 하늘을 거닌다'



당선작 / 이상민 씨의 '제인지 더 웨이 오브 씽'

## 제8회 가톨릭미술상 발표

본상 건축부문에 김무권  
(현대건축, 대구)회원 수상



제8회 가톨릭미술상 본상 수상자가 발표돼 지난 2월 18일 가톨릭 화랑에서 시상식을 갖고 3월 16일까지 전시됐다. 건축부문을 수상한 우리협회 김무권(현대건축, 대구)회원의 작품은 대구의 「신령성당」으로 공간구성의 간결함과 명료함 등으로 성당건축의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회화부문에 이동표(양평미술인협회 회장), 디자인부문에 안정언(숙명여대교수)·신명우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의: 02-360-9193

## 제1회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모빌리티'를 주제로 5월 7일부터

제1회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가 '모빌리티(Mobility)'를 주제로 오는 5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올 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최근의 건축경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앞으로 2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모빌리티를 주제

로 전세계의 건축전문가, 학생, 영화감독, 사진작가 등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두 달 동안 보여주게 된다. 또한 모빌리티의 랜드스케이프를 도와주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건축사협회와 라스팔마스 두 곳에서 개최된다. 큐레이터는 델프트대학교 교수이자 메카누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겸하는 프란시네 호우벤씨가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iennalerotterdam.nl](http://www.biennalerotterdam.nl), 전화 +31.10.440.1331로 문의.

##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오는 4월 30일 마감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Travelling Fellowship)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자격요건: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 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2003년 4월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처: 맥스트렛(신종환소장, 02-569-153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 빌딩 3층1호 (주)맥스트렛 內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 담당자 앞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TSKAF.ORG](http://WWW.TSKAF.ORG) 를 참조)

## 전원주택박람회 홀덱스 2003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조선일보와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홀덱스 2003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홀덱스 2003은 전원주택의 현주소와 건축기술 수준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원주택 종합박람회로 매년 150여 개의 관련 업체와 6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다.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집, 황토주택, 이동식 주택이 실물로 전시되어 전원주택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 수익형 전원주택으로 떠오르는 펜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펜션관도 설치된다. 문의: 02-413-9938  
[www.homdex.com](http://www.homdex.com)

## 세계건축물 박물관 5월 개관

경기도 부천시에

경기도 부천의 <세계건축물 박물관>이 오는 5월 문을 연다. 민간자본 4백억원을 들여 짓는 이 박물관에는 역사성, 예

술성이 뛰어난 세계건축물 1백여 점을 25분의 1로 축소한 미니어처가 전시되고 피라미드 모형의 미끄럼틀 등 세계 문화유산을 본 뜬 각종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세계문화유산체험관>도 함께 건립된다. 박물관은 이집트·아프리카존(피라미드 등 5점), 신세계아메리카존(백악관 등 35점), 유럽존(에펠탑 등 47점), 서아시아존(타지마할 등 5점), 동아시아존(만리장성 등 8점)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32-320-2114

##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 생태건축 강좌

8월 23일까지 한겨레문화센터 신촌교육장에서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 생태건축 강좌가 3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겨레 문화센터 신촌교육장에서 열린다. 집짓기와 거주하기에 있어 생태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강좌는 올해로 11기 짝을 맞고 있으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두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초 과정은 생태건축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심화과정은 생태건축의 대표적 기본요소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은 실제로 생태주택의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업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 가는 실험적 강의 진행방식으로 내 집 설계를 내 손으로 해보는 연습과정이 될 예정이다. 이 강좌는 한겨레문화센터와 생태건축연구소가 공동 기획, 운영하는 것으로 생태건축에 관한 진지한 시대적 고민과 건축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초과정은 3월 26일, 심화과정은 6월 11일 개강하며, 신청 마감일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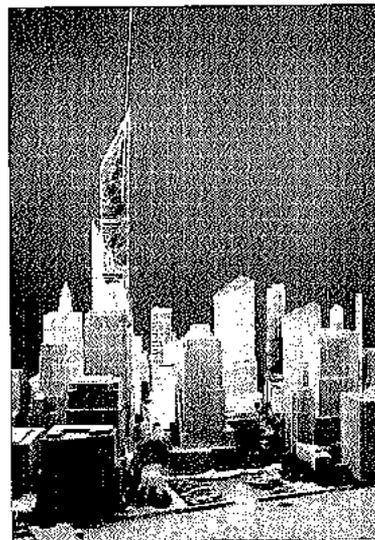
월 5일이다.

문의: 02-3272-7575

www.hanter21.co.kr

## 세계무역센터 새 설계안 최종 확정

독일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



9·11 테러로 사라진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에 들어설 새 건물의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

AP 통신은 그 동안 경합한 2개 후보안 가운데 독일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월 26일 보도했다. 리베스킨트의 설계는 첨탑을 포함해 높이 541m짜리 세계 최고의 주 건물과 기하학적 구조를 갖춘 주변 건물들로 돼 있다. 테러로 생긴 거대한 구멍은 일부 기념물로 보존하게 된다.

WTC 재건축 방안 선정위원회는 막판까지 당선작과 격자 무늬 쌍둥이 타워를 제안한 건축가 그룹 '싱크(THINK)'의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마이클 블롬버그 뉴욕시장과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지정한 541m의 첨탑과 기하학적 구조의 빌딩군 건설을 골자로 하는 독일의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설계사무소의 안이 최종 낙점을 받았다.

## Field Issue from 건축문화+정림건축

정림세미나를 발전시켜 2000년부터 매년 「Cross Over」등의 풍부한 주제로 각계 각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열린 정림포럼을 올해는 월간 건축문화와 연대하여 개최한다. 월간 건축문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축계의 이슈를 중심으로 2003년 정림포럼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건축계에 좀 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펼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며, 실무 건축가와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포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일정: 3월~11월(월 1회 개최)

- 첫강연: 3월 29일 예정

- 시간: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정림건축 1층 정림갤러리

- 문의: 정림건축 02-708-8748 월간 건축문화 편집부 02-538-7333

- 발표주제(예정):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건축가 조성룡의 조정적 건축관, 김우일(협동건축사사무소)/네델란드에서의 건축경험: 시스템화된 설계방법론, Simone Carena(Studio Elastico 파트너)/디자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한국에서의 작업중심으로, 심재현(세종대 교수)/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과 초고층주상복합건축의 가능성, 김영섭(김영섭+건축문화종합건축사사무소)/가리워졌던 또 하나

의 세계; 동구권 건축기행, 문진호 (정림건축)/상업유통시설 건축 디자인, 신승수+조임식(베를라헤 건축대학원, 건축문화 네델란드 특파원)/OMA건축사무소의 업무의 확장 AMO-네트워크 실천을 위한 Think Tank, 박승홍(정림건축)/국립중앙박물관 건축과 Recent Projects, 김광현(서울대학교 교수)/이론과 실제; 건축가로서의 나의 작업, 정석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 연구위원)/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 도심부 계획

## 호서대학교 건축학 · 건축공학 Colloquium

2003년도 봄학기 공개 건축세미나  
6월 3일까지

호서대학교 건축학 · 건축공학 Colloquium 은 창립 11주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온 특강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4번의 외래 강사를 초청하여 건축 제 분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사회 예비인으로서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유념하여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호서대학교 조형과학관 103호에서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3월 18일(화) 16시 /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첨단 구조계측 / 김기수(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교수)

-4월 29일(화) 16시 / 동양화 읽는 법에 나타난 자연관 / 조용진(한서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5월 13일(화) 16시 / 인도의 건축문화 / 윤장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6월 3일(화) 16시 / 광경화를 이용한 내장재 및 건축보강 신소재 개발 / 이재락(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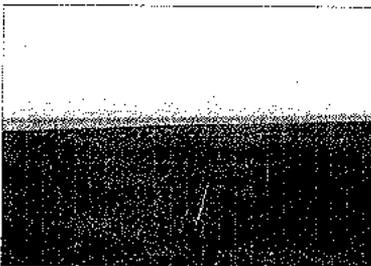
## The Site-김재경 사진전

4월 19일까지 한미갤러리에서

김재경 사진전이 한미갤러리에서 3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The Site'란 주제로 열린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달동네 콘크리트 계단 등의 흑백 사진을 주로 발표해오던 사진작가 김재경 씨는 2000년부터 궁평리와 매항리를 잇는 방조제 풍경의 변화를 8×10inch 대형 커러 필름에 담아온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렌즈를 통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바다의 갯벌을 어떠한 환경 고갈의 메시지 없이 그저 풍경 그 자체의 담담함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하늘이 맞닿는 풍경은 영상적인 이미지 그 자체로서 쓸쓸한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서히 생명력이 소멸해 가는 벌거벗은 육신을 드러낸 땅만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욕심과 문명의 이기로 인해 변화할 김재경 사진 속의 풍경은 어느 순간 그 치위가 우리의 기억과 더불어 그 기억의 기록으로서 옛 모습의 존재성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남게 된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김재경 씨는 2003년 4월 12일 오후 3시, 작가와 의 만남 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해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시 기간 내내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상프로그램'이 오후 4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02-720-8488



0211261 장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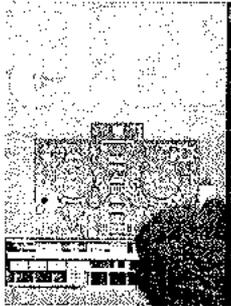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3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303 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3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8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3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9-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3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66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8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897~8 · 사릉지역건축사회/(031)918 6713 · 인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C126 · 성철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03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 573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9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3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0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61-456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6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27~8 · 2. 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9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3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해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63)852-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u

2003년 2월

이번 호의 특  
집은 「멕시코  
의 건축이다.  
원주민의 고  
대 문명과 16  
세기 서구 정  
복자의 두 가  
지 문화의 기



원을 갖는 나라 멕시코.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근대화와 함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멕시코의 근대건축에 담기게 되었으며, 바라간 이후 세계화를 향해 새로운 정을 열고 있는 멕시코 건축을 조명해보았다. 1930년대에서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의 근현대 건축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과 에세이가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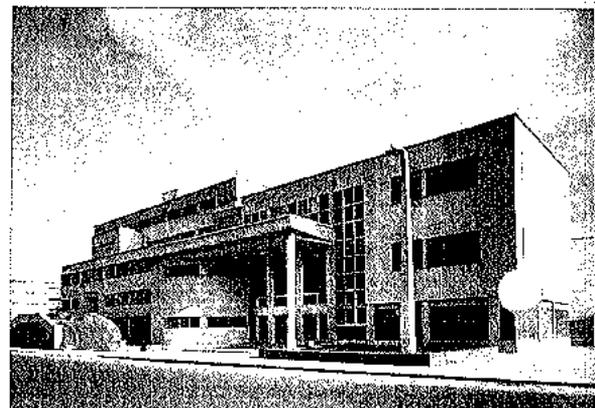
■ 특집: 멕시코의 건축

건축은 인간이 동굴주거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수 천년 전에 탄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대륙과 멕시코에서는 우리들이 오늘날 경외로움을 금치 못하는 위대한 유적들의 원류는 30세기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멕시코 건축의 뿌리는 콜럼버스 이전의 토착문화와 16세기 이래 아메리카대륙에 영향을 미친 서유럽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시대에 건축은 중요한 표현형식이 되었다. 그 특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건축은 동시대의 다른 표현형식을 초월해 신세계 전역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들만의 기념비들을 만들어갔다. 기능주의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근대 건축은 강한 국제적 성격을 띠었으며, 그것은 국가나 지역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멕시

코의 농가 건축과 스페인령 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친 북아메리카의 건축을 함께 경험한 루이스 바라간은 오래된 건축형태를 동화시켜 과거의 문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어구를 사용하여 과거와 연결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가치 있고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의심할 여지없이 멕시코적인 건축을 탄생시켰다.

이상은 멕시코 국립문화예술협회회장인 사리 베르무데즈(Sari Bermudez)가 쓴 이번 특집을 위한 서문이다. 얼핏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멕시코의 근대건축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짧은 글 속에 멕시코의 건축이 겪어야 했던 숙제와 고민들이 함축적으로, 그러나 그 배경만을 암시한 채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의 미주리대학 교수인 키스 L 에그너(Keith L. Eggener)의 에세이 「현재에 있어서의 과거: 근대 멕시코의 건축과 정치」에는 이러한 과정이 건축과 정치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섬세히 기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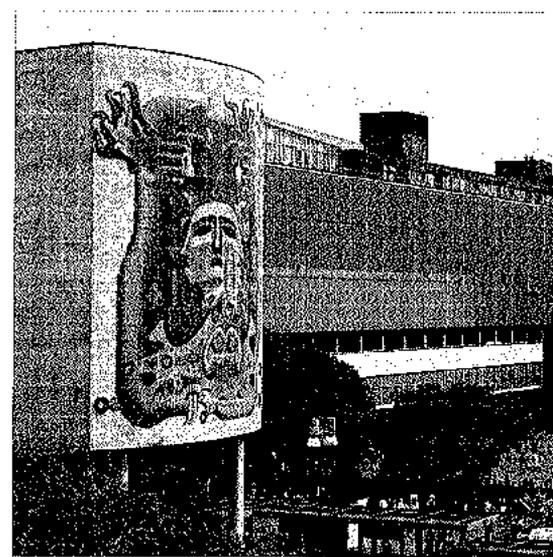
16세기 서양 정복자들에 의해 원주민의 문화가 파괴된 이후 1860년대,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주의자나 반교회주의자들에게 의해 식민지시대의 문화는 마찬가지로 제거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의 근대건축은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변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34년 멕시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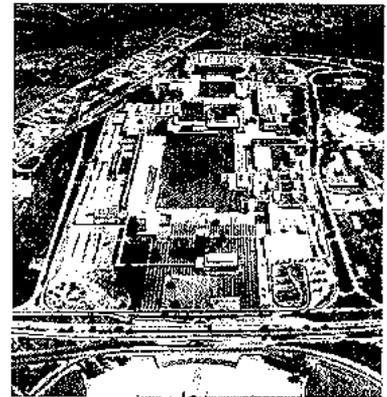
국립심장연구원

티의 중심가로에서 소칼로(시의 중심광장)와 국가공전에서 남쪽으로 뻗은 대로를 건설하기 위해 약 75동의 식민지시대의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11월20일 대로」라 명명된 이 도로는 1910년 멕시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정부와 일반 국민의 레벨 모두에서 일어난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리베라와 같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화가들이 기공할만한 면적의 공공의 벽에 멕시코의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나 혁명기 멕시코의 신화적 이야기들을 담은 거대한 벽화들을 그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보적인 건축가들은 화가들과는 다른 노선을 걸었다. 호세 빌라그란(국립심장연구원), 후앙 오고르망(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를 위한 주택), 후앙 레고레타 등의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건축은 혁명의 도구였다. 전쟁에 의해 파괴해진 조국은 학교와 오피스, 병원, 주택 그리고 공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많은 수가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것이 요구되었다. 빌라그랑과 그의 동료들은 역사적 스타일에서 벗어나 엄격할 정도로 검소한 기능주의를 도입하였다. 르 꼬르뷔제와 보자르의 합리주의자 줄리안 가데에게 영향받은 이들의

작품은 식민지 양식의 리바이벌건축에 비하여 값싸고 효율적이었으며,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스페인 식민지양식과 같은 쓸모없는 역사적,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 것이었다. 1930년대의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기능주의 건축에 열렬한 지지를 보였으며, 1930년대 멕시코의 모더니즘은 이렇게 피어나게 되었다. 1930년대의 기능주의에 의한 학교나 정부기관의 건물, 그리고 노동자 주택이 혁명이 가져온 다양한 약속을 가시화시킨 것이라면 1940~50년대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UNAM, 1946~53년)의 캠퍼스와 대학도시는 이를 건축적으로 구현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멕시코 정부가 그리고 건축가들이 멕시코의 역사 속에서 어느 부분은 자신의 원류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도시계획에서는 CIAM의 아테네 헌장에 기초한 계획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나, 건물들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서구세력 침투 이전의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국가의 야심찬 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립대학에 자신들의 역사적·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담아 그곳에서 육성되는 미래의 인재들에게 보여주는 점에서 대학도시의 건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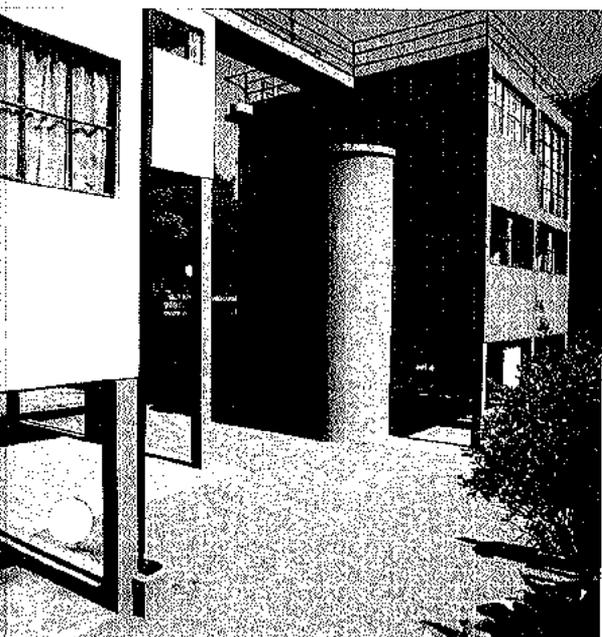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1946~53년)의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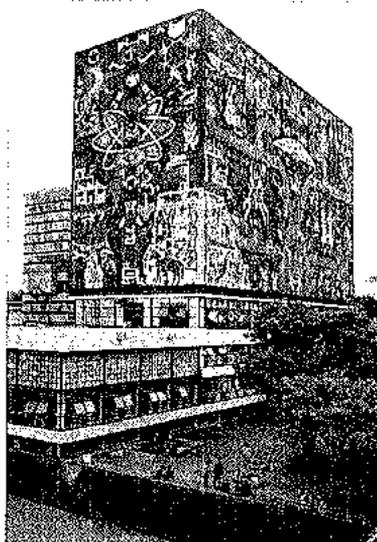


CIAM의 아테네 헌장에 기초한 계획원리가 적용된 멕시코 대학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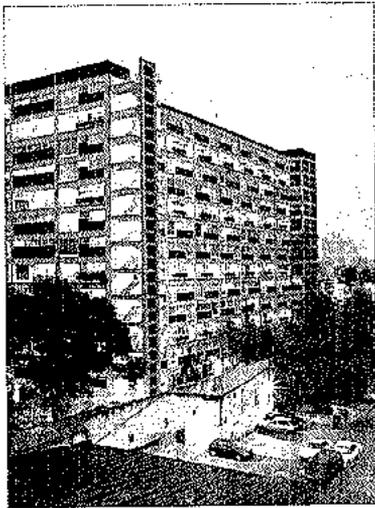
그대로 당시의 정부가 표방하는 역사와 국가관의 선언과도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들은 취사선택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멕시코의 역사를 복원함과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었다. 대학도시의 건설을 주도하였던 알레망 대통령은 자신의 동상은 대도시 안에 세웠으며, 멕시코시티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미리오 파니 설계, 미구엘 알레망 하우스 프로젝트)와 그 인근의 고속도로, 터널 등 멕시코내 각지의 시설들이 그의 이름을 따 세워졌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과는 먼 인물로 평가되온 루이스 비라간도 그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멀지 않다는 것이 키스의 지적이다. 그의 엘 페드레갈(El Pedregal)의 주택들은 고밀화되어가는 멕시코시티의 각종 도시문제에서 도피된 부유층의 주택지였다. 알레망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를 위한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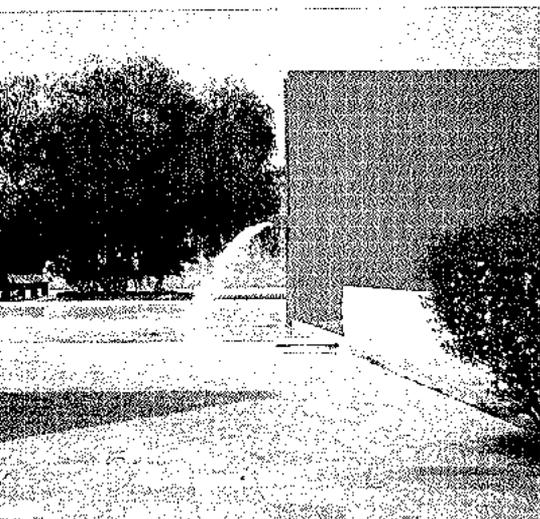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1946~53년)의 캠퍼스



미라요 페니 설계, 미구엘 알레망 하우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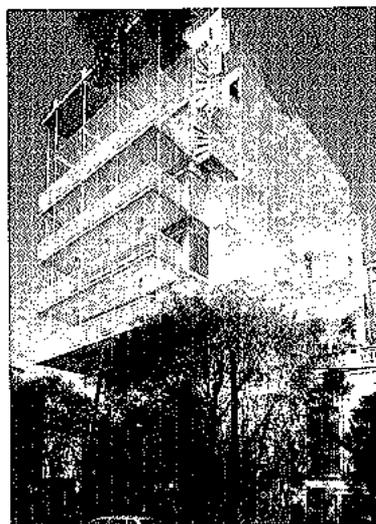
대통령도 지지를 보인 이 주택단지 는 멕시코 혁명이 제거해 버리려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건축에 담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도시와 그와 유사한 표현을 보인 건축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바라간이 담아낸 과거는 부유한 유소년기를 보낸 건축가가 사라져 가는 과거의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향수였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표현된 역사적 상징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점에서 바라간의 건축이 비 정치적이라고 평가받 는지도 모르며, 결과적으로는 멕시코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었다. 수많은 그의 추종자들 중 리카르도 리폴레타만이 유명해지긴 했으나, 그의 화사한 색채, 매스에 의



바라간의 건축(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전환점)

한 미니멀리즘적인 표현, 이질적인 텍스처의 조합 등은 여러 건축가들에 의해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 바라간의 건축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건축이 자신의 국가적 표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게 되는 전환점에서 있기도 하다.

바라간 이후 현대의 멕시코 건축은 텐 아키텍토스(TEN Arquitectos)의 작품 <스페인 공원의 집합주택>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자국에서의 활동에 국한된 「국가사업」에서 벗어나 있다. 텐 아키텍토스의 국립극장학교나 텔레비사빌딩(모두 1995년)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지방이나 지역의 역사, 민속, 장소 혹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형태적인 참조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테크놀로지나 파트너십, 그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학도시나 루이스바라간의 작품들보다 덜 멕시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멕시코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린 문제이다. 이러한 현대의 'Mex-Tec'의 작품들은 다른 모든 시대의 작품들이 그러했듯이 현재의 멕시코의 생활과 문제점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공원의 집합주택

## 건축문화

200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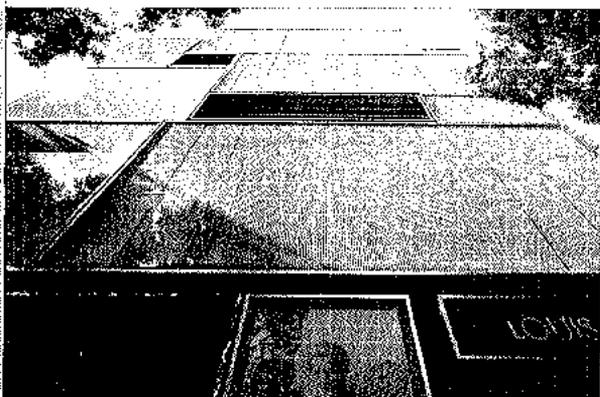
이번호의 특집은 「진화하는 건축의 표면」이다. 최근 들어 다른 잡지들에서도 유사한 제목의 특집들이



기획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건축에 있어서의 표면(surface)을 다룬 특집이다. 아오키 준과 장 누벨의 작품 등 표면에 주목할 만한 최근의 작품들과 표면을 주제로 한 에세이들이 소개되었는데, 소개된 작품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 ■ 특집: 진화하는 건축의 표면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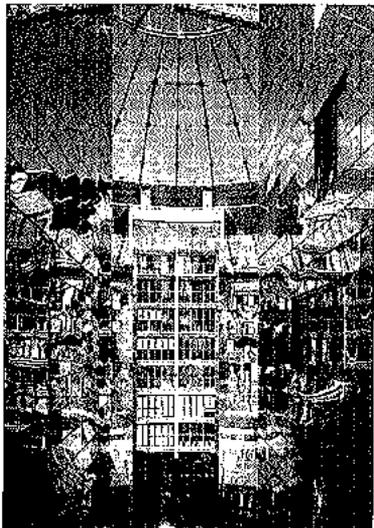
최근 건축의 표면에 대한 관심은 여러 잡지나 논문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다종다양한 재료의 활용과 그 배치, 혹은 표면(surface)에 관한 현상과 일루전에의 주목 등 단순한 차원의 논의에서 건축을 구성하고 있던 표면의 역할의 변화를 통한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다양한 층위와 깊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의 표면은 장식이나 촉각성 등의 문제들과 결부되어 건축의 표면은 지금 이제까지 건축을 규정해온 제 형식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건축의 양태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극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특집에서는 건축의 표면을 둘러싼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현대 건축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국면을 조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오토메도오리 빌딩」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7명의 건축가 혹은 설계사무소는 이러한 표면에 대한 논의에 적합한 자신의 작품들이 최근 준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집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표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소개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최근 작품들을 열거하고 이를 건축의 표면이라는 주제로 엮은 듯한 인상으로 주어 「건축문화」가 그동안 기획해온 다른 특집들에 비해 기획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으나 오히려 최근의 어지간한 작품들을 모아놓아도 건축의 표면에 대한 관심이 돋보이는 현재의 건축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특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작품들은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오토메도오리 빌딩」, 장누벨의 「빈의 가스공장(Gasometer)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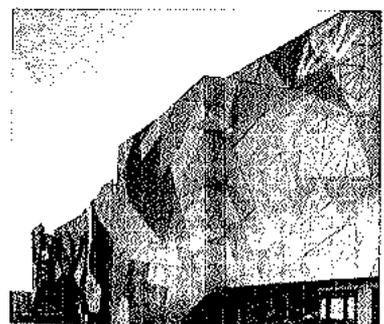
장누벨의 「빈의 가스공장(Gasometer)의 공동주택으로의 리노베이션」



도미니크 리옹(Dominique Lyon)의 「트로와(Troye)의 미디어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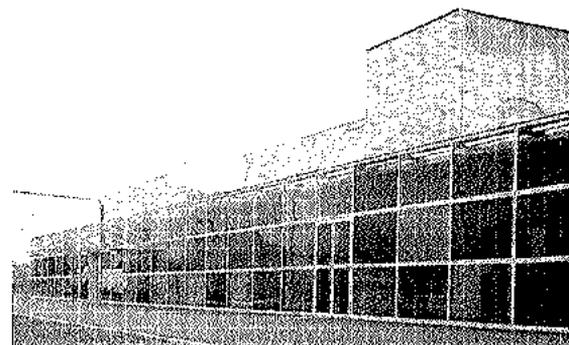
동주택으로의 리노베이션」과 「모라(Morat)의 아트블라주, 엔도 마사사키와 이케다 마사히로의 「내츄럴 엘립스(Natural Ellipse)」, 피에르 뒤 벡세(Pierre du Besset)와 도미니크 리옹(Dominique Lyon)의 「트로와(Troye)의 미디어테크」, 랩 아키텍처 스튜디오(Lab architecture studio)의 「페더레이션 스퀘어(Federation Square)」와 「퀸즈랜드 현대미술관」, 「BMW社 중앙빌딩」, 쿠마겐코 건축도시설계연구소의 「플라스틱 하우스」, 페리페리코(Périphériques)의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및 그래픽아트 스튜디오의 개수」와 「케 브랜리 미술관(Museum at quai Branly)」, 「핑크 고스트」, 「아이콘」, 「음악카페」, 「MR하우스」등이다.

이중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매장은 그의 루이뷔통 매장의 연작들이 시작될 때부터 건물의 더블스킨에 의해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장누벨의 작품들은 이들이 최근의 작품들이기는 하나 그의 「아랍세계연구소(1987)」 만큼 건축의 표면에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작품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다행히 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표면의 성격에 대해 쓴 南泰裕의 에세이 「멀어지는 표면, 희미해지는 공간」가 함께 실려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피에르 뒤 벡세와 도미니크 리옹의 작품은 철망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치는 듯한 모양의 천장면에서 건축 표면의 새로운 표현으로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랩 아키텍처 스튜디오(Lab architecture studio)의 「페더레이션 스퀘어(Federation Square)」

작품들이 소개된 랩 아키텍처 스튜디오와 페리페리코의 작품들은 분명 건물의 외피에 상당한 표현들이 집중되어 있다. 랩 아키텍처의 표면이 단지 장식적 효과가 아닌 내부 공간의 복잡성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임에 반해 페리페리코는 건물의 기능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이다. 엔도 마사사키와 쿠마 겐코의 주택들은 FRP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짐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표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힘든 작품들이기도 하다. 건축 표면에 대한 논의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소개된 작품들이라기보다는 게재된 에세이들이다. 太田浩史의 「단순성과 복잡성의 파라독스-표면, 그리고 내실」, 柄戸祐輔의 「건축과 영상/공간을 확장하는 영상」, 榎橋修의 「구축되는 머티리얼리티-헤르조그&드블롱에 있어서의 〈표층〉」 등의 에세이는 소개된 작품들에서 결여되어있는 표면에 대한 논의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번역/강상훈)



페리페리(Periphériques)의 「음악카페」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장안대학 마스터 플랜 및 학술정보관 / 102

수원시제2청사 / 104

방짜유기박물관 / 106

장안대학 마스터 플랜 및  
학술정보관

Jangan College Master Plan &  
Library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양승관) + MDO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 외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학 교시설)
대지면적	271,680.00㎡
건축면적	4,454.16㎡
연면적	20,333.44㎡
건폐율	7.87%
용적률	29.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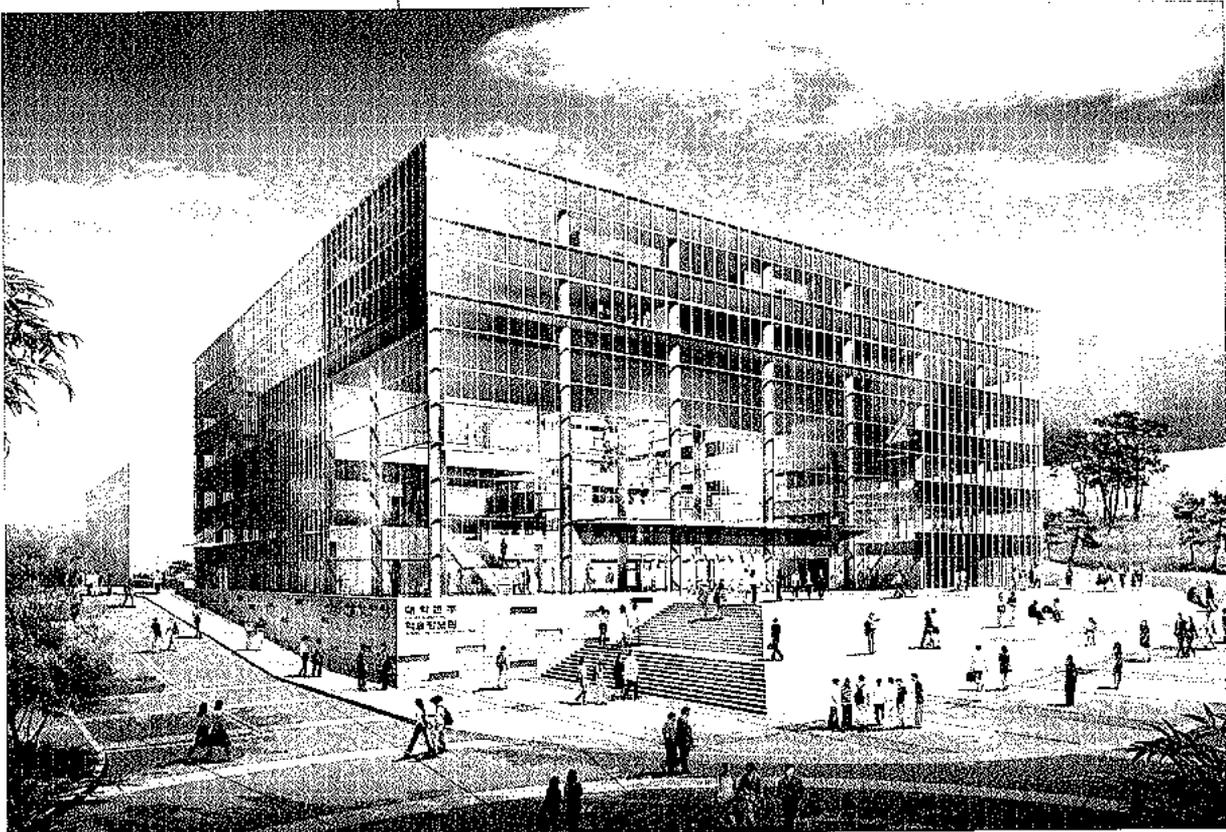
설계팀 최태호, 홍명기, 송운연, 박문신,  
이원석, 최용림, 정창근, 박정규,  
이정완, 반미선, 서민

배치계획

- 대학본부 및 학술정보관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축을 형성하여 System적인 확장을 계획하였다.
- 대학본부 및 학술정보관과 모든 건립예정건물은 향이 좋은 남향으로 배치하였으며, 기존건물과 계획한 건물이 모두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모이도록함으로써 Campus내의 건물과 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동선계획

- 자동차도로는 Loop를 형성하여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였으며, 도로의 구배가 가장 적도록 계획하였다.
- Campus내의 중앙중심도로축과 정문과 후문에서 오는 도로축이 교차하는 점에 Campus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생활과학관 앞광장과 중앙광장이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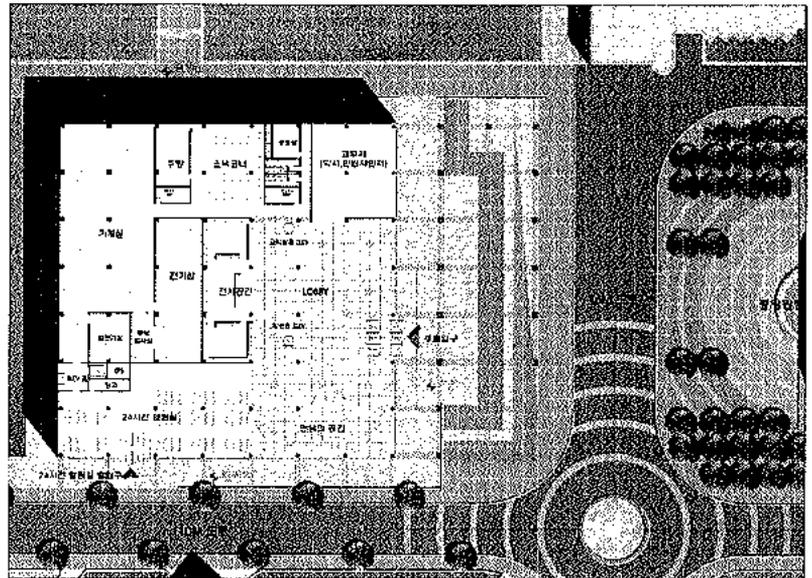


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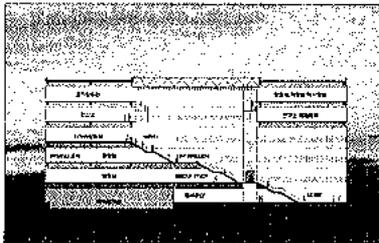
-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하여 아파트와 편의시설이 있는 마을과 연결 계획하였다.

###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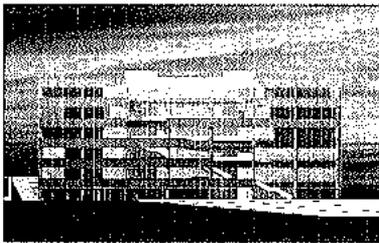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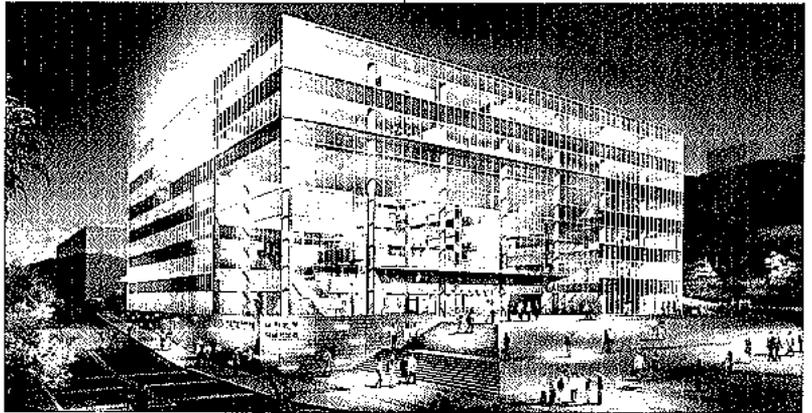
- 중앙광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곳을 아름다운 휴식과 명상의 장소로 계획하였으며, 잔디광장은 학생들의 축제장소로 계획하였다.
- 대지주변의 모든 녹지공간에 산책로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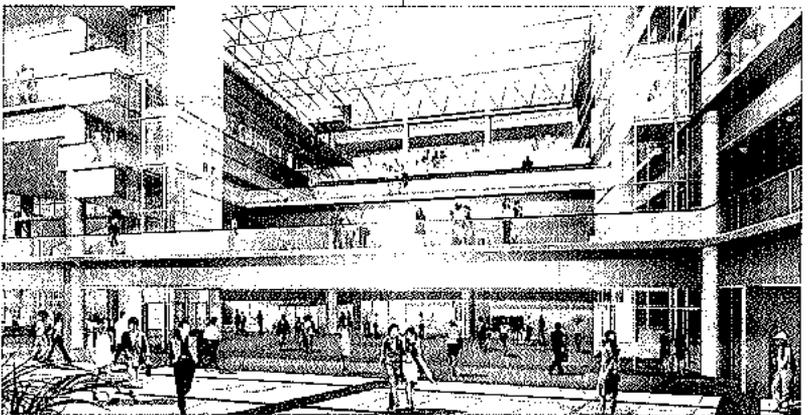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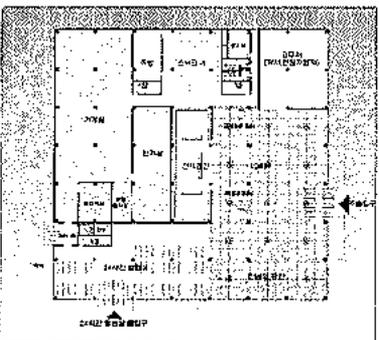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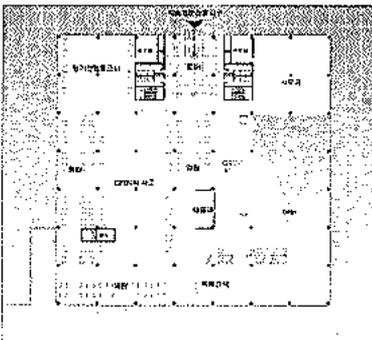
외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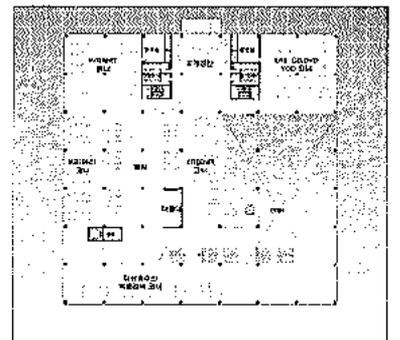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수원시 제2청사

Suwon City the Second Government Office

###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양승관)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용도	업무시설(공공청사)
대지면적	21,677.40㎡(6,557.41평)
건축면적	2,662.04㎡(805.27평)
연면적	21,970.22㎡(6,645.99평)
건폐율	29.23%
용적률	94.21%
주차대수	404대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  
**설계팀** 최태호, 홍명기, 송윤연, 박문신, 박정규, 이정완, 정창근, 반미선, 서민, 윤일도

#### 계획의 개념

시간쌓기(TIME LAYER BUILT):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층이 한겹한겹 쌓이듯 과거의 토대위에 현재와 미래의 수원의 이미지를 건축적요소 즉, 새로운 공간체계, 매스, 재료 등으로서 재구성하여 시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청사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 계획의 기본방향

- 1) 건축적 재구성
  - 기존시청: 정면성이 강조된 문의 이미지
  - 제2청사: 공심문의 전통적 이미지를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여
  - IMAGE의 결합: 전체를 포용하는 건축적 프레임으로 문루의 이미지완성

- 새로운 재료와 공법의 사용: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건축적 표현

과거: 석재 → 현재: 유리, 스테인레스스틸

#### 2) 친환경 건축기법

- 실내정원, 테라스, 일사조절루버: 업무공간의 쾌적성 극대화

- 친환경공원, 옥상정원: 자연체험, 올림픽공원의 시각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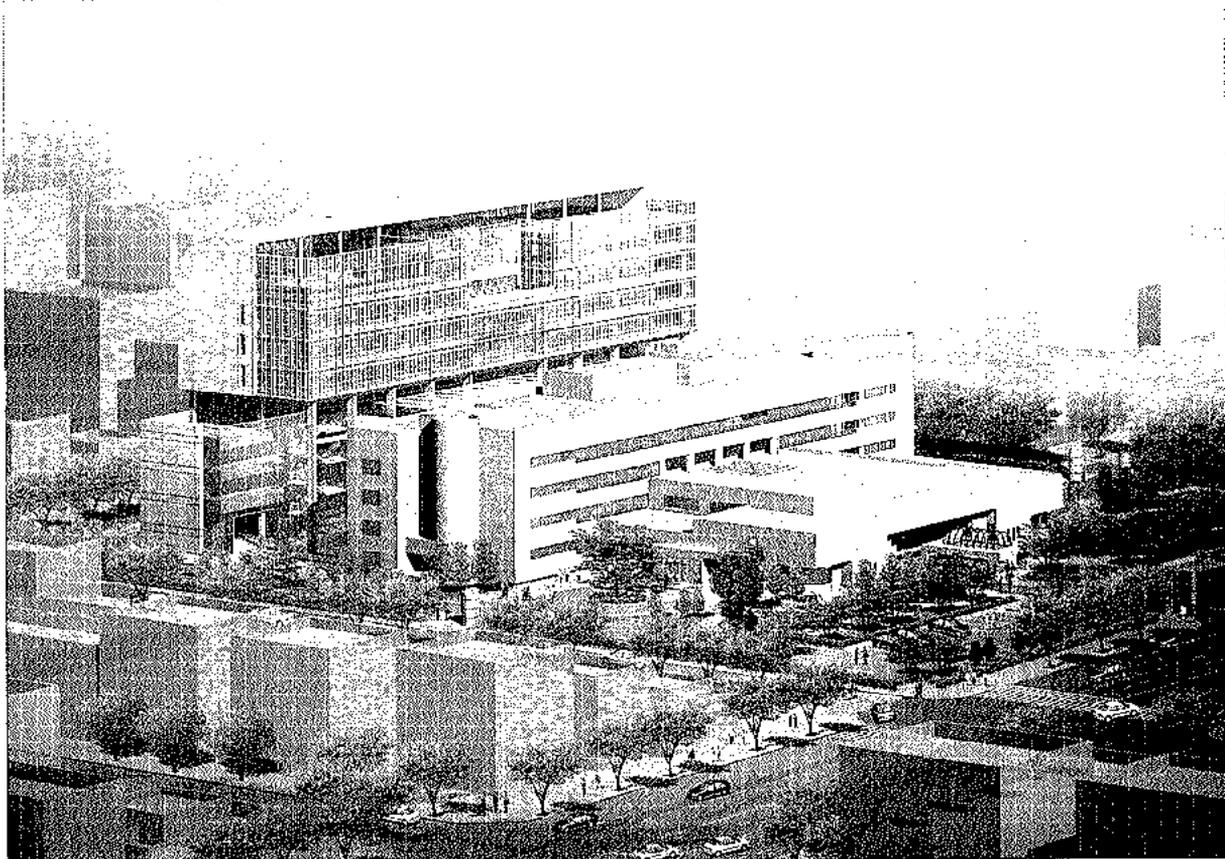
3) 새로운 공간체계: 완충공간(아트리움) 삽입을 통한 기존청사와의 공간체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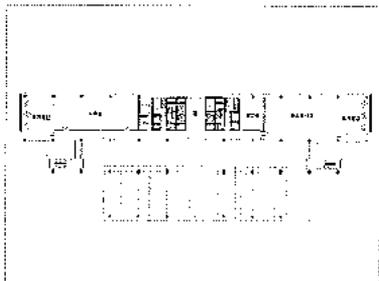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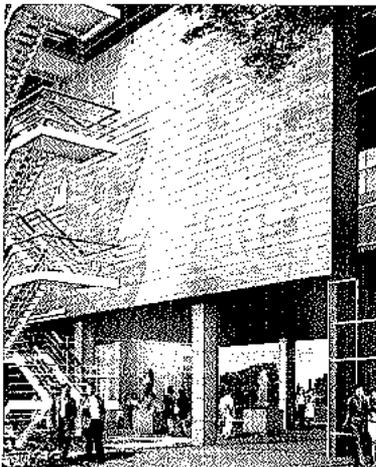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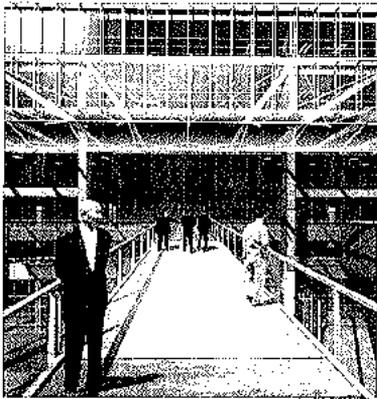
#### 배치개념

- 기존도사가 이루고 있는 질서에 대처되지 않는 조화로운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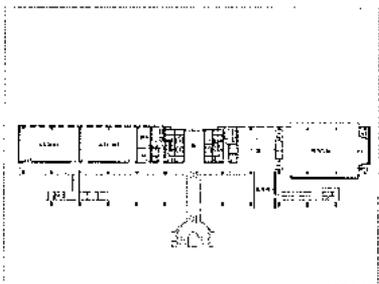
- 열린시민의 장 구현: 청사내 열린공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시청"의 이미지를 계획

- 완충공간: 기존청사와 제2청사 사이의 기능적 연계와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공간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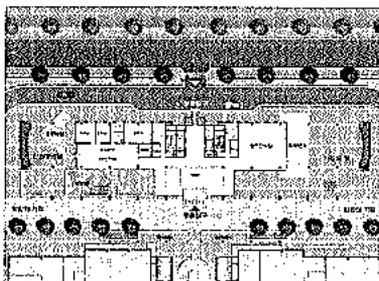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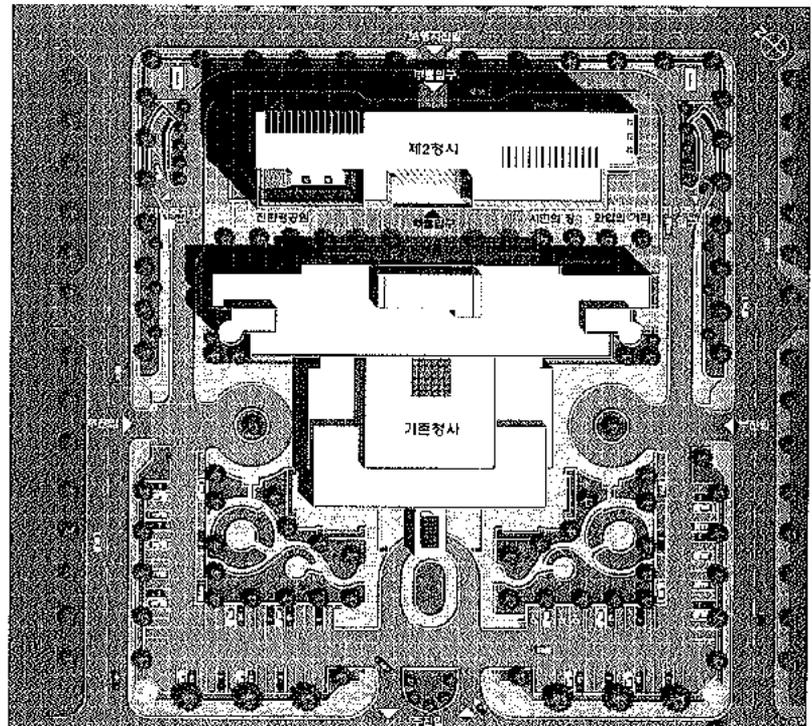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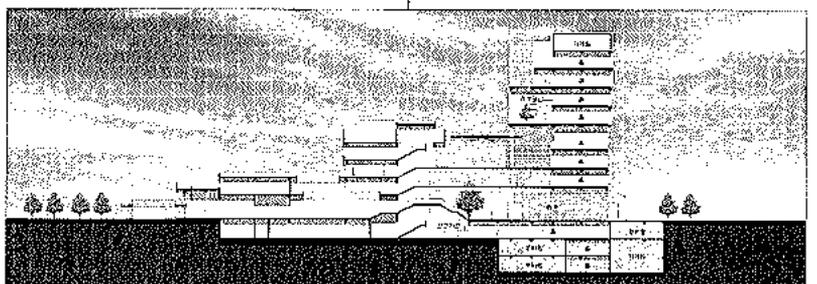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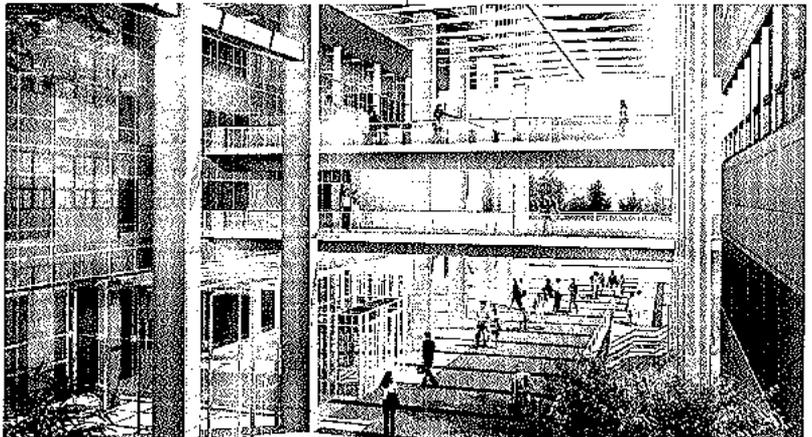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종단면도



측면도

## 방짜유기박물관

Museum of Bangzza

###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서종달·김형수)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99번지의 일원
지역지구	공원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 (8m, 2층 이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17,242.00㎡ (5,220평)
건축면적	2,345.60㎡ (709.54평)
연면적	3,288.93㎡ (994.90평)
건폐율	13.60%
용적률	16.23%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 내후성강판, 복층유리
내부 마감	화강석, 대리석, 방염처리벽지/페인트, 석고보드/페인트
설계팀	김주연, 김장수, 김상돈, 도영욱, 하철수

대구시는 팔공산도립공원과 인접한 곳에 6개의 전문박물관으로 구성된 대구 박물관 타운을 구상하고 있다. 그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 방짜유기박물관으로 방짜유기란 동과 주석의 합금을 물 도가니에 녹여 바둑 형태와 같은 낚시 덩어리를 만들어 이것을 불에 달구어 늘려가면서 기형을 이루는 그릇을 말한다. 방짜유기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유기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용해과정->빛, 단조과정->소리, 담금과정->물, 가질과정->예술/얼' 를 박물관 계획의 주 컨셉으로 하였다.

배치계획은 방짜유기 전시의 특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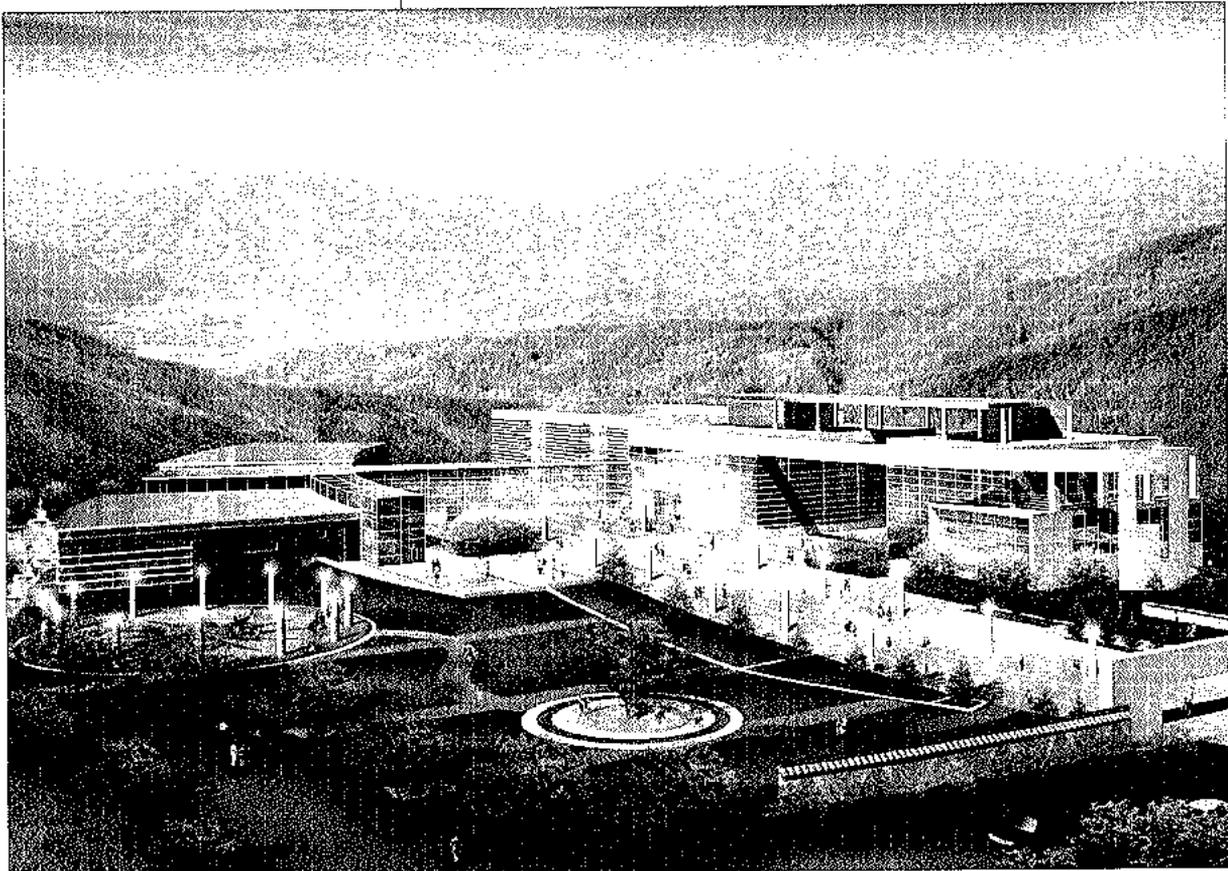
한 전시관과 방짜유기 기술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체험관으로 두개의 MASS로 분리하였다.

대지내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전시관을 대지의 높은곳에, 체험관을 낮은 곳에 배치하여 팔공산 자연 경관과의 조화 및 공간의 위계성을 살리도록 하였으며 향후 박물관 타운화에 대비하여 박물관 중앙광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장축의 전시관의 매스는 전시 공간과 관리 공간으로 분리되어 박물관 진입공간에서 바로 외부 데크로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험관은 방짜 유기물의 전시관람 후 유기제작의 재현과정을 관람 할 수 있는 공간과 직접 유기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제작관은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지의 경사차를 이용하여 내 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계된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박물관을 단순히 전시물의 관람만을 위한 곳이 아닌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계획**

- 팔공산 자연 경관과의 조화 및 박물관 타운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 경사지의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평면 및 단면계획
- 전문 박물관으로서 방짜유기의 특성을 건축적으로 구현
- 내 외부공간의 상호연계로 휴게공간으로의 박물관계획

**평면계획**

대지레벨을 고려하여 체험관과 전시관 및 관리/기획전시관으로 동부리 방짜 유기의 제작과정에서 나오는 요소로 공간시나리오를 만들

**단면계획**

**외부공간**

- 박물관 타운화와 연계하여 다양하며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체험의 공간구성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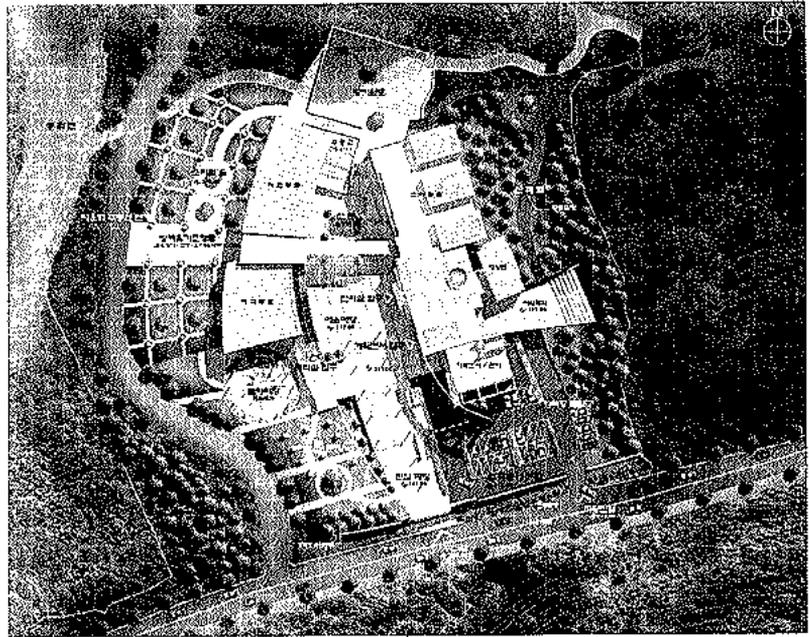
- 관람동선의 입체화, 경사로 적극 도입

**채광계획**

- 전시실 내부 자연채광 적극적 도입으로 밝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건물의 단면 배치계획**

- 기존대지의 고저차를 이용,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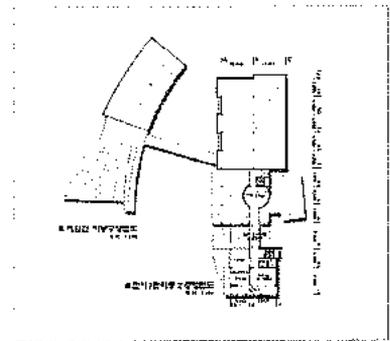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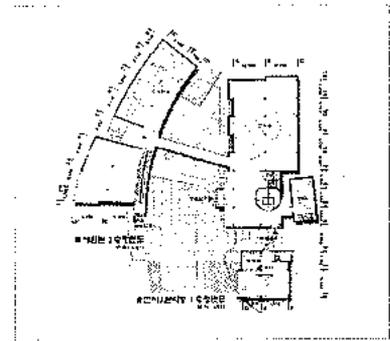
**입면계획**

노출콘크리트와 강판의 사용으로 새롭고 특성있는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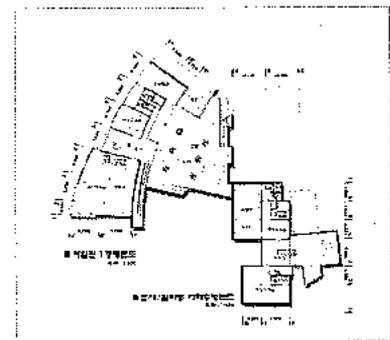
- MASS의 분절로 인한 주변자연환경과의 대응
- SOLID와VOID의 조화로 현대적인 입면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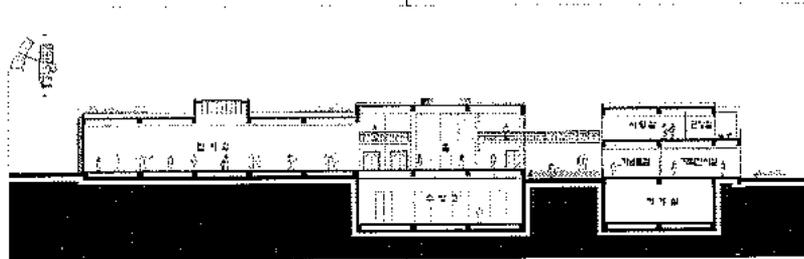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중단면도



동측면도



남측면도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6)

#### ◇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 6733호)되어 종전의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그 지정권자도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수선(大修繕)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임의적인 가구·세대의 증가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호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하되,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인 도시의 미관 및 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55조 신설).

라. 내부감재료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찌질방 등 이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화재발생시의 위험감을 도모함(영 제61조제2호 및 제5호).

마.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축진을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범위를 당해 구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20퍼센트에서 14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86조의2제4항).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2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아동시설·노인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중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로, "아동관련시설"을 "학원·아동관련시설"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

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86조의2의 제목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8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중전의 제1항 내지 제3항)중 "재해위험구역"을 각각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중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건축조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제12호다목을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2호, 2003. 2. 26)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업무 ( )급
2. 건축설계업무
  - 계획설계 ( )종 ( )급
  - 중간설계 ( )종 ( )급
  - 실시설계 ( )종 ( )급
3. 사후설계관리업무 ( )
4. 건축주 요청에 의한 업무
  - 리모델링 설계업무 ( )
  - 인테리어 설계업무 ( )
  -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 )
  - 3D 모델링 업무 ( )
  - 모형제작업무 ( )
  -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 )
  -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 )
  -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 )
  -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 )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단) 예시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공역계약시 (계약설계착수시))	[15%]	₩	
(중간설계인도시)	[25%]	₩	
(실사설계인도시)	[60%]	₩	
계	100%	₩	

**제5조(대가의 조정)**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서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중빙서류(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
8.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

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을"은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며 지문한다.

**제7조(자재검사 등의 의뢰)** ①"을"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건축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 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①"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②"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3부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크·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④"갑"과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의 종합조정)** ①"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을 별도로 발주한 경우에 "을"은 그 설계도서의 작업수행을 종합조정한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해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자료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

요되는 경비를 대가기준에 의거 지불한다.

**제10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 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1조(이행지체)** ①"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을"이 약정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③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3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4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과 협의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

을 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외주의 제한)** ①"을"은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지되, "을"이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③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범위내에서 "을"이 지불한다.

**제21조(분쟁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2조(통지방법)** ①"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통지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3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설계계약건명 : \_\_\_\_\_

2. 대 지 위 치 : \_\_\_\_\_

3. 설 계 개 요

1) 대지 면적 : \_\_\_\_\_ m<sup>2</sup>( \_\_\_\_\_ 평)

2) 용 도 : \_\_\_\_\_

3) 구 조 : \_\_\_\_\_

4) 층 수 : 지하 \_\_\_\_\_ 층 지상 \_\_\_\_\_ 층

5) 건축면적 : \_\_\_\_\_ m<sup>2</sup>( \_\_\_\_\_ 평)

6) 연면적의 합계 : \_\_\_\_\_ m<sup>2</sup>( \_\_\_\_\_ 평)

4. 계 약 금 액 : 일 금 \_\_\_\_\_ 원정 (W \_\_\_\_\_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건 축 주(갑) 주 소 :

성 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 / Fax : \_\_\_\_\_

건 축 사(을) 사무소 주소 :

사무소명 :

자격증번호 : \_\_\_\_\_ 업무신고번호 :

성 명 : \_\_\_\_\_ (인)

전화 / Fax : \_\_\_\_\_

##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2002.12월말 결산법인인 2003.3.31. 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서식변경

- 종전의 요약 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불 일치하여
- 재무제표의 이종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음
- 이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
- 단일 서식인 요약원기명세서도 6종으로 확대하여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 ☞ 2002.1월말 법인부터 시행 중이므로 이번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율 인하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개 정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 특별부가세 폐지

-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 2002.1.1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 2)가 신설되었으나
-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 2002.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 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 200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경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서 서울?인천?경기도 전체지역을 말합니다.

### 투자관련 유의사항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 2002.12.31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금년에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